금주의 법구–〈아함경〉
타인이 곧 나이고
나는 곧 타인이라 생각해
남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된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06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7월 8일) 2020년 8월 26일 수요일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대책이 강화된 가운데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8월 19일 법왕루에 사찰 출입시 자동으로 전신소독이 되는 방역출입문을 설치했다. 사진은 법당 출입 전 '코로나 클린게이트'로 이름 붙여진 방역출입문을 불자대중이 지나는 모습이다. 이번 방역출입문은 구본길 스팩트럼라이팅 대표가 기증했다. 사진= 노덕현 기자

코로나 대유행 조짐… 불교계 방역 강화

조계종 "대면 모임 중단" 방역 긴급 지침

실내 법회 50인 이하로 제한
"방역강화 선제 동참"을 당부
서울·경기·부산사찰 긴장↑
템플스테이도 중단 '셧다운'

신성민 · 노덕현 · 하성미 기자

서울 · 경기 · 부산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불교계가 방역 강화에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원행)은 8월 18일 "수도권 등의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심각하게 증가해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면서 "이에 종단에서는 서울특별시 · 경기도 · 부산광역시 사찰에 8월 30일까지 강화된 방역 지침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지난 2월 20일 1차 긴급지침을 발표한 이래 8월 18일까지 9차례 전국 사찰에 긴급 지침을 시달하며 선제적 방역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된 서울특별시 · 경기도 · 부산광역시 지역의 사찰에서는 8월 30일까지 초하루법회, 백중 기도, 칠석 법회 등 법회 봉행시 동참인원을 실내 50인 이내, 실외 100인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또한, 합창단 소모임 등 대면 모임은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지침도 재차 강조했다. 법회에 참석하는 신도와 참배객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발열과 지침 등의 증상 유무 확인 절차가 이뤄진다. 역학조사를 대비한 참석자 명단과 연락처 기재도 이뤄진다.

실내 법회에서는 개인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도록 했으며, 행사는 되도록 야외 공간을 활용해줄 것을 권고했다. 공양간과 음수대 시설은 운영이 중단되며 떡과 과일, 생수 등으로 공양을 대체토록 했다.

상주 대중들은 마스크 착용을 일상화하며, 하루 2번 체온 측정을 진행해야 한다. 대중 공용물품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공용물품에 대해서는 수시로 살균 · 소독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비상시를 대비해 사찰에서는 소임자 중 1명을 방역담당자로 지정해 지역 보건소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모처럼 기지개를 켰던 템플스테이도 일부 지역은 '셧다운'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은 "서울 · 경기 · 인천 · 부산 지역 템플스테이 총 41곳의 운영을 8월 30일까지 중지한다"고 8월 18일 공지했다.

템플스테이 홍보관,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사찰음식교육관 향적세계에서 진행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도 8월 30일까지 운영을 중지한다.

문화사업단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정부가 수도권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며 더욱 강화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정부 방침에 적극 협력하고자 해당 지역 템플스테이 및 문화사업단의 자체 시설에 대한 임시 운영 중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선 사찰들의 자체 방역도 강화되고 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초하루 법회를 취소했으며, 백중의식 간소화와 전북 금당사로 예정된 하안거 회향 생명살림기도의 조계사 개최 등을 공지했다. 이와 함께 방역지침에 따라 법당 출입 시 명단작성 및 발열점검, 대웅전 내 실시간 발열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8월 20일 50명 이내 기도동참을 위한 고정형 좌복도 설치했다.

서울 불광사(주지 진효)도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건물 내 동시간 인원을 50명 이내로 유지하고 예불 외 행사와 모임을 제한하는 등 긴급운영체제에 돌입했다. 전통사찰의 개방적인 전각 건물구조와 달리 현대적 건물구조인 불광사 특성상 코로나19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선제적 방역태세에 나섰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는 법회뿐만 아니라 일상 예불에도 항상 마스크 착용키로 했다. 법회에서는 집전 스님만 염불하고 참석대중은 듣고 따라 읽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통도사 교무국장 인경 스님은 "방역 소독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손세정제는 상시 비치 중"이라며 "백중 회향법회 및 중요 법회는 추이를 살펴서 안전지침을 더욱 확고히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흥법사(주지 심산)는 백중 법회 시간을 줄였고 소모임을 모두 중단시켰다. 대신 유튜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주지 심산 스님은 "백중 법회는 초청법사의 법문을 포함해 3시간 가량 진행됐지만 올해에는 초청 법사도 없고 시간도 줄였다"며 "신행 생활은 모임이 어려우니 유튜브 방송으로 대신하고 오전에 모든 신도들에게 보내는 '홍사홍사(홍법사랑 홍법사진)'를 통해 안부를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84년 前 금산사 담긴 희귀 영상 최초 공개

종걸 스님, 1936년 촬영 금산사 영상 공개

외국인 선교사 촬영 추정돼
미륵전 현판 원래는 1개만
보물 6각다층석탑 모습도

84년 전 촬영된 김제 금산사의 모습이 담긴 희귀 동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일제 강점기 불교관련 사진은 많이 발견됐지만 동영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존하는 사찰 영상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일제 강점기인 1936년 촬영된 이 영상은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에서 전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 선교사업 실적을 조사하기 위해 1936년과 1946년 2차례 방한해 촬영한 영상 중 1936년 봄 촬영한 영상에 금산사와 태인읍의 무극대도교가 포함되어 있다.

군산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이 공개한 이 영상은 총 120분 분량의 흑백무성영상으로 1936년에는 금산사와 무극대도교 본당, 서울의 창경원 벚꽃놀이, 전주 근교의 선교 상황이 담겨 있으나 이번에는 53초 분량의 금산사와 무극대도교 관련 영상만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당시 금산사 주지스님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대중스님 2명이 외국인 선교사에게 금산사 5층석탑과 방등계단에서 안내를 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또 미륵전 현판은 현재 3개가 있으나 당시에는 '미륵전' 1개만 있는 모습도 담겨있다.

보물 제27호 금산사 6각다층석탑은 본래 위치가 미륵전 우측으로 확인되며, 현재와 다른 모습은 탑 하단의 복련 위에 중대가 있어 탑 전체를 지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영상 중 금산사 부분 말미에는 '아름다운 나라(A Land of beauty)', 무극대교 영상에는 '이교도 숭배의 나라(A Land of Heathen Worshp)'라는 자막이 추가되어 있다.

영상을 최초로 공개한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은 "이 영상은 미국인 개인이 소장 중인 영상으로 지인이 동국사 영상이라고 보내왔는데 확인해보니 금산사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다" 며 "일제 강점기 불교관련 사진은 많이 남아 있다. 무성이지만 사찰 촬영 동영상이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금강산의 사찰 영상이 10초 정도 촬영된 영상은 본적이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각이나 탑의 모습을 촬영한 것은 최초"라면서 "일제 강점기 금산사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영상 자료로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대적광전 앞으로 옮기기 전인 보물 제27호 금산사 육각다층석탑의 모습.



금산사 대중 스님들이 외국인 선교사에게 금산사 방등계단을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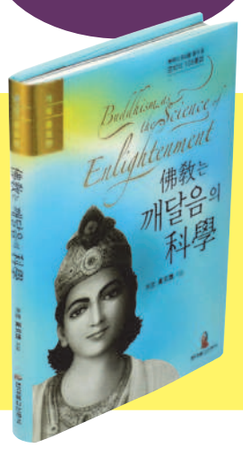
이와 함께 영상에는 금산사 미륵전과 대순진리회의 전신인 무극대도교 본당만 촬영된 점과 자막에 이교도의 나라라는 자막이 추가된 것으로 볼 때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촬영됐을 것으로 봤다. 종걸 스님은 "기독교는 최선의 종교이고 미륵사상은 이교도로 지칭하기 위해 촬영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영상에 함께 촬영된 무극대도교는 대순진리회의 전신으로 1927년 4월 김현범(金賢範)이 창시한 천도교 계통의 민족종교로 출발하여 조철제가 증산교 계통의 '무극대도교(무극교)'라 개명했는데, 일제의 유사종교 철폐 정책으로 교단이 해체되면서 김제시 태인읍 태흥리 99칸 본당도 철거됐고 부산 감전동(현재 감전동 벽화마을)으로 교단을 옮긴 후에는 '태극도'라 개명하였다. 대순진리회(초기에는 태극진리회)는 태극도를 신앙하던 박한경이 조철제 사망 후 1969년에 서울 중곡동에 연 교단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깨달음의 여정에서 건져올린 108가지 보석 같은 이야기"

개정증보판과
영문판 동시 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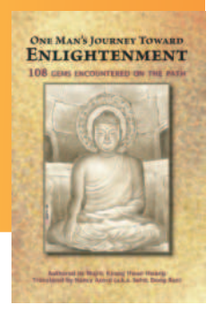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의 삶을 팔아
내일의 죽음을 사고,
잘 배운 지혜로운 제자는
오늘의 삶을 불태워 내일의
죽음을 불태워 버린다. (본문 중에서)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

무명의 족쇄를 풀어줄 창밖의 108요담

무진 황경환 지음 | 신국판 | 304쪽 | 값 15,000원



저자 황경환이 한 생애를 투자하여 빚어낸 '108개의 그물코'. 깨달음의 여정에서 그가 건져올린 108가지 이야기로 이루어진 이 책은, 허깨비 장난 같은 헛된 인생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구도자가 '법의 그물'에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어부 황경환의 평생에 걸친 노작이다. "깨달음의 여정에서 주워 올린 108개의 보석들"(One Man's Journey Toward Enlightenment: 108 Gems Encountered on the Path)이라는 영문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불교의 핵심 대의는 물론이고 불교의 역사에서부터 현대물리학과 불교의 만남에 이르기까지, 불교가 가리켜 보이는 진리의 스펙트럼을 다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저자 자신의 체험이 녹아들어 있는 "이야기의 보석들"이다.

아홉 살 때, 선박업을 하시던 부친은 인생의 큰 위기를 경험하신 이후 이런 말씀을 하신다. "환아, 너에게도 언젠가는 죽는 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만난 '죽음'이라는 화두는, 그의 인생 여정과 더불어 확대증폭을 거듭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재산이라고는 숟가락 몽둥이 하나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거지 신세가 되기도 했고, IMF 당시에는 갑작스러운 환율 인상으로 부채가 두 배로 늘게 되어 파산의 위기에 몰리기도 한다. 갑상선암이라는 병마와도 싸워야 했다.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는 이 모든 둑카((苦)가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촉매라는 사실을 점점 더 실감하면서, 인연법에 따라 불교와 조우하게 된다. 고타마 붓다가 45년간 인류에게 전해 주고자 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사성제(四聖諦)와 팔정도(八正道)이며, 이것이야말로 인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불교의 핵심 공식이다. 이 책은, 불교의 이 핵심 공식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 것인지, 그 해설이고 예화이고 예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불교신문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주 문
현대불교신문사 마하몰 : 1688-9099(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총판 운주사 02)3672-7181
비움과 소통 031)945-8739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회두피안 NEWS http://www.hdpannews.com

"性범계 아신 빤딧짜 '공개 참회' 하라"

보도 후 비판 여론 확산… "테라와다 수행자 상처"

한국 · 미얀마 양국 불자 '충격'
담마끼띠 스님, "승단추방죄"
"테라와다 불교 위축" 우려도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미얀마 출신 아신 빤딧짜 스님의 범계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교계 안팎으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당사자인 스님이 한국과 미얀마 불교 양측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공개사과를 비롯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동시에 이번 사태가 한국 내 외국인 스님에 대한 편견이나 테라와다 불교의 위축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신 빤딧짜 스님 사태와 관련한 本紙 보도(1305호 참조) 이후 불교계는 충격을 금치 못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스님이 2016년 첫 범계 이후에도 승려생활을 하며 법문과 수행지도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한국에서 테라와다 불교는 계율을 철저히 지킨다고 알려져, 한국 일각에서는 지계정신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이다.

마하위하라 사원 주지 담마끼띠 스님은 "테라와다 불교는 불자들에게도 율장을 읽도록 권한다. 스님이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불자들도 알아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라며 "율장의 여러 계율 중에서도 승려의 성행위는 가장 심각한 수준의 범계이자 '승단추방죄'다. 상황과 무관하게 고의로 행위를 한 즉시 승적이 박탈되고 다시 테라와다 불교로 출가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스님은 "개인의 범계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 범계를 숨기고 승려로 활동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분명한 사실은 이 같은 문제를 내부적으로 은폐하기보다 외부로 드러내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다만 이번 사태가 한국 내 테라와다 불교에 대한 인식이나 외국인 스님들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단법인 한국테라와다불교(대표 아짠 빤냐와로 진용 스님)의 김기식 재가위원회장도 "범계행위는 마땅히 고발돼야 하고 승가와 사회법으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첫 범계 이후에도 스님에게 삼배하고 공양을 올리고 예경한 수많은 수행자들은 물론, 한국 불교계에도 공개적으로 참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아신 빤딧짜 스님은 미얀마 승단 소속이기에 한국 테라와다 불교와 아무런 연관이 없지만, 테라와다 불교 수행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불자들 사이에서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에 정통한 관계자는 "사실 아신 빤딧짜 스님의 환속에 관한 소문은 미얀마공동체 사이에서 어느 정도 공유된 상황이었지만, 기사가 나온 뒤 이를 미얀마어로 간추린 내용과 함께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얀마인들 역시 충격이 대단히 크다"며 "다만 체면을 중시하고 부끄러운 일은 감추는 미얀마인들의 문화적 특성상 이에 대한 피드백은 크게 없는데 비해, 확산 속도는 대단히 빠르다. 미얀마인들의 반응이 없는 이유는 사태에 대한 생각이 한국과 다르거나 공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미얀마인들의 정서적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담마야나 선원 수행자와 한국 불교계 일각에서는 담마야나 선원이나 아신 빤딧짜 스님이 공개적인 참회를 통해 사태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특히 서울선원이 폐쇄되고 대구선원이 운영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지하지 않고 혼란을 야기한 담마야나 선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선원 일부 수행자들을 중심으로 미얀마 대사관에 공식입장을 요청하고 당사자의 공개참회 및 출국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수행을 우선하는 테라와다 불교계 특성상 이 같은 여론이 구체화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예측이 많다.

한편으로는 이번 사태가 한국 내 외국인 스님들에 대한 편견이나 테라와다 불교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철저한 지계정신에 대한 예경의 마음으로 테라와다 불교를 접한 불자들에게 적지 않은 상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테라와다 수행처 중 하나인 모 선원 관계자는 "사실 기사가 나오기 전부터 소문을 전해 들은 고참 수행자분들 중에서는, 테라와다 불교를 떠난 분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행에 전념해 온 분들이 상처받는 현 상황 자체가 씁쓸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수행자와 스님들이 경각심을 갖고 더욱 수행에 전념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개산 1050년 봉선사 첫 심볼 마크 탄생

8월 15일 공모시상식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를 상징하는 심볼 마크가 공모전을 통해 탄생해 화제다. 봉선사(주지 초격)는 8월 15일 경내 회의실에서 봉선사 심볼 마크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봉선사 심볼 마크가 생긴 것은 개산 1050년만에 처음이다.

봉선사 심볼마크 공모전은 지난 6월 30일까지 진행됐다. 20여 작품이 접수됐으며 심사는 상징성과 독창성, 참신성, 이용성 등을 고려한 가운데 교구 내 소임자 스님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진행됐다.

대상으로 선택된 작품은 과천에 사는 유슬기 씨의 '봉선사 큰법당과 광릉숲, 그리고 부처님'. 우수상에는 광명에 사는 유지영 씨의 '한글 품은 봉선사' 가, 장려상에는 서울 관악구에 사는 최정현 씨의 '봉선사 대종과 광릉숲' 이 선정됐다.

주지 초격 스님은 "이번에 결정한 심볼마크는 봉선사와 앞으로 영원히 함께 가야 할 것"이라며 "봉선사 창건 1050년 만에 봉선사를 상징하는 심볼이 탄생했다"고 감사를 전했다.

향후 수상작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개선한 후 종단 휘장과 함께 교종본찰 봉선사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다양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송지희 기자

세계유산 팔만대장경 '웹툰'으로 알린다

해인사 제1회 웹툰 공모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팔만대장경을 보유하고 있는 해인총림 해인사(주지 현응)가 첫 웹툰 공모전을 시행한다.

해인사는 "불교문화유산의 가치를 증진하고, 국민들에게 쉽게 알리기 위해 '제1회 팔만대장경 웹툰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중고교생 및 대학생 ·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공모전은 해인사와 팔만대장경, 사찰 역사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정하면 되며 1인(팀)이 2개 작품까지 출품할 수 있다. 분량은 자유이며, 웹 게재용 규격으로 가로 700px, JPG, PNG 형태 파일로 해상도 300dpi 이상의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8월 24일부터 9월 24일까지며, 결과는 10월 8일에 발표한다. 시상식은 해인사 개산 1218주년 다례재가 봉행되는 10월 16일 열린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문의 (055)934-3095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법화종, 차기 원장 서리 임명 또 논란

종정, 서리 직무정지처분 후
차기 서리에 지관 스님 임명
공식 발표 없어 논란 야기해
자격의혹 · 반발여론 확산돼
차기 총무원장 선거도 시급
중앙종회, 관련 임시회 소집

총무원장 법정 구속에 이어 총무원장 서리까지 직무정지가처분을 받으면서 유례없는 혼란에 빠진 법화종이 좀처럼 정상화 수순을 밟지 못한 채 여전히 각종 논란에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최근 종정 도정 스님이 새로운 서리를 임명했지만 이로 인한 혼란이 되레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법화종 중앙종회가 8월 21일부터 30일까지 대전 총무원 청사에서 제105차 임시회의를 열고 총무원장 선출에 관한 건 등을 논의키로 했지만, 사실상 정상적인 선거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법화종 종정 도정 스님은 8월 18일 최근 공석이 된 총무원장 서리직에 기획실장 지관 스님을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서리 임명이 종단 내 명확하게 공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수의 관계자는 "종정예하께서 18일 오후 4시경 지관 스님을 서리로 임명한 것은 사실이나, 집행부 임원 외에 이 같은 사실이 공표되지 않아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며 "특히 지관 스님의 경우 중앙종회 수석부회장 겸직이 유지 중이란 점에서 자격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

확인 결과 지관 스님은 중앙종회 수석부회장 사직서를 중앙종회에 제출하지 않았고, 중앙종회가 겸직금지 조항을 이유로 해임을 결정했지만 종법상 종회의원 해임시 당사자가 참석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는 분석이다.

지관 스님의 자격 자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종단 주요 관계자들 사이에서 스님의 비위를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확산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헌사 주지 임명 및 정혜사 탈종 · 매각 등 구속된 전 총무원장 도성 스님 체제에서 발생했던 의혹까지 다시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당시 정혜사 매각과정에서 법원 중재로 2억2000만원이 종단 회계에 입금돼야 하지만, 이 중 7000여만 원만 입금되면서 당시 주지였던 지관 스님에 대해 1억5000만원의 행방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지관 스님은 "8월 18일 서리로 임명된 이후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모두 유언비어로,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어 "종정 예하의 당부대로 총무원장 선거를 잘 준비해서 종단 정상화에 노력할 것"이라며 "중앙종회와도 대화하고 풀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스님의 해명에도 종단 일각에서는 정혜사, 교헌사와 관련한 법적 고발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어, 또 다른 혼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종정 스님의 결정에 대한 안타까운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서리 임명에 앞서 원로회의와 주요 관계자 연석회의 등을 통해 현 종단 상황과 후속조치, 차기 서리 임명시 철저한 자격검증 등에 대한 각계 의견이 제기됐음에도, 반대여론이 높던 지관 스님을 서리로 임명한 데 따른 것이다.

현 상황에 대해 또 다른 종단 관계자는 "전 총무원장 구속 당시 집행부 임원으로 책임이 있던 진우 스님이 서리로 임명되면서 논란이 일었고 직무정지라는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다시 진우 스님 서리 체제의 임원이었던 지관 스님이 서리로 임명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진정한 정상화는 현재 종단을 둘러싼 모든 의혹과 논란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관련자들이 책임을 진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중앙종회는 8월 12일 공문을 발송해 8월 21~30일 중앙종회 105차 임시회의를 소집했다. 주요 안건은 △총무원장 서리 해임 궐위에 따른 후속조치와 현안의 건 △신임 총무원장 선출에 관한 절차의 건 △기타안건 등이다. 오는 10월 前 총무원장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총무원장 선거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공문발송 이후 서리 임명을 비롯한 일부 종단 상황이 변화된 만큼, 어떤 방향으로 결과가 모일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나온다. 무엇보다 중앙종회가 총무원장 선출권한을 갖고 있지만 총무원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총무원장 선거 준비가 원활하게 진행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시회 차주 상보〉

송지희 기자

종사 · 명덕 법계 특별전형 실시

조계종 9월 2일부터 접수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무관)가 불기2564년도 '종사 · 명덕 법계 특별전형'을 시행한다.

대상은 승랍 30년 이상의 종덕(비구) · 현덕(비구니) 법계를 수지한 스님이다. 또한 종덕(현덕) 법계 수지 이후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및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시행령'에 의거해 결계신고에 누락이 없고, 종법령에 의한 권리제한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스님이어야 한다.

대상자는 9월2일부터 9월16일까지 지원서를 비롯해 수행이력서, 공적조서 등 구비서류를 재적 교구본사 종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성민 기자



공모대상
• 중 · 고등학생부 : 14세 이상 ~ 19세 미만 (2001년 이후 ~ 2006년도 이전 출생자)
• 대학생 · 성인부 : 19세 이상 (2000년도 이전 출생자)

공모주제
• 해인사와 팔만대장경 그리고 해인사의 역사 등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자유 주제

출품규격 및 주의사항
• 웹 게재용 규격 가로 700px, JPG, PNG 형태로 제출 (해상도 300dpi 이상, 18MB 이내)
• 분량 자유
• 공모전 출품은 1인(팀) 2작품까지 가능

공모일정
• 응모 기간 : 2020. 08. 24 ~ 2020. 09. 29
• 결과 발표 : 2020. 10. 08
• 시상 일정 : 2020. 10. 16 (해인사 경내에서 시상식 진행)

접수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 신청서 : 해인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www.haeinsa.or.kr)
※ 신청서 작성 후 공모전 출품작과 함께 홈페이지 업로드
※ 제출시 파일명 예시
: 출품자명(팀명) – 중 · 고등부 – 제출일(20200824)

심사기준
• 주제 적합성 25점
• 독창성/창의성 25점
• 전달성/활용성 20점
• 작품 완성도 30점

공모전 시상내역

공모대상	대 상	우수상	장려상
중 · 고등학생부	2,000,000원 (1명)	1,000,000원 (1명)	500,000원 (4명)
대학생 · 성인부	2,000,000원 (1명)	1,000,000원 (1명)	500,000원 (4명)

문의사항
• 접수처 : 해인사 팔만대장경연구원
TEL : 055-934-3094~5
FAX : 055-934-3096

법보종찰 해인사 불교신문

봉은사 '디지털 플랫폼' 구축한다

더존비즈온과 개발 · 업무협약
행정 · 미디어 등 통합 운영해
각종 데이터 중앙 관리 · 활용
클라우드로 비대면 업무 가능
"사찰선 첫 디지털 트랜스폼"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봉은사는 8월 18일 대표ICT기업인 더존비즈온과 '봉은사 앱 및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장영욱 봉은사 종무실장, 봉은사 홍보국장 효신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김용우 더존ICT그룹회장, 송호철 더존비즈온플랫폼사업부문 대표. 협약에 따라 더존비즈온 측은 실사와 함께 2년에 결쳐 플랫폼을 개발한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가 사찰 최초로 각종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서울 봉은사는 8월 18일 서울 더존을지타워에서 더존비즈온과 '봉은사 앱 및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기획국장 효신 스님, 장영욱 종무실장 등 봉은사 대중과 김용우 더존ICT그룹회장,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부문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더존비즈온은 봉은사 측과 TF팀을 구성, 실사 이후 2년 내 단계별로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조계종의 경우 1999년 종무행정 프로그램 가람지기를 개발한 이후 봉은사의 '실크로드' 행정프로그램을 개선, 2012년 가람지기2로 보급한 바 있다. 최근에는 사진과 영상 등 사찰 데이터 증가와 활용에 대한 다양한 수요로 기존 종무행정 프로그램을 넘어서는 디지털 플랫폼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었다.

장영욱 봉은사 종무실장은 "봉은사 신도들의 사찰 운영 참여로 축적되는 데이터가 증가해 매년 서버 증설도 일종의 화두가 되고 있었다. 새 플랫폼으로 데이터에 대한 보존, 관리가 용이해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데이터 활용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용우 더존ICT그룹회장은 "이번 플랫폼은 이른바 '사찰의 디지털 트랜스폼'으로 칭할 수 있다. 플랫폼 구축은 더존비즈온에서도 매우 의미있는 프로젝트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플랫폼이 구축되면 기존 봉은사 서버에 축적된 다양한 데이터들은 더존비즈온이 만든 중앙서버 저장되고 전문관리가 이뤄진다. 이를 활용한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도 보다 쉬워질 예정이다. 더존비즈온 측은 봉은사 전용 앱과 클라우드(Cloud, 데이터를 중앙컴퓨터에 저장하고 인터넷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 시스템을 통해 원격 행정과 비대면 업무도 지원한다. 기능 개발에 따라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문자발송과 카카오톡 등 SNS소식 전달, 신도소통 서비스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우 회장은 "사찰을 보면 IT가 사실상 없다시피 하여 안타까움이 있었다. 종무행정 뿐만 아니라 교육과 같은 전반적인 부분에서 디지털화해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새 플랫폼에는 스님과 일반 종무원들이 신경 쓰기 힘든 세무, 법률, 행정문제를 해결하는 기능도 탑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사업 실무를 진행할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는 "코로나로 인하여 일반기업들도 디지털 플랫폼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3차에 나누어 각 6개월씩 단계별, 분야별로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찰의 첫 디지털 플랫폼 도입을 통해 팬더믹 상황 극복과 혁신도 함께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아날로그에 머물던 불교가 디지털화되는 기회다. 봉은사 불사 중 가장 크고 의미있는 불사가 될 것"이라며 "향후 팀을 잘 구성하여 사찰 환경에 맞는 플랫폼이 완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눔의집 "민관조사 왜곡… 정정 요청"

법인 이사회 18일 입장문 발표
"운영 미비 통감"… 혁신 약속

최근 경기도가 나눔의집에 대한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나눔의집 법인 이사회가 운영 미비에 대한 참회와 함께 운영혁신 및 대대적인 쇄신을 약속하고 나섰다. 다만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의 민관합동조사결과의 왜곡된 부분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사실관계에 대해 해명했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은 8월 18일 이사진 일동으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운영미숙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대대적인 운영혁신을 단행해 사회 각계의 애정과 관심이 사장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나눔의집은 근래 지적된 운영 미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한 동시에, 지난 29년간 운영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변화와 이로 인해 불가피했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토로도 전했다.

나눔의집 이사진은 "지난 29년 동안 공심과 신념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모셔왔다.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조차 없었던 쉽지 않은 여건에서 오직 할머니들을 위하는 마음과 역사적 사명감이 나눔의집을 존재하게 한 원동력이었다"며 "세월이 흘러 사회복지법인으로 면모를 갖췄지만, 생소한 법인운영과정에서 회계 등 행정상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운영상 미숙한 점이 발생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관할 지자체인 광주시와 경기도가 그동안 정기적으로 나눔의 집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행정이나 운영상 미숙했던 점을 미리 지적하고 지도했다면 작금의 사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민관합동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일부 해명했다. 민관합동조사는 경기도가 특별지도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로 진행했으나, 기존 점검결과를 답습하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 밖에 추가 지적사항으로 드러난 할머니에 대한 정서적 학대와 기록물 방치, 후원금 사용 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야기된 바 있다.

나눔의집은 우선적으로 후원금 사용과 관련해 구조적인 고충을 드러냈다. 할머니 1인당 매년 8000만원이 지급되며 여성가족부 의료비 지원 등 명목으로 비급여 의료비 지원 카드까지 제공되는 상황에서, 후원금을 입소 할머니 6명을 위해 전폭적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나눔의집은 "이 같은 사실을 여성가족부와 지자체는 물론, 조사단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나눔의집은 "나눔의집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와 광주시 감사에서 지적된 회계 등 행정상 부적절한 사항의 대부분은 관련 법규에 대한 무지 등에서 초래된 것이고 횡령 등 심각한 범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기에 모두 적법한 상태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며 "법인 운영 과정에서 미숙함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참회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나눔의집은 "책임을 통감하고 운영혁신을 단행해 반드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지희 기자

혜암 대종사 삶 · 사상 조명 나선다

9월, 탄신 100주년 맞아 법회 · 학술대회 개최

"공부하다 죽어라"며 수행 정진을 강조했던 조계종 前 종정 혜암 대종사(1920~2001, 사진)의 생애와 사상, 수행관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법보종찰 해인사와 (사)혜암선사문화진흥회, 혜암대종사문도회는 혜암 대종사 탄신 100주년을 맞아 대종사의 삶과 사상을 선양하는 법회와 국제학술대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혜암 대종사를 선양하기 위한 첫 행사는 9월 5~6일 해인사 보경당에서 열리는 '탄신 10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다. '혜암 선사의 선사상과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주제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혜암 대종사의 사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불교의 세계화 방안을 살피는 학술논문들이 발표된다.

학술대회 첫째 날에는 행사준비위원장 여연 스님이 기조발제를 진행하며 김용표 동국대 불교대학 명예교수가 '종교문명 전환기의 불교의 세계화 담론과 한국불교의 과제'를, 박진영 미국 아메리칸대 종교학과 교수가 '혜암 선사의 선사상과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발표한다.

둘째 날에는 혜암 대종사의 선사상과 수행의 특징을 살펴보고 사상적 배경을 분석하는 논문들이 대거 발표된다.

9월 19일에는 혜암 대종사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법회가 해인사 대적광전 앞마당에서 봉행된다. 명종 5타로 시작되는 이날 법회에서는 조계종 의례위원장 인묵 스님이 의식을 집전하며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혜암 대종사를 기리는 법어를 내릴 예정이다. 또한 〈공부하다 죽어라 2〉 〈혜암선사의 삶과 사상〉 책을 부처님께 봉정하는 행사도 진행된다.

이와 함께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해인사 성보박물관에서는 혜암 스님의 유품을 전시하는 특별전이 열릴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재가불교 선도 '삼보회', 새 도약 준비"

유억근 삼보회 이사장, 법회서
'정혜결사 찾아서' 주제로 강의



"한국불교사에 한 획을 그은 보조국사 지눌의 권수정혜결사는 정법으로의 복귀와 수행불교의 재건, 민간불교와 대중불교의 건설 운동이었다. 그로부터 700여년이 지난 1964년, 비구 · 대처간 분규의 혼돈 속에서 탄생한 삼보학회 역시 대중불교와 정법구현을 위한 지성불교의 산실이었다."

유억근 삼보회 이사장<사진>이 8월 16일 서울 삼보정사에서 '재가자 중심의 불교수행과 권수정혜결사' 주제 강의를 통해 지눌 스님의 권수정혜결사의 의미를 토대로, 재가불교단체인 삼보회 출범의 역사와 가치를 되짚었다. 특히 이를 통해 창립 60년을 앞둔 삼보회의 재도약을 추진하고 그 면모를 일신함으로써, 과거 삼보회의 위상과 정체성을 계승 · 회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혀 눈길을 끈다.

유억근 이사장은 이날 강의를 통해 보조국사 지눌 스님의 권수정혜결사 이후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근대까지 이어진 한국불교의 암흑기를 순차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삼보학회는 당시 사업가이자 재가불자로 불교현대화를 이끌었던 덕산 이한상 거사의 원력으로 1964년 봉은사에서 출범했다"며 "이후 대중불교와 정법구현을 이끄는 지성불교의 산실로 성장했고 불법홍포의 거목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유 이사장은 과거 삼보회의 드높았던 뜻과 위상을 되살리기 위해, 출범 당시 초심과 원력을 현재에 다시 펼치기 위한 노력에 임할 것을 재차 다짐했다. 특히 "삼보가 '고목(古木)'이 아닌 '거목(巨木)'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과거의 명성에만 머물지 말고 새로운 기운으로 도약할 때"라고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Cheontae Order of Korean Buddhism Art Award

제 5 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접 수 2020.10.07(수) ~ 08(목)
전 시 2020.11.25(수) ~ 30(월)

주최 대한불교천태종
주관 제5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운영위원회
시행 대한불교천태종 천태문화사업단
후원 금강신문사, 불교천태중앙박물관

대한불교천태종은 다양한 예술분야의 저변확대를 통한
문화융성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5회 천태예술공모대전을 개최합니다.
불화(전통·현대), 조각, 공예, 민화 총 4개 분야에서
참신한 예술가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모 바랍니다.

부문 및 부문별 공모 개요

부 문	규 격	출품료	출품제한	자 격	유 의 사 항
불화 (전통·현대)	200호 미만 가로×세로 400cm 이하	1점당 50,000원	1인 3점	제한 없음	표구된 완성작만 접수
조 각	높이 250cm 미만 가로×세로 300cm 이하 무게 500kg 미만				조립한 완성품으로 제출
공 예	높이 200cm 미만 가로×세로 400cm 이하				
민 화	200호 미만 가로×세로 400cm 이하				액자 제작 후 접수
※ 전 분야 대학 재학생 출품료 30,000원 (학생증 사본 필수)					※ 작품제작과정 담은 세부 작품설명 필요 ※ 액자 유리 금지

시상 내역

시 상	수상인원	시상내역	비고
대 상	1명	상금 2,000만원 상장 상패	종단 귀속
최우수상	4명	상금 각 300만원 상장 상패	
우수상	4명	상금 각 100만원 상장 상패	
장려상	4명	상금 각 30만원 상장 상패	
특선	약간명	상장 및 상품	
입선	약간명	상장	
특별상		상장 및 기념패	

문의 천태예술공모대전 사무국 02-547-4746

제출서류
- 출품원서(소정양식) 1부
- 작품설명서(소정양식) 1부
- 대학생 학생증 사본
※ 작품 사진 미 부착, 작품 제목, 설명 및 규격 미기재, 주소 및 연락처 미기재 등 소정양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원서 제출자의 작품은 추후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원서 및 작품설명서를 충실하게 기재해주세요.

원서 배부 및 작품 접수
- 공모 요강 및 원서 : 금강신문 홈페이지 www.ggbn.co.kr에서 6월부터 확인 및 출력.
- 접수 기간 : 10월 7일(수)~8일(목)
- 접수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 접수 장소 : 관문사 2층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7길 111)

접수 계좌
- 작품 접수비는 계좌로만 수납 접수. 현금 수납 불가.
- 출품자와 출품료 입금자 명의 동일.
- 10월 8일까지 이체된 접수비에 한해 접수 완료.
- 계좌 번호 : 신한은행 100-030-083607 예금주 대한불교천태종

작품 반출
- 낙선작은 심사 발표 후 일주일 이내에 출품자 본인 및 대리인의 접수증 확인 후 회수. 일정 추후 공지.
- 입상작은 12월 1일 오전 10시 반부터 정오 사이 전시장에서 본인 및 대리인(접수증 확인)이 반출.

심사 발표 금강신문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 통보

시상식 및 전시
시상식 일정 추후 공지.
전시 - 11월 25~30일 서울 관훈동 동덕아트갤러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51-8 동덕빌딩 지하 1층

자세한 사항은 금강신문 홈페이지 www.ggbn.c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수해 아픔 훌훌 털고 일어나세요”

불교계 수해 복구 자비 손길 잇달아

조계종복지재단 1천만원 성금
해인사 수륙대재 모연금 쾌척
안양사 신도회 출범 앞고 지원
여성개발원 등 기부행렬 동참







수해복구를 위한 자비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구례군 성금 전달, 합천 해인사의 합천군 수해복구 성금 전달, 안양사의 철원군 수해복구 성금 전달 사진.

신성민 · 송지희 기자, 조동제 지사장

50여 일 간 이어졌던 장마와 폭우로 전국이 고통 받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가 수해 지역에 성금과 물품 기부에 나섰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보인)은 8월 14일 산하시설인 구례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도운)를 방문해 10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복지재단 상임이사 보인 스님과 센터 운영지원사찰인 화엄사의 총무국장 관문 스님, 사회국장 해덕 스님, 포교국장 우범 스님 등 스님들과 김순호 구례군수, 서동용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이재민들을 위한 빠른 복구와 안정을 기원했다.

상임이사 보인 스님은 “예측하지 못했던 재난으로 삶의 보금자리를 잃은 분들께 위로를 전한다”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망을 갖고 이 시기를 극복하기를 염원하며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정성과 마음을 모았다. 아픔을 딛고 힘차게 일어서는 힘이 되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기금 전달식에 다문화가족대표로 참석한 이윤우 구례군다문화가족협의회장은 “잠을 자다가 집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지 10분도 채 되기 전에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다. 수압 때문에 문도 열리지 않아 창문을 부수고 겨우 탈출했다”며 “집도 가게도 물에 잠겨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상황을 살피고 도와주는 분들이 계셔서 힘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구례군 김순호 군수는 “관내 어려움에 함께 해주셔서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린다”며 “하루빨리 모든 이들이 가정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제12교구본사 해인사(주지 현응)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합천 지역의 수해 복구를 위해 성금을 쾌척했다.

해인사는 8월 14일 합천군청을 방문해 전례 없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합천지역의 수해복구를 위하여 특별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수해복구 특별성금 전달식에는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을 대신해 총무국장 진각 스님과 문준희 합천군수, 문동구 문화예술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된 해인사의 수해복구 특별성금은 지난 6월 해인사에서 봉행됐던 ‘한국전쟁 70주년 해원과 상생을 위한 해인사 수륙대재’에서 모인 모연금에서 성금을 마련했다. 해인사는 각종 법회 및 불사 모연금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기금을 편성하고 있다.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인해 고통 받는 합천군민들이 하루 빨리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며 “폭우 뒤 찾아오는 폭염에 수해복구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지치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철원에 위치한 안양사(주지 범종)와 안양사 신도회는 8월 19일 철원군청을 방문해 지역 수재민을 위한 물품을 지원했다.

안양사 사부대중은 철원군청에 4kg 쌀 총188포(3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이는 주지 범종 스님 사비 100만원과 신도회 출범행사를 위해 조성됐던 비용을 합친 것으로, 안양사는 신도회 출범 행사를 무기한 연기하며 해당 비용을 수해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키로 결정했다.

주지 범종 스님은 “조속한 복구와 일상생활로 복귀를 희망하며 철원지역 피해주민의 복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함께 해준 신도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불교계 국제구호단체 자비나눔 실천도량 나누우리(이사장 도산)는 8월 19일 전북도청을 방문해 수해복구지원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전북도청 4층 도지사집무실에서 열린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태고종 나누우리 이사장 도산 스님,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동수 사회복지모금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도산 스님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집중호우로 인해 또다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했다” 며 “작은 금액이지만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 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에 이어 유례없는 긴 장마로 어려운 시기에 불교에서 나눔 정신을 실천해줘 감사하다”면서 “스님들의 자비의 손길이 수해로 피해를 본 모든 도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계 단체들의 기부도 이어졌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외숙)은 8월 18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원행)에 6일간 자체 모금한 기금 792만원을 전달했으며,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이 수탁 운영하는 하동 청소년수련원(원장 성행)은 8월 14일 하동과 구례서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해병대 장병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 수련원 방사 및 부대시설을 무료로 제공했다.

불교 자살예방 릴레이 법회 열린다

불교상담개발원 생명살림법회 4개 사찰서 진행

화두 · 걷기명상 등 구성
자살자 유가족 등 참여
자살고위험군도 보살펴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감 확대와 자살충동 등을 막기 위해 불교계와 정부가 생명살림법회를 진행한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선업)은 8월 30일 서울 조계사, 9월 13일 서울 봉은사, 10월 17일 수원 봉녕사, 11월 15일 부산 범어사에서 생명살림법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 일정은 코로나19 재확산 추이에 따라 연기될 수 있다.

불교상담개발원이 진행하는 생명살림법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 일환으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불살생 원리에 따른 생명존중사상을 가르치고, 이를 바탕으로 불교계 자살예방의 필요성 고취와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해 진행된다.

법회는 고통 받는 이들을 향한 자비심 발현과 살아있는 생명의 고귀함을 찬탄하는 사무량심 법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행복하게 더불어 사는 방법을 훈련하는 화두명상법회, 기도와 염불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의 괴롭고 힘든 마음을 위로하는 기도염불 법회, 걷기명상을 포함한 움직임을 통해 삶에 에너지를 불어 넣는 움직임 명상법회 등으로 진행된다.

상담개발원장 선업 스님은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시책에 맞춰 자살예방 사업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불교계서도 보다 전략적,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친 마음에 머무르게 하는 쉼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삶의 온전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교상담개발원은 명상을 활용한 자살예방프로그램 공모를 진행 중에 있다. 불교상담개발원은 6월 26일 2개의 프로그램을 선정해 우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9월부터 지난해 우수 프로그램 2편과 올해 선정된 2편의 프로그램 등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12월 결과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광복 75주년, 선열 기리는 3000 평안등 밝히다

부산 홍법사가 8월 15일 광복 75주년을 기념해 경내에 3000평안등을 밝혔다. 부산 홍법사는 매월 대사회적인 주제로 3000평안등을 잔디마당에 밝혀 새로운 신행문화를 이끌고 있다. 8월 3000평안등은 광복을 맞아 선열들의 의지를 되새기고, 코로나19 종식 및 세계안정, 수해피해 복구를 기원하는 의미로 밝혀졌다.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등을 밝히며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노력한 독립투사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해피해자들과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 ‘영산회상’으로 백중 회향

9월 5일 설법전서, 어장 동희 스님 시연

범어사가 백중회향법회를 영산회상(靈山會上)의 장으로 마무리한다. 부산 범어사(주지 경선)는 9월 5일 오전 9시 설법전에서 ‘백중지장기도 및 생전예수재 회향법회’를 개최한다.

법회는 상단불공으로 시작해 시식, 방장 지유스님의 법문이 이어진다. 대웅전 앞마당에 마련된 무대에서는 백중 회향을 맞아 초청한 인드라스님과 영산재 어장(魚丈) 동희 스님의 음성공양이 펼쳐진다.

음성공양은 백중을 맞아 법문을 듣고 기도에 임했던 모든 불자들과 영가를 위한 야단법석이자 효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시간이다. 동희 스님은 비구니 스님으로는 첫 영산재 이수자(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다. 스님은 영산재 예능보유자인 송암 스님으로부터 1959년 사사했으며 1995년 영산재의 작법을 고증하고 정리한 ‘영산대작법’을 무대에 올려 불교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동희 스님은 이날 회향법석에서 ‘회심곡’을 시연한다. 회심곡은 천도 의식인 영산재 대표 음악 가운데 하나이며 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화청(和請)’이다. 범어사는 “영가의 천도를 위해 기도하고 대중에게는 효의 중요성을 일러주는 깨침의 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범어사는 코로나 예방도 진행한다. 대중들은 기본적인 발열체크와 인적사항 작성 후 출입가능하며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화성 용주사, 호성전 화재로 전소

경기 화성에 위치한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내 호성전이 전소됐다.

용주사에 따르면 사도세자와 정조대왕, 경의황후(혜경궁 홍씨), 효의왕후 김씨(정조의 비)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호성전에 8월 20일 새벽 1시 경 불이 나 20여분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호성전(45.15㎡)이 전소됐고 안에 모셔진 위패가 소실됐다. 다행히 위패는 모조품으로 진품은 용주사 성보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돼 있었고, 현재는 전시를 위해 외부로 이관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017년 보물 제1942호로 지정된 대웅보전도 이날 화재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

용주사 관계자는 “경찰과 소방서에서 오늘 중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적으로는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간 내에 복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법장사 · 운가사 성보, 서울시 문화재로

소장 경전 · 불상 등 서울시 지정 고시 잇달아

서울 법장사(주지 퇴휴)와 운가사(주지 여해)가 소장 중인 경전과 불상 등 성보문화재가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서울시보를 통해 법장사 소장 〈육경합부〉1책 · 〈선문염송집〉전21권 7책과 운가사 소장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1책을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키로 고지했다. 또한 법장사 목조여래상을 서울시 문화재자료로 지정했다.

법장사 소장 〈육경합부〉는 개성 금사사에서 1449년(세종 31년) 목판으로 간행했다. 당시 주로 독송하던 6종의 경전인 〈금강반야바라밀경〉 〈보현행원품〉 〈대불정수릉엄신주〉 〈관세음보살예문〉 〈아미타경〉 〈관세음보살보문품〉을 합집 · 간행한 것으로 효령대군이 발원해 혜돈 스님이 주관해서 간행됐다. 특히 궁중 각수(刻手)인 김계신(金戒信)이 원나라 계통의 금강경변상도를 새긴 것은 주목된다.

법장사 소장 〈선문염송집〉은 전30권이 완전본이나 전21권 7책의 영본상태다. 고려시대 수선사(순천 송광사)에서 보조국사의 뒤를 이어 2세 국사인 혜심(慧諶, 1178~1234)이 역대 선사들의 어록을 모아 편찬한 공안집이다. 고려 고종 때 고려 재조대장경을 조성했던 분사도감에서 보유편으로 간행한 목판본이 저본이다. 조선시대 왕실의 지원을 받아 1566년부터 1568년에 걸쳐서 평안도 순안 법흥사 주지 불현(佛玄)의 주관으로 간행한 것이다. 사찰 중 법장사에 유일하게 소장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법장사 선문염송집.

운가사 소장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는 고려 중기 보조국사 지눌(知訥, 1158~1210)이 1209년 당나라 종밀의 저술인 〈법집별행록〉에서 핵심 내용을 선편하고 자신의 견해를 더하여 편찬한 것이다. 1537년 경상도 지리산 신흥사에서 판각하여 인쇄한 목판본 1책으로 운가사 소장본은 간행시기가 비교적 이른 시기이며 매우 드문 판본이다.

신성민 기자

고창 선운사, 석전기념관 상량

30억 예산 투입, 오는 12월 준공예정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가 대강백이자 한국불교에 큰 자취를 남긴 영호당 정호 대선사의 유지를 기리는 석전기념관(불교문화체험관) 상량식을 봉행했다.

8월 17일 선운사 도솔천 옆 건립공사 현장에서 열린 상량식에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과 한주 범여, 법현 스님, 총무국장 종고 스님, 재무국장 수찬 스님,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불자 30여 명이 동참했다.

선운사가 2019년 12월부터 건립공사가 진행중인 석전기념관의 공식명칭은 불교문화체험관으로 선운사 도솔천 변 녹차 밭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 등 총 30억 원의 예산으로 건립중인 석전기념관은 전시체험관(319.68㎡), 다목적관(160.38㎡), 화장실(33.48㎡) 등 1,647.68㎡ 규모로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선운사는 그동안 한국불교의 상징성을 지닌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역사 체험의 공간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석전기념관이 준공하게 되면 한국전통불교와 선 중심도량으로의 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내외국인들에게 전통불교가 살아 숨 쉬는 치유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운사 스님들이 석전기념관 상량식을 진행하고 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상량식에 동참해주신 스님들과 불자님들께 감사드린다” 며 “아무런 사고 없이 공사가 완료되고 석전기념관이 오래도록 빛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석전 스님 혹은 박한영 스님으로 널리 알려진 영호당 정호 스님은 근현대의 선지식으로 승속을 막론하고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배출했다.

선운사는 그동안 석전 스님에 대한 연구와 논문을 발표하고 사료를 수집하는 등 선양사업을 전개해 왔으나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간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나눔의 집

각고의 노력으로 쇄신 하겠습니다

나눔의 집 입장문

나눔의 집을 지지하고 후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참회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나눔의 집을 위해 호소문을 발표해 주신 각 종교계 지도자와 종단 대표와 종도, 시민사회에도 존경과 사의를 올립니다. 이러한 사회 각계의 애정과 관심이 사장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으로 거듭나겠습니다.

1. 나눔의 집은 운영 미숙의 책임을 통감하며 대대적 운영혁신을 단행하겠습니다.

나눔의 집은 지난 29년 동안 공심과 신념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모셔왔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조차 없었던 쉽지 않은 여건에서 오직 할머니들을 위하는 마음과 역사적 사명감이 나눔의 집을 존재하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이후 세월이 흘러 사회복지법인으로 면모를 갖췄지만, 생소한 법인운영과정에서 회계 등 행정상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운영상 미숙한 점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대목은, 관할 지자체인 광주시와 경기도가 그동안 정기적으로 나눔의 집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행정이나 운영상 미숙했던 점을 미리 지적하여 지도해 주었다면 그때그때 시정함으로써 작금의 사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2. 세 차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대부분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나눔의 집 일부 직원들은 운영미숙에 의한 법령 위반을 빌미로 과도한 직급과 호봉 승급, 직원복지, 인사권과 운영권까지 요구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비위사실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제안서를 보내왔습니다. 상임이사 성우 스님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였고, 2020년 3월 16일 자발적으로 광주시에 요청해 1차 감사를 받았습니다. 광주시 감사에 따른 지적사항은 물론, 이후 진행된 경기도의 2차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대부분을 성실히 시정하고 이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나눔의 집은 그동안 운영미숙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던 안신권 시설장과 김정숙 사무국장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미 사직처리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설과 법인의 회계 등을 분리하고, 후원금 운영에서 발생한 미비점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운영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광주시와 경기도의 2회에 걸친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개선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던 중, 경기도는 갑작스레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을 구성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관련하여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장장 17일 간 3차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를 2020년 8월 11일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나눔의 집은 조사단 구성에 사회복지를 잘 아는 중립적인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경기도에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했고, 실제 구성된 조사단 일부가 나눔의 집 할머니의 의사와는 무관한 일부의 의견만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 아닌지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 조사단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이자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알리는 역사교육장으로서의 나눔의 집의 특수성을 제대로 평가해 줄 수 있는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나아가 작금의 정세로 인해 어느 한편의 시각에 치우쳐 조사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 우려 섞인 시선을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나눔의 집은 조사 결과와 관련해 귀담아 들을 부분은 겸허히 경청할 것이고, 특히 그동안 잘 살피지 못했던 운영상 미숙한 점은 철저히 보완하고 혁신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다만 왜곡되거나 사실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해명에 나서고자 합니다.

3. 조사단 발표 조사결과에는 왜곡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한 진실을 밝힙니다.

가. 나눔의 집 후원금 사용의 구조적 문제

할머니 1인당 연간 8,000만원 지원에, 비급여 의료비 지원카드까지 제공됐습니다.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금이 쓰이지 않았다는 조사단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재정 운용상 구조적 한계에 비추어 보면, 실제 사실관계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2010년 이후 지금까지 국가와 지자체는 할머니들을 보살피기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나눔의 집 시설에 지원된 국·도·시비는 약 310,000,000원에 이르고, 여성가족부가 시설의 간병인 4명에 대해 직접 통장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약 72,000,000원입니다. 법인을 통한 시설전입 후원금은 약 64,000,000원, 시설로 입금되는 직접 후원금은 약 50,000,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전부 합산하면 약 496,000,000원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시설에 입소해 계신 할머니는 여섯분입니다. 이 중 한분은 병원에 입원하셨고, 두분은 와상환자이시고, 세분은 활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9년 시설운영비 약 496,000,000원 중 할머니 1인당 연간 간병비 및 지원비 등을 환산하면 약 82,000,000원에 이릅니다.

게다가 여성가족부에서는 매년 할머니 1인당 비급여 의료비 지원카드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급병상 이용비, 수액과 약품을 비롯한 음료 구입비까지도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입소 할머니의 진료비와 치료비는 어느 병원이든 무료이며, 명예활동을 위한 교통비와 활동보조기구, 장례비까지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와 경기도에서는 할머니 1분당 생계급여비로 매월 약 2,174,000원을 할머니 계좌로 직접 입금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에게 소정의 후원금을 별도로 지원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더욱이 생활용품과 식료품을 비롯한 물품 후원도 상당량에 속하며, 후원금에서 별도로 할머니 흉상 및 책자 제작비, 역사관 운영비 등이 지출됩니다.

법인에 대한 후원금이 입소자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되기 위해서는 법인 후원금 계좌에서 시설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나, 이처럼 국가와 지자체가 할머니들을 돌보기 위해 이미 경제적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있고, 또한 법인계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시설계좌로 입금되는 후원금이 있는 상황에서, 법인계좌에서 시설계좌로 전입되어 사용될 경제적 수요가 그리 크지 않은 상태가 그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시설에 지원되는 법인의 후원금 지출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법인은 시설에서 지출품의서를 올리면 곧바로 법인 후원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설 사무국장이 법인회계를 겸직해서 전담하게 하였고, 시설에 지원한 후원금만큼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한꺼번에 처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에는 할머니들의 가슴아픈 생애와 역사가 담긴 유품을 전시를 위한 제2역사관 건립에 약 400,000,000원, 2019년에는 입소자 할머니들이 편안한 생활이 보장되도록 생활관 증축과 보수에 약 700,000,000원의 후원금이 각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의 사실을 여성가족부와 지자체는 물론 조사단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컨대 조사단은 법인을 통한 5년간의 시설 전출 후원금 총액만 발표하였을 뿐, 시설로 직접 입금되는 후원금과 할머니에 대한 지정후원금, 국가·경기도·광주시의 시설지원금,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한 간병비와 비급여 의료지원 카드비, 병원 무료 진료비와 치료비, 여성가족부와 경기도에서 1인당 입소 할머니 통장에 지급하는 생계비, 입소자 할머니의 주거를 위한 생활관과 홍보활동을 위한 제2역사관 건축비, 역사관 운영에 사용되는 후원금 등의 규모와 지출 상황에 대한 설명은 누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조사단은 나눔의 집이 요양원이나 인권센터 건축비를 사용할 의도로 후원금을 비축해두었을 뿐, 달리 입소자 할머니 생활이나 복지, 증언활동 등을 위해서는 후원금을 적게 사용했다는 취지로 단정하듯이 발표하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나. 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입소자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조사단의 '입소자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와 관련한 판단에 대해서는, 과연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러한 결론에 이른 것인지, 나아가 그러한 일을 '정서적 학대'라 결론짓는 것이 적절하였는지 의심이 든다는 이견이 있습니다. 특히 민관합동조사단의 그러한 단정적 발표로 인해 나눔의 집은 대외적 신뢰도가 크게 추락하여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헌신적으로 입소자 할머니들의 대소변을 정리하는 등 수발을 들고, 오랜 세월 입소자 할머니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눈물을 닦아준 힘없고 순박한 간병인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1)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학대가 있었다는 단정적 발표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조사단이 주장하는 '정서적 학대'가 어떠한 의미인지 먼저 그 개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어떠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고 판단했는지 구체적 사실관계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상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이라고 하고, '학대'의 사전적 의미 또한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의 정의나 학대의 사전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과연 나눔의 집에서 입소자 할머니에 대한 학대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나아가 그러한 정황이 '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듭니다.

그럼에도 조사단은 간병인이 "할머니 갖다 버린다" "혼나봐야 한다" 등 할머니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자인 간병인들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할머니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따님 등 할머니들의 가족들도 학대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그 음성이 간병인의 것이 아니라고 판명되는 경우 오히려 음지에서 묵묵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수행해온 간병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재고되어야 합니다.

2) 조사단이 지적한 인터뷰는 할머니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나눔의 집 일부 직원은 할머니에게, 사직한 전 시설장과 전 사무국장이 법인 돈을 빼돌리는 등 비리를 저지르고 그 돈으로 별장도 짓고, 또 도망가서 연락이 안된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에 할머니는 이를 사실로 믿었고, 이에 따라 전 시설장과 전 사무국장에 대해 극도의 분노를 느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행위를 질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 직원이 전한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특히 돈을 빼돌리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거나 도망갔다는 말과 달리, 전 시설장과 전 사무국장이 민관합동조사 진행 시 조사단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시설을 방문하였고, 당시 이러한 모습을 본 할머니는 일부 직원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험담한 내 혀를 자르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시 근무하던 나눔의 집 직원을 통해 시설장에게 연락하여 외부 인터뷰 진행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날은 주말이라 지방에 내려가 있던 시설장이 급히 올라와 당일 17:00경 할머니의 인터뷰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투쟁의 역사를 담은 기록물이 방치되었다는 조사단의 발표는 왜곡된 측면이 있습니다

나눔의 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약 240명 중 40여 명이 거주하셨고, 현재 5명의 할머니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할머니 유품 약 3,000점이 국가 지정기념물로 등록되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소속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고유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역사관 직원들은 그 책임을 방기한 채 되레 기록물 관리 책임을 모두 운영진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폭우 시 유품을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안전하게 수장고나 안전한 장소로 이전 또는 관리하지 않는 등 자신들이 맡은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추천한 감사가 작성한 2020년 4월 1일 감사보고서에 자세히 지적("해외출장시 가져간 도록을 무차별하게 보관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하게 수행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공원(제2역사관)이 역사관 직원들에 의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다 못한 할머니 유족들이 나눔의 집에 찾아와 성토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참담한 심정입니다.

라.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과정에서 불법녹음 사례 등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CCTV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간병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직원들이 CCTV를 본 후 몰려다니면서 간병인들을 야단치고, 겁박하고, 할머니들까지 학대하였다는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참다못한 나머지 간병인들은 물론 할머니의 가족까지 나서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간병인은 방어 차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켜고 가지고 다니면서 제3자가 자신에게 하는 말을 녹음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조사단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해당 녹음파일은 곧바로 삭제하였다고 합니다.

마. 조사단은 신임 시설장이 사직된 전 시설장, 전 사무국장과 할머니의 만남을 주선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할머니의 요청으로 신임 시설장과 간병인과 함께 할머니는 나들이 겸 외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침 전 시설장과 전 사무국장이 조사단의 조사를 받던 중 나눔의 집 인근 카페에서 쉬고 있다가 그곳에서 우연히 할머니 일행과 만나게 되었을 뿐, 달리 사전에 만나기로 약속한 사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나눔의 집 직원들은 물론, 나눔의 집을 찾는 사람들은 이 카페를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 토지 매입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토지매입은 협소한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국민적 이슈가 고조되면서 3·1절 행사, 5월 효잔치, 8·15 기립행사, 12월 후원자의 날 행사에 차량과 인파가 물밀듯이 몰려들어 교통 혼잡과 노상주차, 그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평일과 주말에도 방문객과 학생들의 이용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실 나눔의 집의 주차공간 확보나 시설확충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도움이 절실하였으나, 더 이상 국가 등에 부담을 줄 수가 없어 후원금 집행을 통해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인접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2) 임야 매입은 입소자 할머니의 유지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입소자 할머니 중 임종하기 전 수차례 유언으로 나눔의 집에 묻어달라는 말씀을 남긴 분들이 있었습니다. 국가적 아픔과 함께 하시다 외롭게 임종을 맞이한 입소자 할머니들의 유지를 지키고, 아울러 민원이 제기된 납골과 추모비를 이전하여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이를 후세의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임야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국가와 지자체의 도움이 절실하였으나, 이러한 부담까지 요청할 수 없어 우선 후원금으로 매입했던 것입니다.

사. 이와 같이 조사단의 발표 중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정정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4.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의 역할과 개선 의지를 밝힙니다.

29년간 이어져 온 나눔의 집에 대한 불교계의 헌신까지 폄훼하지는 말아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눔의 집은 1992년 외교적인 문제로 국가와 지자체도 꺼려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호시설로 개설되어 그동안 국가와 국민 전체를 대신하여 순수 민간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운동을 선도해왔습니다. 나눔의 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신고자 약 240명 중 40명이 생활했던 거주시설인 만큼 피해 할머니들의 생애와 역사, 유품이 가장 많이 보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일한 역사의 산 교육장입니다.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나눔의 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후세에 길이 남을 인권침탈의 역사교육장이라고 극찬하기도 하였습니다.

국가와 국민 전체가 나서서 해야 할 사업을 민간에서 나서 솔선하여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29년 동안 초지일관 묵묵히 지키고 알려왔습니다. 대표이사 월주 스님은 지난 29년 동안 무보수로 헌신하였고, 현재 상임이사인 성우 스님 역시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집을 관할하는 경기도와 광주시의 감사를 통해 지적된 회계 등 행정상 부적절한 사항의 대부분은 관련 법규에 대한 무지 등에서 초래된 것입니다. 법령과 지침을 어긴 것이나 절차상 부적절한 사항들이었기에 모두 적법한 상태로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횡령 등 심각한 범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법인 운영 과정의 미숙했던 점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참회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눔의 집은 책임을 통감하고 설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안위와 명예가 최대한 보장되고, 세계적인 역사교육장이 되도록 거듭 운영의 혁신을 단행하여 반드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그동안 나눔의 집을 염려하고 사랑했던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2020년 8월 18일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 일동

현불 논단

배우고 가르치기 어렵다



주경 스님
수덕사 부주지

출가 초기, 후배 강의 기회 얻어
1시간 강의 위해 며칠 간 준비해

10년 지나서 행자 기본교육 담당
가르치는 일은 쉽지 않음을 절감
매일 매일이 이해와 인내의 과정

후학이 바로 알고 고쳐주면 '감동'
작은 '배움과 가르침'도 쉽지 않아
갑갑했을 어른 스님께 참회드린다

글의 제목을 정하며 문득 원효 스님과 사복의 일화가 떠올랐다. 사복의 어머니 장례를 지내며 원효 스님은 "태어나지 말라. 죽는 것이 괴롭다. 죽지 말라. 태어나는 것이 괴롭다"라고 법문을 하니 사복이 법문이 번잡하니 간결하게 해달라고 말한다. 이에 원효 스님은 "나고 죽지 말라. 괴롭다"라고 법문을 고쳤다고 한다. 그래서 본래 '제대로 배우기 쉽지 않고, 잘 가르치기 또한 어렵다' 라고 생각한 제목을 고쳐 쓰게 되었다.

나는 수계 받은 다음해부터 본사의 후배 스님들에게 강의를 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고교와 대학시절 불교학생회와 청년회 활동을 열심히 했던 인연으로 당시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교무 스님으로부터 새로 수계를 받는 스님들에게 청년포교에 대한 강의시간을 배정받았던 것이다. 1시간 남짓한 강의를 위해서 며칠을 고민하고 준비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새롭다.

이후 출가의 시간이 10여년이 지나고 본사 교무소임을 맡아서 4년 가까운 시간동안 200명에 이르는 행자들의 기본교육을 담당했다. 초발심자경문과 염불의식을 중심으로 6개월 정도의 행자기간동안 평생 살아갈 수행생활의 기초를 잡고 기본을 다지는 교육이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몇 번씩 배울 때의 기억을 되새겨 보고, 교재와 자료를 뒤적이며 거듭해서 읽고 생각하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른다.

꿈속에서 조차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었다. 누구를 가르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뼛속깊이 절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나무아미타불' 한 곡조 염불을 제대로 하려면 일주일은 일체의 생각을 접어두고 오롯하게 그 곡조에 전념해야 그 제대로 된 곡조를 익힐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처음, 열에 한 두 명도 따라하지 못하는 상황에 얼마나 속이 상하고 좌절했는지 모른다. 또 하루 서 너 줄 정도 읽고 해석하고 암기하는 한문본 초발심자경문 공부도 생각대로 성취가 따르지 못했다. 매일매일 기다리고 이해하며 인내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기초이고 기본인 까닭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공부들이라 감당하고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었다. 옛 어른들 말씀에 '상좌 하나가 지옥 하나' 라는 말씀이 있는데, 제자 한 명을 제대로 가르치는 일이 바로 '지옥' 과 다름없는 고생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는 뜻이라고 생각된다.

그 때 같이 공부하며 출가자의 기본을 다지던 스님들이 이제는 20년도 더 지난 중견 승려들이 되었다. 다들 원만하고 반듯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이제는 그 스님들이 산중의 후배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이 그런 것일까! 먼저 지나온 사람이 보기에 뒤에 오는 사람은 늘 무언가 허술한 구석이 보이곤 한다. 그렇다고 직접 나서서 가르치기엔 때가 아니다. 그냥 외면하자니 또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몸으로 행동으로 열심히 보여주려고 애써본다. 흔히 하는 말처럼 '티 나지 않는' 경계에서 말없는 가르침을 전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때론 효과가 있다. 고맙고 감사하다. 보아주고 알아주어서 그리고 바로 이해하고 고쳐 주어서.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날 것 같을 때도 있다. 그렇게 몸으로 행동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도 안 되면 방법이 없다. 결국 말을 해서 가르친다. 너무나 쉽고 간단한 작은 '배움과 가르침' 이 정말 쉽지 않다.

둔한 제자들을 가르치며 속이 타고 갑갑했을 어른 스님들께 진심으로 참회를 드린다. 속 썩여서 죄송합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社 說

코로나19 방역에 최선 다해야

일부 개신교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심상치 않다. 연일 2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일부 확진 개신교인들은 병원에서 탈출하는 등 기행도 일삼고 있다.

정부와 방역기관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18일 담화를 통해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개 업종 고위험시설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는 다시 선제적 방역에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은 8월 18일 전국 사찰에 긴급 방역 지침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8월 30일까지 서울 · 경기도 · 부산 지역 사찰들은 강화된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법회 봉행 시 동참 인원을 실내 50인 이내, 실외 100인 이내로 제한하며 합창단 소모임 등 대면 모임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일선 사찰들도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조계사는 초하루법회를 취소했으며, 백중의식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대웅전에는 50명 이내 기도동참을 위한 고정형 좌복도 설치했다.

서울 불광사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건물 내 동시간 인원을 50명 이내로 유지하고 예불 외 행사와 모임을 제한하는 등 긴급운영체제에 돌입했다.

불교계의 방역은 코로나19가 확산됐던 올해 초부터 화제였다. 종교 중 유일하게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아차' 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게 전염병의 특징이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사찰과 불자 개인의 방역에 힘써야 한다.

아신 빤딧짜 스님, 결자해지 필요

〈結者解之〉

미얀마 출신 아신 빤딧짜 스님의 성범계 사태가 불교계에 남긴 상처가 크다. 本紙 보도 이후 한국과 미얀마 양국 불자들 사이에서 사태에 대한 파장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테라와다 불교 수행자들의 충격이 적지 않다. 한국에서 테라와다 불교에 귀의한 불자들의 상당수가 스님들의 철저한 지계의식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얀마 불자들의 충격도 크다. 불교문화권에서 살아온 미얀마인들에게 있어 스님의 성범계는 물론,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그야말로 유례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신 빤딧짜 스님 사태는 분명 개인의 범계다. 그럼에도 충격이 적지 않은 것은 첫 범계 이후에도 비구로서 삶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범계행위를 해왔기 때문이다. 미얀마 승단을 넘어 테라와다 불교계에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비구의 성행위는 즉각 승단에서 추방돼 다시 테라와다 불교 승려로 출가할 수 없는 중대한 범계다. 아신 빤딧짜 스님이 한국과 미얀마 양국 불교계에 공개참회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는 이유다. 이를 알고서도 묵인한 담마야나 선원 일부 관계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무엇보다 한국불교계에 널리 번져버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책임자의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 당사자의 명확하고 공개적인 참회를 통해 사태가 마무리돼야만, 재발을 막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미얀마 대사관을 통해 공식입장을 요구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태가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스님에 대한 편견의 시선이나 테라와다 불교의 위축으로 이어져선 안된다는 우려도 높다.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만큼 깨어있는 불자들의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김형중의
붓다설법학

이타적 대비심으로 설법을

〈전생담(자타카)〉에는 석가모니부처님께서 과거 전생에 보살행을 실천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시비왕이 비둘기의 무게만큼 자신의 허벅지살을 떼어 준 이야기' 는 감동적이다.

시비왕(尸毘王)은 왕위에 오르자 백성을 위하여 보시를 하였다. 재물의 보시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떼어주기로 결심하였다. 불법의 수호신인 제석천이 시비왕의 자비심을 시험하기 위하여 사나운 매로 변하여 비둘기를 쫓아 시비왕의 왕궁에 들어갔다.

매가 왕궁에 숨은 비둘기를 내놓으라고 시비왕에게 요구하자 왕은 거절한다. 매는 비둘기의 고기와 피를 먹지 않으면 자기의 새끼들이 굶어 죽으니 숨은 비둘기를 내놓든지, 왕의 생살을 비둘기 무게만큼 저울에 달아서 내놓으라고 생떼를 썼다. 시비왕은 저울 한 쪽에 비둘기를 달고, 다른 한 쪽에 자신의 살점을 달아 같은 무게만큼 매에게 주었다.

시비왕은 한 마리의 비둘기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살점을 도려내 매에게 보시 공양을 하였다. 새끼를 낳고 굶주린 호랑이에게 몸을 던져 먹이가 되어 주었던 석가모니가 전생에 행했던 사신(捨身)공양의 예화와 같은 이야기이다.

대승경전에서는 보살사상과 육바라밀(보시 · 지계 · 인욕 · 정진 · 선정 · 지혜)이 설법의 주제였다. 대승경전인 〈반야경〉에서는 반야바라밀을 강조하는데 비하여, 초기불교경전에서는 보시와 인욕사상이 강조되어 설해져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 자체가 보시의 일생이었기 때문이다.

자비심은 보시를 통해서 중생구제의 자애로운 마음이 세상에 드러난다. 초기불교에서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지혜를 깨달아 아라한이 되는 것이 제일 목표였기 때문에 구도자의 수행덕목에 보시가 빠져 있고, 대승불교에서는 고통 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이 이상적인 수행상이기 때문에 보시바라밀을 으뜸으로 육바라밀이 강조되었다.

보시 가운데에서 이웃에게 경전의 한 구절, 사구게를 설해주는 법보시인 설법이 가장 큰 공덕이 있다. 육바라밀은 피안에 건너가는 용선(龍船)이고, 불성이 현상세계로 드러나 정토를 구현하는 연장이다.

법사는 자리적인 소승법 보다는 이타적인 대승법으로 설법해야 한다. 이기적인 소승법은 세상을 구제할 수가 없다. 자신의 이익과 수행만을 추구하는 것은 종교인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 종교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해서 고통 받는 사람을 구제하여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목표이다.

석가모니는 45년 동안 중생을 위하여 끝없는 설법으로 교화했고, 육바라밀을 몸소 실천하였다. 법사는 설법보살로서 현실생활 속에서 육바라밀을 설법해야 한다.

만해 한용운은 〈조선불교유신론〉에서 법사의 마음자세를 대승 보살심을 바탕으로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는 중생을 교화하겠다는 열정이고, 둘째는 중생을 사랑하는 자애심이고, 셋째는 어떤 어려움도 끝까지 참는 인욕심이다."

법사는 즐거운 마음으로 중생에 대한 대비심으로 설법한다. 부처님은 모든 보살을 위하여 대승경전을 설법하셨다.

〈前 동대부여고 교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대한불교 조동종
불원사 관음전불사 및 불상구입자금 후원 안내



만월 (2mm 크리스탈 13만개로 조성된 석가모니불)
- 주지 행만스님 작 -

귀의삼보하옵고!
해외, 국내를 돌아다니면서 30년 동안 모셔온 불상이 4,000여점이 되었습니다.
소승이 모셔온 불상은 간다라 불상 및 마투라불상은 기원전으로부터 송나라, 명나라에서 청대시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기원을 잘 볼 수 있도록 관음전 삼보전시관을 불사하기로 석가세존전에 언약하였습니다.
이중 티벳 불상이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네팔, 일본, 태국 등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원사 관음전 삼보 전시관은 국내 유일한 티벳 불상 전시관이 될 예정이며 아직 성취관에 전시되지 못한 희소성이 많은 티벳 불상 600여점이 빛을 못보고 쌓여 있습니다. 앞으로 희소성을 간직한 티벳의 불상을 관음전 삼보 전시관을 불사하여 불상의 기원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불, 보살님과 살아온 60여년의 세월, 38세에 불원사를 창건하다가 쓰레기더미에 있는 온도계 수은에 찔려 왼팔을 잃고 하루 한끼의 공양만으로 1000일 수행정진하다 뇌졸중을 쓰러지고 지금은 경동맥 협착증으로 훼손된 불상복원과 오색 크리스탈 개금, 창작개금 으로 한팔 잃은 스님으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이젠 불, 보살님 크리스탈 개금으로 사군자, 십장생, 일월도를 새겨 놓고 있습니다.

소승의 목표는 동남아 불상을 관음전 삼보 전시관에 전시하는데 있으며 임종 그 날까지 단 한분의 불상을 수집하는데 일념을 다하고 임종 시 무일푼으로 세상과 하직 하겠습니다.
관음전 삼보전시관은 초지일관 수행을 통하여 동남아 각국 불, 보살님을 찾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소승이 불사를 하지 않으면 불원사에 계신 불, 보살님이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기에 관음전 삼보전시관 후원을 불자님께 호소 드립니다.
그리고 기원전, 진나라, 송나라, 명나라, 청국시대의 희귀불상 수집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무리로서 전국 불자님들의 동참과 호소합니다.
관음전 삼보전시관에 불, 보살님을 정좌케 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관음전 불사 후원 및 고 불상 불, 보살님을 모실 수 있는 후원금을 접수하고 있사오니 소승은 마음을 빌어 청 하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서 윗사람을 공경하고 동기간에 우애하며 부부간에 화합하고 자손에게 사랑받고 육신은 병마, 액운 없이 건강장수를 기원드립니다.
불, 보살님의 가피로서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대한불교 조동종 불원사 **宣惠 행만** 합장

포항 불원사 성취관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bulwonsa) 성불하십시오.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기북로354번길 7-7

◈ 본 사찰은 약사여래불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원력을 행하시고 계시는 원력도량입니다. ◈

※ 후원 접수처 : (054)249 -1023 휴대폰 : 010-4504-0174 ※ 새마을금고 : 9003-2169-3217-0 예금주 신재훈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19~8/2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원빈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	원빈스님	이층버스
2	칸니 명상 : 아나빤나사띠와 위빳사나수행의 입문서이자 안내서	수망갈라/차은숙	운주사
3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무명의 족쇄를 풀어줄 정법의 108요담)	무진 황경환	현대불교신문
4	정선 맛지마니까야	이중표	불광출판사
5	요가디피카(아행가요가서)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행가/현천스님	선요가
6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7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8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
9	정혜결사문 : 선정과 지혜로 세상을 밝혀야	보조지눌/원순스님	법공양
10	방거사 어록 시 역주(선어록총서3)	강승욱	운주사

책세상

“야반삼경에 대문 빗장 만져 보거라”



삼소굴 법향

경봉문도회 엮음 / 통도사 극락암 발행

백산출판사 펴냄 / 비매품



문중과 직계 제자 · 손상좌 등
출 · 재가자 50명 인연담 소개
사진 · 연보 등 수록한 법공양
“경봉 알리는 자료로 활용되길”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큰스님 가시고 난 뒤에 스님이 너무나 뵙고 싶으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흐르고 스승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야반삼경에 대문 빗장을 만져 보거라” 1982년 7월 17일, 한국불교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선지식 경봉(1892~1982 · 사진) 선사는 그렇게 세연을 접었다. 경봉 문도회는 경봉 스님 열반 38주기를 맞아 스님의 생애를 인연담으로 엮은 〈삼소굴 법향〉을 출간했다.

〈삼소굴 법향〉은 경봉 스님과 인연이 깊었던 제방 스님, 통도사 문중 스님, 직계 제자 스님, 직계 손상좌 및 재가불자와의 인연담을 소개한다.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을 비롯해 함월사 조실 우룡 스님, 원로의원 인환 스님, 중요무형문화재 118호 불화장 석정 스님 등 이 시대를 대표하는 스님들과 김선근 한국불교학회 회장, 정병조 금강대 총장, 강수길 숙우회 대표 등 재가불자를 포함한 50여명과의 인연담을 통해 경봉 스님의 생애를 다시 한 번 조명한다.

‘삼소굴 법향’ , 책의 제목 그대로 선지식이 머물던 통도사 극락암 삼소굴은 늘 법향으로 가득했다. 주인이 그랬고 선사를 찾은 객들도 그랬다. 주인의 깊은 모습과 맑은 언어 앞에서 대중은 깊은 법향에 물들었다. 책 〈삼소굴 법향〉은 한때 삼소굴의 주인으로 살았던 경봉이라는 선지식이 법향으로 물들인 인연들의 이야기를 모았다.

자비한 어머니와 같았던 큰스님, 혼란기의 위대한 뱃사공과 같은 큰스님, 선교를 겸비한 희유한 도인, 현대적인 언어로 불교를 설명한 선각자…. 생전에 스님과 인연을 맺었던 대중은 저마다 한마디씩 노장의 생애를 정리한다. 경봉 스님의 생생한 일상과 선지식의 법문으로 삶이 달라진 이야기 등 경봉 스님을 바라보았던 이들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다.

“경봉 스님께서는 굉장한 신통력까지 있으셨어요. 유머감각이 있으셔서 곁에 있자면 사소한 우스개도 참 즐기셨지요. 속담에도 ‘나중에 난 뿔이 우뚝하다’ 는 속담이 있는데, 이 책을 만드는 것이 늦은 것은 큰스님 제자로서 성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재가 직접 해야 할 일을 후학들이 해서 저는 기분이 참으로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경봉 스님에 대한 모든 것을 모으고 연구를 많이 해서 널리 알릴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경봉 스님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켰던 제자 명정 스님은 책에서 말했다. 〈삼소굴 법향〉은 한 권의 책이기 이전에 ‘마음’ 이다. 한 시대의 어른이었던 선지식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다. 편찬위원장 법산 스님은 “책 〈삼소굴 법향〉은 비매품입니다. 사고파는 책이 아니라 ‘모시는 책’ 입니다. 스님의 법향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달되고 스님의 승기가 이 사회를 새롭게 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고 했다. 책을 열면 바로 경봉 스님의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도 스님의 모습으로 끝난다. 그렇게 스님과 스님의 생애를 모시는 책이다. 책은 경봉 스님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연보 등을 실었으며 법공양으로 출간됐다.

경봉 스님은 한국 근현대 불교를 대표하는 고승으로, 간화선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통도사 가람 수호와 교화에 남다른 업적을 남겼다. 스님은 근현대 불교개혁 과정에서도 정신적인 중심이 되었으며, 당대 고승들과의 서신 및 법거량을 통해 독자적인 선풍을 남겼다. 보조 지눌의 선교일치와 간화선 사상을 계승했으며, 용성과 한암의 선교겸수, 돈오점수 등을 받아들이고 이를 창조적으로 실천했다. 보조, 휴정, 경허로 이어지는 회통불교의 전통을 계승했을 뿐 아니라 선교겸수, 선정쌍수 등의 회통적 특징을 발휘했다. 간화선 전통을 대중화하여 생활선적 간화선풍을 펼쳤으며, 수행전통을 회복하고 교단의 개혁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다양한 대중법회를 개설함과 아울러 선화와 선묵 전시회를 통해 중생교화와 불교의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한국 근현대사의 격동기를 온몸으로 겪으며 통도사 강원 강주와 주지, 선학원 이사장과 극락호국선원 조실로 주석하면서 대중교화에 힘썼다. 1982년 7월 17일 세수 91세, 법랍 75세로 원적에 들었다.

인류 공동 가치 ‘한국 산사’



한국의 산사 세계의 유산

주수완 지음 / 조계종출판사 / 1만7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우리나라 아홉 곳의 사찰을 소개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후손에 전수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 가 인정되어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

한국의 불교문화유산은 1995년에 해인사 장경판전과 불국사 · 석굴암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으며, 2018년에 양산 통도사, 영주 부석사, 안동 봉정사, 보은 법주사, 공주 마곡사, 순천 선암사, 해남 대흥사 일곱 곳의 산사가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으로 등재됐다. 우리의 불교문화유산은 그 시대의 건축문화를 통해 예술성과 문화사적 가치를 세계인들에게 확인받았으며, 또한 천년이 넘는 긴 역사와 함께 현재까지도 원형을 보전하고 있는 승원문화인 산사가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았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우리 사찰 아홉 곳을 소개하는 〈한국의 산사 세계의 유산〉은 저자인 주수완 교수가 사찰을 답사하고, 스님들을 만난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순례기다. 각 사찰들이 담고 있는 불교적이고 전통적인 의미를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로 해석했으며, 이와 함께 산사의 풍경과 일상을 담은 사진을 수록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세계유산 사찰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가치란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인종과 나이는 물론 시대를 넘어 인류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일 때 ‘가치 있다’ 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산사들을 다시금 의미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저자는 “한국의 산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이 한국불교가 반도를 벗어나 세계의 전통과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말한다. 산이 있으면 으레 절이 있다는 사실이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서 대개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하지 못한다. 물론 생각을 해보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아무 생각 없이 숲을 거닐며 그 속에 자리한 사찰에 잠시 머무르기만 해도 말과 생각 이전에 몸으로 느껴지는 청량한 기운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이 현재 머물고 있는 사찰의 역사와 의미 등을 알게 된다면 좀 더 많은 것들을 느끼고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책은 그동안 우리가 산사를 찾으면서도 잘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려준다.

사찰의 시작인 일주문에서부터 사천왕, 석탑, 대웅전을 비롯한 여러 전각에 이르기까지 사찰의 모든 것들은 어느 것 하나 이유 없는 것이 없다. 산사에서는 시선을 두는 어느 곳에나 그것을 조성한 선조들의 지혜와 배려가 담겨 있다. 책은 이론이나 현학적인 해석을 최대한 배제하면서도 단순하게 풍광을 소개하는 순례기가 아니다. 절을 찾는 보통 사람들의 발걸음을 따라 해설을 하며 그동안 눈을 뜨고도 보지 못했던 산사의 의미를 들려준다.

박재완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영주 부석사 전경.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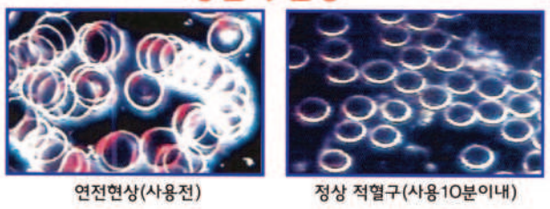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발뒷꿈치 각질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 목·어깨·허리 통증과 무릎관절, 다리에 쥐나는 것이 없어지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
▶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나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35,000원2개 = 70,000원
BLOOD MATE® 순비누:15,000원2개 = 30,000원
ORAL MATE® 치 약:21,000원3개 = 63,000원
16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6개월 후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호우로 유실된 불상, 기적적 회수

日 카마세마을, 강 범람에 법당채 유실

아미타삼존불 3구 유실
이 중 2구 해안서 발견
손상 없이 온전한 상태
남은 1구도 행방 탐색
마을, "법당 재건" 발원

박영빈 객원기자

지난달 호우에 강이 범람해 전각채로 유실된 불당에 모셔졌던 불상이 기적적으로 돌아왔다. 3존불 가운데 2구만이 돌아 왔지만, 신자들과 마을 주민들은 기뻐하고 있다. 지난 8월 11일 일본의 '니시니혼 신문' 은 이 놀라운 소식을 특별 보도했다.

지난 7월 계속된 호우로 일본 전역에서 홍수와 침수 피해가 이어졌다. 한편 수해가 집중되었던 일본 남부 쿠마모토(熊本)현의 카마세(鎌瀬)마을에 있던 불당은 근접한 쿠마가와(球磨川)강이 범람하면서 불당 채로 유실돼 버렸다. 아미타삼존이 안치됐던 이 불당과 안치된 불상의 정확한 연대는 확인되지 않지만 마을의 기록에는 약 180여년전 중수했다고 전하고 있다. 불당은 대대로 마을주민들이 신행활동을 이어오는 장소로 지켜져 왔다.

지난 7월 4일, 불당이 유실되는 모습을 지켜본 카마쿠라 마사요시(74)씨는 "호우로 강이 불어난다는 소식을 새벽에 듣고 오전 5시쯤 상황을 보러 급히 나섰다. 그러나 이미 강물이 불당의 지붕기와 언저리까지 닿아 도저히 접근할 수 없었다"며 급박했던 당시를 전했다. 결국 당내의 불상과 불구의 구출을 포기, 당일 오전 8시경 거세진 탁류에 불당이 휩쓸려 갔다. 마사요시 씨는 "단지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노인이라 그 어떤 힘을 쓸 수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어 망연자실했다"고 말했다.

피해를 입은 마을과 불당의 자리를 정비하던 중 낭보가 날아들었다. 유실된 3존상 중 본존인 아미타여래상과 협시인 관세음보살상이 발견된 것이다. 먼저 본존인 아미타여래상은 마을에서 50km 가량 떨어진 우키(宇城)시의 해안에서 발견됐다.



폭우로 유실되기 전 법당 내 봉안돼 있던 아미타 삼존상(위), 기적적으로 귀환한 불상에 참배하는 주민의 모습(아래).
사진출처=니시니혼 신문

7월 26일 오전, 불상을 발견한 현지 주민은 "해안에 떠내려 온 유목들과 쓰레기들의 상황을 확인하던 중 해안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불상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틀 뒤인 28일에는 더욱 멀리 떨어진 해안에서 관세음보살상이 역시 현지 주민에 의해 해안에서 발견됐다.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시의 문화재과는 시립 박물관 등에 보관된 데이터베이스와 대조, 카마세 마을의 불상임을 밝혀냈다. 특히 관세음보살상은 20여년 전 도난사건을 겪은 이래 두 번째 귀환이다. 신기한 것은 광배나 좌대, 손과 지물들의 부속이 탈락되고, 채색들이 모두 벗겨졌음에도 불상의 상호만은 그 어떤 손상 없이 온전하게 보존된 것이다.

8월 4일 시립박물관에서 불상을 인계받은 카마세 마을의 카마쿠라 다이키치(84)씨는 "그 급류 속에서 어찌 이리도 무사히"라며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4일 불당이 있던 자리에서 열린 임시 봉안식에서 다이키치씨는 "두 분 다 해안에 계셨다는 건, 멀리 가지 않고 카마세 마을로 돌아오고 싶으셨던 것 아니겠냐. 두 분이나 찾은 것만 해도 기적이라 생각한다"며 감상을 전했다. 현재 마을은 유실된 대세지보살상의 행방도 탐색하고 있으며, 장래 새롭게 재건한 불당에 되찾은 불상들을 소중히 모시겠다고 전했다.

폭염 속 도보순례…옛 순례길 부흥 발원

日닌나지, 총본산 스님들 주축

사찰 · 신사 등 오사카 시내
150km 거리를 도보로 순례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도



오사카 시내를 순례중인 요시다 스님.
사진출처=야후재팬 뉴스

찌는 듯 한 무더위 속, 가사장삼을 수하고 석장을 든 스님이 도보 순례를 시작했다. 교토의 스님들과 일본의 대형 동영상 사이트 '니코니코 동화' 가 함께 기획한 이번 순례에 연일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8월 14일 일본의 '마이도나 뉴스' '야후재팬 뉴스' 등은 오사카를 지나고 있는 순례팀의 모습을 보도했다.

순례를 시작한 것은 교토시에 소재한 '닌나지(仁和寺)' 의 스님들이다. 닌나지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사찰로 진언종 오무로파(御室派)의 총본산. 일본 왕실의 원찰이었던 이곳은 100여 년전까지 일본의 왕족, 혹은 일왕이 양위 후 출가해 주지를 맡는 등 그 위세와 격이 높은 사찰로 알려져 있다.

이번 도보순례는 일본의 대형 동영상 사이트인 '니코니코 동화' 가 매년 개최하는 온라인 축제인 '니코니코 인터넷회의' 의 기획 중 하나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니코니코 동화에서는 '닌나지의 스님, 거의 150km 도보순례 생방송' 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순례의 모습들이 생중계 되고 있다. 순례의 목적지는 인접한 효고현의 칸노지(神呪寺)로 도중 코보대사나 닌나지와 인연이 있는 사찰과 신사등을 참배할 예정이다.

닌나지 측은 "이번 도보순례에는 3가지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첫째는 순례하는 스님이 등에 종조(宗祖), 코보대사의 상을 짊어지고 걸음으로서 '코보대사와 사람들이 언제나 함께한다' 는 '동행이인(同行二人)' 의 정신을 많은 이들이 느끼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닌나지 경내 뒤에 있는 '오무로 88개소' 의 부흥이다. 시코쿠 88개소를 본 따 200여년전에 만들어진 옛 순례길을 부흥시키고 홍보하려는 목적이 있다. 마지막 목적은 이 길을 정비하기 위한 보시를 받기 위한 권진(勸進)활동"이라고 닌나지는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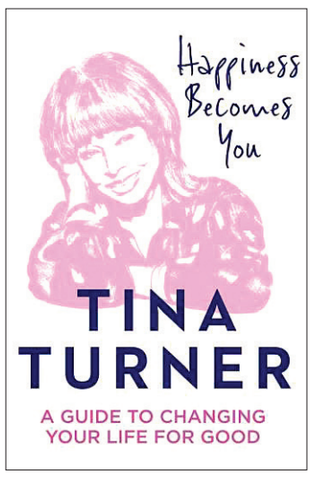
실제 현재 중계되고 있는 영상은 매일 약 5만여명이 시청, 스트리밍 채팅창에는 "무더위 속에 감사하다" "회향까지 힘내시라"는 등의 응원이 쏟아졌다. 심지어 스트리밍을 보고 진행루트에서 기다리다가 차가운 음료나 순례길 부흥에 써달라며 보시금을 전달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고 있다.

지난 8월 9일 오전 8시 닌나지 금당 앞에서 출발한 닌나지의 스님들은 가사와 장삼을 수하고 석장과 삿갓을 갖춘 전통적인 모습이었다. 순례팀을 이끄는 오이시 데츠겐 스님은 매일 10시간 가량을 이동, 8월 12일 밤에 목적지인 칸노지에 도착했다. 특히 순례 중 카메라맨과 중계되는 채팅에 반응해 대화를 이어가는 스님의 모습이 입소문을 타면서 "닌나지에 한번 가보고 싶다" "스님의 루트를 따라 걸어보고 싶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14일부터는 닌나지 종무총장인 요시다 마사히로 스님에게 코보대사상이 인계됐다. 요시다 스님 역시 매일 10시간 이상 도보로 이동할 예정. 순례팀은 16일 이른 오후에 닌나지에 도착해 오무로 88개소를 일주한 후 금당에서 회향법회를 봉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영빈 객원기자

아티스트 티나 터너, 불교 저서 발간

'행복은 당신이 된다' 올해 말 발간 예정



티나 터너의 앨범.
사진출처=티나 터너 페이스북 계정

1985년 그래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레코드' '최우수 여성 팝 보컬리스트' '최우수 여성 록 보컬리스트' 등 3관왕의 영예를 안았던 미국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이자 록 아티스트 티나 터너(Tina Turner · 80)가 자신과 불교와의 관계를 오랜 시간 탐구한 끝에 관련 저서를 발간한다. 자신이 불교를 통해 느끼고 깨달은 바를 소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을 전수하는 내용이다.

불교 온라인 매체 '부디스트도어' (Buddhist door)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티나 터너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서 '행복은 당신이 된다: 당신의 삶을 행복으로 바꾸는 가이드' (Happiness be You: A Guide to Changing Your Life for Good) 발간 계획을 발표했다. 이미 전 세계에 신심 깊은 불자로 알려지며 불교 음악 작업을 하기도 했던 그가 불교 관련 저서를 발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티나 터너는 저서와 관련 "이 개인적인 책에서 나는 내 삶의 핵심 주제인 희망, 행복, 그리고 불심에 집중한다"며 "나를 인도한 영감적인 철학보다 불교의 지혜가 실제 내 목숨을 구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내게 꿈 이상의 기쁨과 성취감을 가져다 준 불교의 지혜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 지혜와 경험을 나누겠다"며 "나는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티나 터너는 당초 개신교의 침례교도였다. 그러나 전 남편으로부터 갖은 구타와 협박을 당해 삶의 '피난처' 를 찾던 중 불교를 만났다. 1971년 일본 불교 니치렌종의 분파였던 창가학회 활동으로 불교에 발을 들였고, 2005년 스위스에서 달라이 라마를 만난 후 2007년 동료가수들과 함께 찬불가와 찬송가를 결합한 무대를 펼치는 등 종교 간 화합의 장을 열기도 했다.

티나 터너는 앞서 2016년 불교매체 라이언스로어와의 인터뷰에서 "법화경을 독송하면서 나는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견뎌냈다. 불경 독송은 소리이자 리듬이며, 내 안의 잠재의식에 닿는다. 나는 그 소리가 닿는 곳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믿는다"고 한 바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호주 불교단체, 코로나19사태 속 자비

쯔치호주, 의료종사자들 위해 개인보호장비 지속 지원 활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호주 멜버른에서는 의료 종사자들이 개인보호장비(PPE) 부족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불교 자선단체 쯔치호주(The Tzu Chi Australia)가 의료계에 PPE를 공급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여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8월 14일(현지 시간) '투데이' (Today) 등 외신 매체에 따르면, 쯔치호주는 지난 4월 1일부터 이날까지 호주 내 주요 도시 7개 병원과 8개 노인요양시설 등에 4만1000여개 마스크와 1300여개 의료용 가운, 400여개 안면보호막을 공급했다.

해당 매체는 "호주 지역 의사들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내내 정부 지원이 부족할 때 마다 쯔치호주에 지원을 요청해 PPE를 공급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쯔치호주는 특히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 지원망 밖에 있는 취약 계층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구호기금도 마련, 오는 10월 31일까지 이들에 대한 구호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힌 상태다.

쯔치호주의 자원봉사자 웨인 코커럴 씨는 "많은 의료봉사자들이 우리 단체로부터 PPE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때마다 격한 감동을 표출한다"며 "노스턴 병원에서 한 여성이 마스크 등이 들어있는 20개 박스를 받아들었을 때 울먹였던 표정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부처님오신날 도량장엄등 설치 • 유지관리

연등 자동승강장치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법당용 연등

공단연등

아크릴한지등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인쇄 주문접수 중
전선, 전구등 공사자재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사찰에는 물고기가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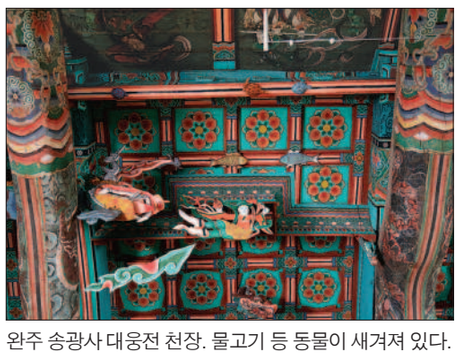


이상근의
聖寶流轉

⑯ 물고기 상징



밀양 만어사 전경. 수많은 고기떼가 화석으로 변했다는 전설을 안고 있다. 또한 부처님 법으로 나찰녀를 교화한 이야기도 전해진다.



완주 송광사 대웅전 천장. 물고기 등 동물이 새겨져 있다.

목탁 목어 등 佛具에 물고기 다수
사찰 벽화 · 장엄에도 물고기 상징
중앙뚠 거쳐 전래되며 본격적 활용
범어 · 오어 · 만어 등 사찰명 유래



은하사 대웅전 내부. 대들보에 어변성룡 그림이 있다.

전통사찰 중에 물고기 '어(魚)' 자가 들어가는 사찰이 세 곳이 있다. 범어사(梵魚寺), 오어사(吾魚寺), 만어사(萬魚寺)다. 세 사찰 모두 물고기와 관련된 전설이나 설화를 하나씩 갖고 있다.

이렇게 사찰 이름에 '물고기 어(魚)' 자가 들어가는 것은 아주 특이한 경우다. 반면에 사찰 장식 중에는 가장 흔한 생물 중 하나가 물고기다. 불교를 상징하는 사자나 코끼리보다 흔하고 연꽃만큼 지천이다.

사찰의 다양한 물고기 상징

불구(佛具)를 살펴보자. 우선 목탁이다.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면 입, 눈, 머리, 몸통, 꼬리가 자연스레 보인다. 목탁의 확장판은 목어다. 범종, 법고, 운판과 함께 불전사물에 속하는 목어가 수중생물에게 깨달음의 소리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건 절에 안 가본 사람도 아는 얘기다. 그런데 불전사물 '소품' 중에 물고기가 한 마리 더 있다. 바로 종을 치는 당목이다. 고래라 엄밀히 말하면 포유류지만 어쨌든 바다에 사니 물고기라고 해두자.

범종각을 지나 탑 앞에 서도 물고기를 볼 수 있다. 요즘은 흔하지 않지만 원래 탑의 층층마다 사방에는 풍탁(풍경)이 달려 있었다. 풍탁 안에서 흔들리며 소리를 내는 것도 바로 물고기다.

이제 법당 앞에 섰다. 현판 좌우에 나란히 용이 머리를 내밀고 있는데 이들이 입에 물고 있는 게 또 물고기다. 예천 용문사 대장전처럼 물고기를 물고 있는 게 용이 아니라 귀신 형상(귀면)인 경우도 있다.

외벽의 벽화 중에도 물고기가 가끔 보인다. 제천 신륵사 극락전 외벽 박공에는 물고기가 물고기를 토해내는 그림이 있다. 흔히 '토어도(吐漁圖)'라고도 불리는데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토해내고 작은 물고기가 또 더 작은 물고기를 토해내는 그림이다. 부처님이 전생에 보살행을 닦을 때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히는 작은 물고기를 가엾게 여겨 큰 물고기를 잡아 멀리 보내고 작은 물고기들의 걱정을 덜게 했다는 전생담에서 취한 그림이다. 최근의 것이지만 해인사 대적광전 뒷면에는 등에 나무가 자란 물고기 그림이 있다. '목탁'의 유래를 담은 벽화다.

법당 안으로 들어가 보자 사찰 불단에도 물고기가 빠지지 않는다. 환성사 수미단이나 운흥사 수미단의 물고기는 유명하다. 법당에서는 고개를 숙일 줄만 알지 고개를 쳐드는 경우가 적어 놓친 물고기도 많다. 대표적인 게 완주 송광사 대웅전 천장이다. 물고기 천지다. 물고기 사이사이로 게나 토끼를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또 김해 은하사 대웅전 대들보에는 물고기에서 이제 막 용으로 변하려는 모양의 그림이 있다. 중국의 고사 어변성룡에서 취한 그림이다.

사찰에 물고기가 사는 이유

그런데 사찰에는 왜 유독 물고기가 이렇게 흔할 것일까?

우선 초기 경전에 물고기 얘기는 없지는 않지만 흔치 않다. 전생담(자타카)에 나오는 물고기 이야기 정도가 다다. 그런데 전생담의 경우 '부처님의 친설' 이라기보다는 당시 내려오던 여러 설화와 이야기를 취합해 만든 경우가 발견돼 온전히 부처님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자신이 없다.

그런데 차차 물고기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있으니 불교가 인도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이나 티베트로 넘어오면서부터다. 대승불교가 발전하면서 '새' 경전들이 심심찮게 출현하게 되고 물고기도 자주 등장하게 된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어람관음이나 아미타어 전설 같은 것들이다.

33관음 중의 한 분인 어람관음은 나찰, 독룡, 악귀의 해(害)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다. 경전에는 물고기를 담은 어람을 들고 있다고 나와 있고, 그림으로는 바구니에 고기를 넣고 있거나 큰 물고기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아미타어 이야기는 좀 길어서 지면에 모두 소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물고기 몸에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이 불단의 조각 등으로 나타나면 아미타어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하튼 중앙아시아와 중국이라는 필터를 거쳐 이 땅에 자리 잡은 '절' 에도 물고기 문양이 자연스레 자주 등장한다.

이런 물고기 문양이나 조각에 대한 해석은 다음의 몇 가지가 있다. 물론 어떤 위치에 어떤 모양으로 그리거나 조각되었는지 차이는 있지만 대표적인 내용 몇을 소개한다.

첫 번째, 아마 불자라면 귀에 딱지가 앉히도록 자주 들었던 이야기일 것이다. 바로 밤낮 눈을 뜨고 있는 물고기의 모습에 빗대어 쉼 없이 정진하라는 의미를 담았다는 것이다. 목탁을 설명할 때 더 자주 듣는 말이다. 등에 나무가 난 목어 그림은 '게으른 비구' 의 후회를 상징하지만 그 나무로 만든 목탁이 '경책' 의 의미를 담았다는 건 아주 그럴듯하다.

두 번째, '어번성룡(魚變成龍)' 과 관련한 설명이다. 잉어가 황하의 용문이라는 거센 협곡을 뛰어오르면 용이 된다는 고사성어가 '어변성룡' 이다. 이 내용을 절집에서 따다가 범부도 수행을 하면 깨달아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김해 은하사 대웅전 대들보 등에 이런 그림이 보인다.

세 번째, 만사형통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물고기 어(魚)는 중국로 여(餘)와 발음이 같다. 또 이 여(餘) 자는 같을 여(如)와도 통하는데 우리가 흔히 여여(如如) 하시냐고 안부를 묻는 것처럼 한결같고 변함이 없다는 뜻과 맞닿아 있다.

네 번째,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민간의 염원을 담았다는 설명이다. 수미단 조각이나 벽화에 그려진 물고기는 다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 많은 알을 낳는 물고기가 다산을 상징하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이런 그림들이나 조각들은 대부분 조선 중기, 임진왜란 이후 자주 나타난다. 조선 시대는 교리나 수행이 꽃을 피웠던 시기가 아니다. 사찰 입장에서는 생존 전략이 필요했던 때이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위로가 필요했던 시기다. 이때 민간에서 유행하던 여러 그림이나 상징이 절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다산이나 풍요를 상징하던 물고기가 자연스레 절집으로 대거 진입하게 됐다는 것이다. 불교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하고 즐거움을 주자는 의미에서는 가능한 얘기다.

다섯 번째,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했다는 설이다. 목조 건물에서 가장 금기시 되는 것이 바로 불이다. 강과 바다의 기운으로 화재를 예방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불교적으로 다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삼계는 모두 화택이니 물고기를 통해 그 고통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사찰에 물고기가 살고 있는 이유는 더 다양하게 설명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추렸다.

물고기 이름 사찰들

서두에 밝혔지만 전통사찰 중 '물고기 어(魚)' 자가 들어가는 사찰이 셋 있다. 범어사(梵魚寺), 오어사(吾魚寺), 만어사(萬魚寺)다.

그 중 범어사의 유래는 이렇다. 〈동국여지승람〉에 나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 남쪽에 명산이 있어 그 산 꼭대기에 높이 50여척의 큰 바위가, 그 바위 한 가운데 샘이 있으며 그 물빛이 금빛이다.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물속에는 범천으로부터 오색구름을 타고 온 금빛 고기들이 헤엄치며 놀고 있다하여 산 이름을 금정산(金井山), 절 이름을 범어사(梵魚寺)라 하였다."

오어사의 이름은 원래 항사사였다. 절 이름에 '물고기' 를 집어넣은 연유는 혜공 스님과 원효 스님의 유명한 일화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만어사다. 오어사 유래와 마찬가지로 그 유래가 〈삼국유사〉에 장황하다.

"만어사가 자리잡은 만어산에는 다섯 명의 나찰녀(여자 악귀)가 있었는데 독룡과 오가며 사귀었기 때문에 때로 번개가 치고 비가 내려 4년 이래 오곡이 잘 되지 않았다. 왕(수로왕)이 주문으로도 이를 금할 수 없어서 공손히 부처님께 설법을 청하였더니 나찰녀들이 오계를 받고 후에는 이런 폐단이 없었으며 동행의 고기와 용이 이 골짜기 속에 가득 찬 돌로 화하여 저마다 악기소리를 냈다."

이밖에도 〈삼국유사〉에는 만어사의 유래에 대한 다양하고 장황한 설명이 이어진다. 여하튼 지금도 만어사 앞에는 검은 돌들이 절에서부터 산 아래까지 수만 개는 될 듯한 숫자가 흩어져 있다.

이렇게 각자 사연은 다르지만 절집에는 물고기와 관련한 다양한 전설 그리고 그에 묻어나오는 다양한 상징이 자리 잡고 있다.

〈불광출판사 편집주간〉

세계 붓다 평화 봉사상

살아있는 관세음보살과 보현보살의 화신을 찾습니다

2020년 한국과 세계 불교를 이끄는 리더, 세계와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

불기 2564년은 중국 우환에서부터 전파된 코비드19바이러스로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하여 지구촌 전체가 고통을 받고, 세계 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을 주는 액난을 맞이했습니다. 이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곳에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라 칭 하는 분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신뢰, 존중하고 화합, 단결하는 절실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불평불만 보다는 매사 긍정적이고, 불신보다는 화합의 포용과 미소로 함께 나누는 사회를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협회에서는 살아있는 관세음보살과 보현보살의 화신을 찾습니다. 이름도 富도 名譽도 없지만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수행자로 먹물 옷이 부끄럽지 않게 봉사와 헌신으로 고통 받는 지구촌 중생들에 지팡이가 되고 따뜻한 손길이 되어 주시는 불제자들을 발굴하여 세상에 그들의 아름다운 선행을 알리고 함께 동참하는 계기를 갖고자 합니다. 수천마디의 말보다 몸소 실천하는 부처님께 부끄럽지 않는 행원으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으며 주위 모르게 고통 받는 중생들에게 희망과 미소를 안겨주는 살아있는 관세음보살을 찾아 세상 모든 분들의 감사와 찬사의 박수를 보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추천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의 추천을 기다립니다.

◈◈ 제출서류 및 안내 ◈◈

제출서류 추천서와 자기소개서1통, 이력서 1통, 사진 1매 내외 ※ 본 협회에서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심사 후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자 격 승가 및 재가자로 불심이 돈독한 분
접 수 일 2020년 9월 30일(수) 까지
제 출 처 (우)03158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68(청진동6번지 신영빌딩303호)
TEL 02-733-5665 / H·P 010-5229-6061 moktakno1@hanmail.net
시 상 식 2020년 12월 16일(수) 수상자 200명 훈장(메달)과 수훈패
장 소 백범김구기념관 (서울 용산구 임정로 26)
총 회 장 미얀마연방정부승가회 회장(세계불교도들의법왕)우꾸마라종정큰스님
총부회장 불교수호협회회장 및 세계불교법왕청 사무국장 우킨쉐이
회 장 목탁 대승정
대회장, 총괄 공동본부장 혜정 · 진성, 조직 본부장, 심사 공동위원장 심오 · 현담, 의전 본부장,
의전1원장 김재은, 의전2원장 이정희
심사위원 승가심사위원 혜정, 진성, 도광, 심오, 현담, 법운, 송운, 혜광, 상운, 대공, 대도, 백련
재가자심사위원 김재은, 고동욱회장, 명지민, 박정의회장, 이정희, 정영숙, 상미옥, 양미애, 윤서영, 최연호,
김명옥, 김영춘, 모미숙, 송윤서, 박정하, 이은송, 이양순

※ 초청장을 지참한 VIP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전원 지정 좌석제 실시) ※ 초청자 명단에 없이 격려차 참석하신 분들은 정중히 행사장 입장 사절합니다.

추천된 대상 시상자들에게 서류 접수비 및 후원금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모든 비용은 본 협회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주최 및 주관 국제붓다 평화 자비봉사단, 대한민국 나라사랑 협의회, 종교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교법인 국제선불교조계종, 외교법인 한국-미얀마 친선교류협회,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한국주재 미얀마 문화원 & 미얀마관광청 한국대표부, 미얀마 코리아 종합기술대학교 (양곤 흘라잉따야 구쑤빠웅용 동네따까마-14번지)
협 찬 현대불교신문사

불교스피치 능력 배양, '21세기 포교'



이현정의
불교와 스피치

① 불교 커뮤니케이션이란?



그림 · 박구원

불교와 스피치, 혹은 불교와 커뮤니케이션 하면, 갓 쓰고 양복 입은 것쯤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다. 불교스피치라고 하니, 교육을 받기 전에는, 다들 그게 무엇이냐는 질문이 대부분이었다. 그만큼 불교와 스피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으로 보였고, 사회관계성에서 서로 무관한 것으로 오해받았다. 그러나 불교 안에 사부대중이 있고, 그 안에 스님들의 공동체, 재가불자의 모임, 법회, 예불, 불교의 각종 행사, 수행단체 등 이 모든 것도 사회관계성이며 커뮤니케이션이 중심이 된다. 또한 재가불자와 스님과의 관계, 수행에 대한 도움, 교육, 포교 등도 모두가 커뮤니케이션이다. 또한 오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각종 경전들 또한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이다. 수많은 고승들의 귀감이 되는 이야기와 그들이 내려주는 화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전문구들, 더구나 당장 TV나 인터넷영상만 틀면 나오는 스님들의 법문퍼레이드 등도 모두가 다 커뮤니케이션이다. 불교학의 강의나 서적, 논문, 그리고 포교행위도 모두 커뮤니케이션이다.

큰 범주에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 그 안에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가 들어있으며, 여기에서 언어적 요소를 스피치라고 한다. 흔히 스피치는 말하기, 말하는 방법, 표현 등으로 이야기되어진다. 일단 스피치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어 자체가 영어이다 보니, 다른 말로 대체하기가 딱히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흔히 사용하고 있고, 학문적인 용어나 일상어에서도 스피치나 커뮤니케이션은 두루 쓰이다 보니, 이 용어가 굳어져버린 것도 있다.

왜 불교에서는 유독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본능적인 터부가 생겨났을까? 타종교에서의 광적인 선도에 대한 집착과 거기서 오는 민폐의 볼 상 사나운 행태 때문에 지레 고개를 돌려버린 탓도 있고, 불교자체 내에서의 잘못된 오해가 면면히 굳어진 까닭일 수도 있다. 21세기를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불교는 전통문화를 유지 보존해가는 유일한 종교문화로서 그 역할을 다한다고 자부할 수 있다. 그러나 시대에 맞는 불교의 응용적 발전과 적극적인 포교활동에서는 매우 소극적이며 불교 자체를 그저 근근이 보존만 하고 있는 형국이다. 더구나 2015년 통계청이 발표한 총인구대비 종교인구에서 불교인의 급격한 감소와 비종교인의 증가는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남아있다. 굳이 조사결과가 아니더라도 유아~ 청년층까지의 세대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긴박감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이다. 급변하는 시대의 세대차이는 그 간격이 많이 벌어진다고 하여도, 불교에서의 텅빈 자리는 곧 우리의 미래를 대변하는 모습이기에 쓰디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포교의 금밭이라는 이주민과 탈북민은 이미 입국 때부터 불교를 버리기부터 한다. 이러한 시대적 조망을 철저히 인식하고 시대에 맞는 불교수행과 포교활동은 어떠한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물론 언어가 모든 포교에서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다. 언어가 주는 깊이감의 한계, 심층적 뿌리의지, 진실된 그 무엇을 다 표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지극히 필요한 도구이다. 물의 소중함을 모르는 물고기처럼, 우리는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 간과해버리곤 한다. 불법도 역시 말과 글이 연결되어 전해지고 있으므로 당연히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의 범주에 있다. 이를 하나하나를 의미있게 본다면 불법으로 훨씬 더 가깝게 가지 않을까 싶다. 일단, 불교에서는 말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었다. 동아시아문명 중에서 유교의 영향이 짙게 베인 까닭이다. 그러나 정작 중국유교나 중국불교에서 말에 대한 경시는 심하지 않았다. 인도와 중국에서 수 십 갈래로 크로스(cross)되고 혼합(mix)되어 넘어와, 우리식으로 양념 친 한국식 유교가 다시 버무러지며 우리만의 독특한 한국불교문화가 형성되었다. 앞으로 불교스피치커뮤니케이션에서는 숨어버린 말에 대한 정정당당한 입지를 바로 세우고, 말이라는 수단으로 불교포교활성화의 시동을 거는 역할을 강조할 것이다. 긴 세월동안 전해진 그 거대한 힘도 바로 글과 말 즉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것이 없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고마움과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다시 바로 세워 21세기의 불교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스피치(speech)와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은 말과 관계성, 이 정도의 합성어로 이해되곤 한다. 현대적 스피치의 개념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상대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조리 있게 전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수행 · 포교도 커뮤니케이션**
> **언어의 중요성 흔히 간과해**
> **교감 바탕서 불교감동 전달**
> **새로운 시대 법보시로 승화**

커뮤니케이션에서 스피치만 보더라도, 그것은 상황의 다양성에 따라 자신의 생각부터 발표, 대화, 전화, 면접, 상담, 주장, 보고, 설득, 협상, 홍보, 인터뷰, 토론, 회의, 연설, 강연, 강의, 포교, 설법, 교육 등 많은 분류로 나아간다. 세대로 넘어가는 모든 것, 즉 삶의 전부라 해도 될 것이다.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잠자리에 들어가기까지 말을 한다. 심지어 자면서까지 스피치는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기억여부와 관계없이 꿈을 꾸는 행위도 스피치라 할 수 있다. 말의 역사는 곧 한 사람의 역사이며 인생이다. 그동안 말에 대한 경시는 조선역사 500년, 그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다. 세계화로 인해 말의 중요성이 근래에 와서야 부각되었을 뿐이다.

특히 반려동물 1000만 가구 시대를 맞아, 동물과의 교감과 대화도 쉽게 볼 수 있다. 동물뿐 아니라 식물과도 대화를 나누고 사랑과 정을 쏟은 결과는 식물의 성장으로 보답하는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쉽게 볼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의 전유물은 결코 아니다. 인간의 지능을 앞지르는 인공지능이나 AI, UFO등은 인간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모든 자연과 생명체들 앞에서 겸손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무의식의 기저까지도 가늠해볼 수 있는 시대에 와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하나가 다 보이지 않는 파동과 입자로 날아간다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 그 모두가 결코 숨길 수가 없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9류 중생은 인간이 인간관계에서만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우주전체의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느껴지거나 느껴지지도 않는 무한의 존재들과의 광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미 부르짖었다.

불교스피치와 불교커뮤니케이션은 지식과 이론으로만 그친 불교공부에서 이제는 입을 열어 내가 배운 만큼, 들은 만큼, 타인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전달 할 수 있는 연습을 해서 진정한 불교공부의 완성을 만드는 작업이다.

관념적으로 말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말하라.
말로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말로 해줘야 한다.
-원효 스님 〈무량수경 종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후, 이 깊은 진리를 감히 누가 알겠나 싶어 침묵을 결심할 때, 하늘의 범천은 그래선 안 된다는 간곡한 청을 한다. 이것을 모든 중생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했다. 이 진리를 누가 이해하겠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 범천은 끊임없이 그렇지 않고, 알아들을 사람들도 있으니 걱정 말고 전법행을 해야 한다고 청했다. 그제서야 부처님은 알아들을 자도 있고 둔한 자도 있음을 알아차렸다. 결국 부처님은 입을 열기로 결심했고 범천은 감사해하며 자리를 떠났다. 이 순간이 불교의 시작을 알리는 일대사 중대한 사건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원효스님도 당나라 유학을 접고, 대중포교, 민중포교, 전법행으로 마음을 돌렸다. 조용히 글만 쓰는 것에서 더불어, 민중 속으로 들어가 노래하고 춤추며 교화하였다. 수많은 저서를 쓴 대학자이면서, 대중 속에서는 부처님의 이름하나만이라도 간절히, 끊임없이 부르도록 권했다. 이러한 전법행은 불교 커뮤니케이션의 재생의 꽃을 이룬다.

이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졌다. 21세기 한국불교의 포교는 내가 한마디를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의 배양이다. 이것이 부처님을 향한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며, 부처님을 닮아가는 지름길이다.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스피치방법을 배워야 한다. 21세기는 IT, 인터넷의 발달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세상이다. 진정한 대승보살행을 위한 도구들이 많아졌다. 이 모든 것을 포교나 전법에서 정리할 수 있으며 답을 찾을 수 있다. 이제 불교도 입을 열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말해야한다. 배워서 나눠야 기도와 보살행이 완성된다.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기도는 탐심일 뿐이다. 삼독을 끊자고 하는 수행이 기도활동에서 반대로 가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타적 포교행위라는 보다 크고 넓은 차원의 보살행이 더 깊은 기도 행임을 알려야 한다. 가장 큰 복덕은 법보시임을 몸소 실천하는 불자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기만 하고 이를 나누는 자비행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불자라 할 수 없다. 법보시의 복덕이라는 것은 곧 지혜와 자비행이며, 이 둘을 조화롭게 실천했을 때 비로소 부처님의 제자라 할 수 있다.

대승불교는 초기불교에서의 폐해에서 등장한 새로운 불교개혁운동이었다. 나만 행복을 찾고 안이한 종교에서 벗어나 대중과 함께 하는 폭넓은 이타행을 강조하면서 일어난 운동이었다. 여기서 등장한 보살은 종전의 아라한의 개념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타심을 먼저 부각시킨 이러한 개념부터가 불교를 한층 업그레이드시킨 주요핵심내용이 된다. 한국불교는 대승불교이고, 이타심을 먼저 생각하고 나 또는 나의 수행과 기도를 그 다음으로 여기는 보살운동이다. 따라서 보살행으로서나, 자신의 수행으로서나, 공덕을 쌓는 발원으로나 다 통하는 것이 포교행(전법행)이다.

불교스피치 전문가 이현정 박사는…
조계종 교육원과 전국비구니회, 포교디지털대학서 스피치를 강의 하는 전문가다.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동국대서 신문방송학으로 석사학위와, 정치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저자는 불교방송 공채 1기 아나운서, KBS · EBS 자문위원,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센터 공동대표 등을 거쳐 현재는 다문화TV 자문위원, 글로벌교육문화연구원 다문화연구소장, 조계종 교육원 승려인증교육 강사 등을 맡고 있다.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불교통신대학·대학원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대학장 / 대학원장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나란다삼장불교대학
강원 교육
학 장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20년 8월 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20년 9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 박사님 외

불교예술대학
범패 · 작법무
교 수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상단권공의식 원서교부 | 2020년 8월 부터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20년 9월 1일 화요일 오후 3시

고등강원
승가교육(전문강의)의 일환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합니다.
개강일시 | 2020년 6월~ 교육중
교육기간 | 6개월 (2020년 6월~11월 11주 교육)
장 소 | 제천 금강사 (☎043-646-3800)
교육내용 | ① 근본불교성전, 원각경 : 활안큰스님
② 금강경오가해 : 혜림스님
③ 유 식 : 서무선 학장님
문 의 | 금강선원 사무국 (☎ 02-969-2410)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 www.kumgangnet.com | Tel 02)969-2410, 4981 Fax 02)964-2433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임제종과 함께 송대 선종 이끈 운문종



현견 스님의
중국 선 문화기행 Ⅱ
⑯ 송대의 운문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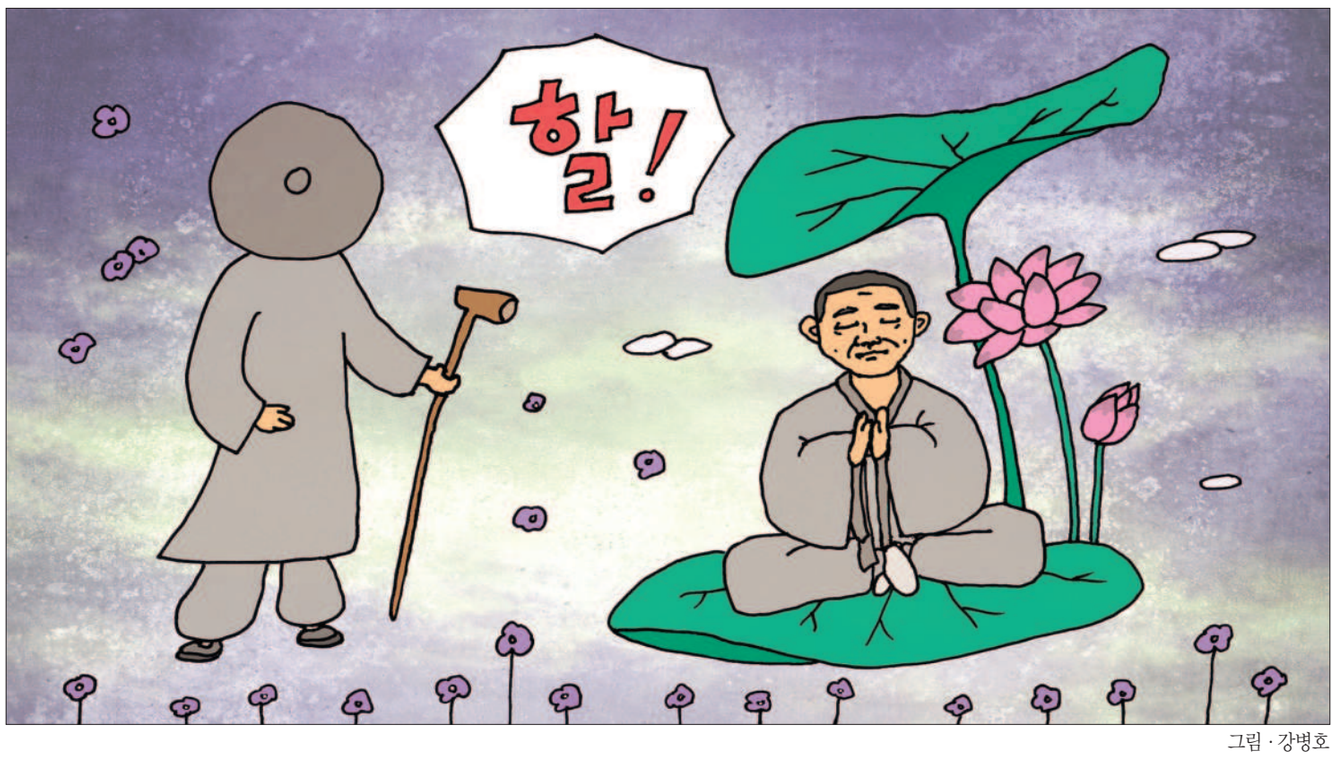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북송 초 선종의 분포를 살펴보면 임제종 조동종 운문종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 물론 이 가운데서 조동종이 약간 쳐지기도 했다. 특히 한국불교 수행을 대표하는 간화선을 주장했던 임제종의 대혜 종고를 전후로 해서 조동종과 운문종에서도 걸출한 선사가 많이 배출되었던 시기이다. 그러나 한국에는 웬일인지 임제종의 선법만 전해졌고 그 외 운문종과 조동종의 선사들과 선법에 대해서 크게 알려진 바가 없다. 고려 때 잠깐 법안종이 유행을 하기도 했다.

송 초 북방지역의 불교계는 법상종 화엄종 및 율종이 가장 영향력이 있었으며, 승려들을 관리하는 최고의 기관인 좌우가승록(左右街僧錄)에서 책임자 승관을 가장 많이 배출한 종파도 위에서 언급한 3종파의 교학 계통의 고승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종파들은 이론 혹은 명상 개념이 번다하고 의리(義理)가 깊고 심오하였고, 특히 율종은 세밀한 계율규정 및 금계 등으로 인해서 당시 사대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이때 천태종과 선종은 강소성과 절강성 일대에서 신속하게 발전해 가고 있었다. 선종은 자수자오(自修自悟)를 중시하면서 '식심견성(識心見性)'을 주장하는 것과 동시에 독특한 수행법을 제시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목을 집중시켰고, 날이 갈수록 유가 사대부들의 주목과 환영을 받았다. 특히 당시의 황제 및 조정의 정관계 대신들의 지지를 받았는데, 특히 황제로서는 진종(眞宗 · 997~1022)과 인종(仁宗 · 1022~1063)이 전후로 해서 선종을 지지하였고, 선종은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광범위하게 전파해 나아갔다.

운문종은 오대 시기에 광동성 소주(韶州 · 현재의 광동성 乳源縣)에 위치한 운문사의 운문 문언(雲門 文偃 · 864~949)에 의해서 창립되었다. 운문 문언이 소주 운문산 광태선원(韶州 光泰禪院)에서 오랫동안 주석했기 때문에 산의 이름을 따라서 운문종이라고 칭한다. 운문종의 종조(宗祖)가 되는 운문 문언은 청원 행사의 계통이다. 운문종은 오대에 발흥해서 송대에 번성하였으나, 남송부터 쇠락하기 시작하였으며, 원나라 초에 이르러서는 이미 그 법맥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운문종은 오대십국 가운데 광동성 광주에 수도를 정했던 남한(南漢) 정부의 지지를 기반으로 매우 흥성했으며, 대각선사(大覺禪寺)가 운문종의 종찰이다. 이 사찰이 운문산 자락에 있어서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운문사라고 부른다.

오대로부터 북송 초의 태조(太祖) 태종(太宗) 때가 운문종의 발전사에 있어서 비교적 영향력이 컸던 시기이다. 북송의 운문종은 북송 초 운문의 제자인 2~3세를 거치면서 신속하게 전파를 하였고, 운문 문하에 4~6세 시절에 대체로 송 인종(仁宗) 중엽에서 휘종(徽宗 · 대략적으로 11세기 중엽에서 12세기 초) 초기까지 전대미문의 발전을 이어가고 있었다. 송 휘종(徽宗) 이전에는 운문종과 임제종이 쌍두마차 역할을 하였으며, 당시 선종 가운데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두 종파였다. 운문종은 영남의 북쪽을 향해서 점차로 확장해갔다. 이때 많은 영향력 있는 선사들을 배출하기도 했다. 대체로 운문 문하의 제3~4대의 제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 가운데서 원통 거눌(圓通 居訥)과 거산 요원(居山 了元 · 1032~1098)은 절강성과 강소성 일대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기반을 가지고 전파했고, 설두 중현은 당시 명주(현재의 절강성 영파)의 설두산을 중심으로 선법을 전파했는데, 영향력이 매우 커 그를 가리켜 "운문 중흥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 운문종의 걸출한 선사로서 불일 계숭(佛日 契嵩)을 들 수가 있는데, 그는 비단 운문종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불교사 및 선종사에서도 길이 남을 걸출한 선사이다. 그를 일대효승(一代孝僧)이라고 칭하기도 하며, 동시에 불유일치(佛儒一致)인 유석(儒釋) 융합론을 주장했다. 특히 유학자들의 배불 관점을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불가와 유가의 같은 점 다른 점을 낱낱이 드러내고 논리적 체계를 바탕으로 유학자들의 배불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 책을 저술을 하기도 했다.

이때 운문종의 유명한 선사로서, 〈오등회원〉에서 보면, 익주의 청성향림원(靑城香林院)의 향림 징원(香林 澄遠 · 908~987), 양주(襄州)의 동산 수초(洞山 守初 · 910~990), 정주(鼎州) 덕산의 원명 연밀(圓明 緣密), 수주 쌍천산(雙泉山)의 사관 명교(師寬 明教), 소주 백운산의 자상 실성(子祥 實性) 선사 등이 있다. 이외도 운문 문하에 유명한 선승으로, 4세인 불일 계숭, 천의 의회(天衣 義懷), 원통 거눌, 육왕 회련(育王 懷璉), 거산 원료, 5세인 혜림 종본(慧林 宗本), 법운 법수(法雲 法秀), 6세인 법운 선본(法雲 善本), 법운 유백(法雲 惟白)등이 있다. 이들 일부는 각지의 형세가 뛰어난 지역의 사찰에서 선법을 전파했고, 혹은 이들 중 일부는 황제의 명에 의해서 경성 황가의 사원에서 주지를 맡기도 했다. 또 당시 중앙정부의 관료나 지방에서 군사의 요직을 맡고 있는 사대부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중국의 불교학자인 양증문 교수는 이 시기를 운문종의 발전사에서 가장 흥성한 시기에 진입한 때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후 운문종은 점점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운문종에서 비교적 유명한 선사로서는 7세인 설봉 사혜(雪峰 思慧), 설봉 종연(雪峰 宗演) 등의 인물이 있다.

송대 번성 후 남송 때 쇠락
설두에서 보현까지 중흥기
다른 종파와 융합 후 쇠퇴

이들 제자 가운데 비교적 흥성했던 제자들은 원명 연밀, 사관 명교, 향림 징원, 동산 수초 등이며 그 중에 상수 제자는 향림 징원이다. 그는 학인을 제접할 때 완전하게 운문 가풍으로 인도를 하였으며, 향림 징원의 문하에 지문 광조(智門 光祚)가 있으며, 지문 광조의 문하에 전법 계승자가 많았는데, 그 가운데 우리 귀에 익숙한 설두 중현이 있다. 또 설두 중현→연경(延慶)→자영(子榮)→남화(南華)→보연(寶緣) 등이 활약했던 시절을 운문종의 중흥시기라고 하기도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운문종은 북송 시기에 한 때 크게 성황을 이루었지만, 기타 종파와 서로 융합하기 시작하면서 운문종의 색깔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운문종의 흥성은 대략 200여 년 동안 이어졌으며 매몰된 주요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고, 평가도 또한 엇갈리지만, 그 가운데서도 "날카롭고 험준하고(機鋒險絶), 사려(의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不容擬議), 통할 길이 없으며(無路可通) 상근자가 아니면 오입(悟入)을 하기 어려운 연고"라고 했다. 운문 문언의 선법사상의 총체적인 관점은 화엄종의 '도(道)'가 '성(性)'에 두루하다고 하는 관점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이재사사(理在事事 · 이가 사사에 두루하다)와, 사사구리(事事具理 · 사사에 이를 구비했다)이다. 즉 이사무애(理事無礙)의 관점을 관철한 것이다."라고 했다. 즉 〈화엄경〉의 '불신충만어법계(佛身充滿於法界)'를 바탕으로 한 '법신설'과 대동소이한 사상이다.

다음은 몇 가지의 운문종의 종풍을 살펴보겠다. 먼저 운문송삼구(雲門頌三句)를 살펴보면, 운문종의 종풍은 험준(陡峻)하며, 간결하고 명쾌한(簡潔明快)것으로, 의도(사려)하지 않는 방법으로 참선자의 집착을 파제(破除)해서, 자심을 돌이켜보는 것이다(返觀自心). 운문종은 임제종과 같이 봉활준열(棒喝峻烈 · 봉활로 준열히 꾸짖다)한 것과 같지 않고, 또한 조동종과 같이 정영면밀(丁寧綿密 · 주도면밀, 정밀하기를 부촉한다)한 것과도 같지 않다. 그러나 "격렬언사(激烈言辭 · 치열 맹렬 극렬한 언사)로, 미망한 사람들을 위해서 식정망식(情識妄想 · 중생의 번뇌 망상)을 소탕하게 하는 것이다." 〈인천안목(人天眼目)〉에서 운문종의 선법을 개괄하기를 "운문종지는 중류를 절단하고, 의도를 용납하지 않으며, 범성의 길이 없고, 정해(情解)로는 통할 수 없으며… 높이 우뚝 솟은 험준한 산과 같아서 사람들이 함께 하기가 어렵다"고 평했다. 즉 운문종은 용준(聳峻 · 높고 험준하다)하고, 기용이 신속하고(機用迅疾) 의도를 용납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때문에 선림에서 왕왕 운문종을 '운문천자(雲門天子)', '운문일곡(雲門一曲)'이라고 운문 종풍을 표현하고 있다. 운문곡(雲門曲)은 원래 화하고곡(華夏古曲 · 중국고대 곡)으로 곡절(曲調 · 가락)이 매우 깊어서 부르기가 매우 어려우며, 듣는 자도 또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선림에서 운문종의 종풍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한다. 운문종의 학인들도 마치 천자의 신칙과 같아서, 한번 만기(萬機 · 국가 지도급의 정무)를 결정하면 다시 물을 수 없었으며, 따라서 사람들에게 조금의 여지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운문천(雲門天)'이라고 했다고 한다.

다음은 운문삼구(雲門三句)이다. 운문 문언이 대중에게 "함개건곤, 자기수량, 불섭만연"이라고 했는데, 대중이 대답이 없자 스스로 답하기를 "한 번에 삼관을 뚫어야 한다(一鏃破三關)"고 하면서 "함개건곤(函蓋乾坤)은 절대적인 진리가 천지지간에 두루 펴져 있으며, 전체우주를 덮었으며, 목기수양(目機銖兩)은 스승이 학인들의 번뇌 망상을 단제해서, 언어문자를 초월해서 학인들의 내심을 돈오하게 하는 것이며, 불섭만연(不涉萬緣)은 스승이 근기에 응해서 설법하는 것과 활발하고 걸림이 없는 교화제도를 시설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이 운문 문언의 삼구를 바탕으로 덕산 연밀(圓明 緣密)이 다시 정리를 해서 함개건곤(函蓋乾坤), 단제중류(裁斷衆流 · 중류를 단제한다), 수파축랑(隨波逐浪 · 물결을 따르고 물결을 쫓는다)을 만들었다. 이것을 가리켜서 덕산삼구(德山三句)라고 한다. 운문삼구를 사람들은 습관상 운문검(雲門劍), 취모검(吹毛劍)이라고 칭한다. 실제로 운문삼구는 하나의 유기적인 총체로서 내적으로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주된 것과 부차적인 것을 나누지 않는다. 운문삼구는 매구마다 모두 동등한 의의(意義)의 중요함을 갖추고 있다.

그 다음으로 운문8요 (雲門八要)이다. 운문종은 8가지로 학인을 제접하는 특징이 있다. 곧 玄 · 從 · 眞要 · 奪 · 或 · 過 · 喪 · 出이다. 즉 ①현(玄)은, 운문종의 종사가 운문종의 스님들을 교화하는 방식이 현묘(玄妙)하기 때문에 언어사량으로 측량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②종(從)은 학인들을 근기와 역량에 맞게 교화하고 가리키는 것이다. ③진요(眞要)는 불도(佛道)에 입각해서 종지(宗旨)를 드러내는 것이다. ④탈(奪)은 학인을 응대할 때 조금의 의도적 예견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⑤혹(或)은 운문종의 종사는 언어에 구속받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학인들을 교화제도하는 것이다. ⑥과(過)는 학인을 다루는 방식으로 매우 엄격하고 학인들이 전신(轉身 · 몸을 돌려)으로 회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⑦상(喪)은 학인들에게 그릇된 견해를 벗어나게 하는 것으로, 하나는 자심본성(自心本性)을 철오할 수 없다는 견해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를 집착하는 견해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⑧출(出)은 자유롭게 학인을 제접하는 방식을 채택해서 학인들에게 계오(契悟)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동국대 강사〉

"배워야 지혜가 자라고, 베풀어야 복과 덕이 크다" www.dongsanbud.net

동산불교대학 2020년 하반기 제57기 신입생모집 [2년과정]

● 불교학과 9월 10일(목) 오후 2시 개강 최봉수 교수 근본불교 강의
■주간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저녁반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통신반(사이버 강좌)

과목	반야사상, 부처님 생애, 인도, 중국, 한국불교사, 화엄경, 법화경 등 12개 과목
교수진	법산경일대종사(학장), 최봉수, 이미령, 유동호, 황순일, 김호귀 등 15명

● 불교다도학과 (2년과정) : 9월 8일(화) 오후2시 개강 "중국차" 〈김경미 교수〉
● 전통범패의식반 (2년과정) : 9월 9일(수) 오후2시 개강 〈인각스님〉
● 불교미술학과 (3년과정) : 9월 10일(목) 오전10시30분 개강 〈법인스님〉
● 불교의식반 (2년과정) : 9월 12일(토) 오후2시 개강 〈만춘스님, 문종순법사〉
■ 모집인원 : 100명(주간반, 저녁반, 통신반 각 30명 내외)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입학금 20만원
■ 원서교부 및 접수 : 2020년 8월 ~ 9월 10일
※졸업생은 한국불교교육단체(한불련) 포교사 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동산불교대학 동문은 월 회비 1만원(교육불사)으로 불교대학강좌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동산불교대학원 불교학과	비교종교론	붓다의 가르침(금강경)
	• 강의 : 9.8(화) ~ 12.22(화) 오후7시(16회) • 강사 : 최종석 교수	• 강의 : 2021.1.5(화) ~ 2.23(화) 오후7시 • 강사 : 최봉수 교수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대학원
사무처 : (우)03150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TEL 02)732-1206~8, FAX 02)732-1207 www.dongsanbud.net

종교상담사 자격 교육
귀장술비법

찾아온 (시간 · 일진)으로 왜 왔는지?
현재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내방자의 사주만 가지고 궁금증을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육임보다 쉽고 더 확실한 점술학…
(명리학을 잘 몰라도 됩니다)

제1기 종교상담학과 개설
☆ 현재 강의중 접수가능
☆ 강의일시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2시~4시
☆ 선착순 30명 접수 ☆ 강사 : 도호스님

3개월완성으로 상담 가능하며. 누구나 쉽게 배우고, 완벽한 과학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수강특전 해동불교대학원 종교상담과 수료증 수여 (총장 명의)

해동불교대학원 서울 종로구 종로17번길45
문의안내 02)741-0495~6

비구 스님 · 여성신도 거리 유지 '필수'



최재희의
비긴어게인 미얀마

⑯ 한국인이 알아두면 좋을 미얀마 문화

드러나지 않는 문화적 차이
여성 통금 시간은 저녁 7시
'성범죄'는 있지만 '미투' 없어
가해자는 암묵적으로 배제해
'여성과 접촉'한 스님 조심해야



기업에 초대받아 회장 및 임직원들의 보시를 받는 미얀마 스님들.



점심공양 시간의 모습.



탁발하는 스님들.

미얀마로 유학을 가기 전에는 해외에서 유학하는 친구들의 고충을 잘 이해하지 못 했다. 예를 들면 '문화가 달라서 생활 하는데 스트레스가 많아.' 라고 말하는 친구의 고민에 완벽히 공감하지 못 했었다. 미얀마로 떠난 후 '직접 경험해야만 배울 수 있다' 는 말을 남긴 소설가 루이스 라무르의 명언이 온 몸으로 이해가 되었다. 한국에서 십여년동안 미얀마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미얀마 문화와 관습에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유학 첫 날부터 나의 오만은 와장창 깨지기 시작했다.

운이 좋게도, 미얀마 집권여당인 NLD 최고위원분의 배려로 미얀마 경제 싱크탱크 '르네상스 연구소' 에서 미얀마 연구원 언니 2명과 지내게 되었다. 양곤대학교 기숙사 경우에는 여자라면 오후 6시까지 통금시간이 있었다. 앞으로 지내게 될 숙소는 기숙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자유로운 생활을 기대했다. 어느 날, 대사관 행사가 끝난 후 밤 10시가 넘어 집에 도착했다. 대문을 열고 들어 가자 마자 언니들은 나에게 '여자가 위험하게 밤늦게 돌아다닌다. 가로등도 없는데 얼마나 위험한 줄 아냐!' 등 여러가지 이유로 혼을 냈고, 그 다음날 아침에 NLD 최고위원분의 귀에도 들어가서 호되게 혼난 적이 있었다.

외국 경험이 있는 미얀마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여자가 혼자 밤늦게 돌아다니는 것을 많이 걱정한다. 특히 여자라면 저녁 6시에서 7시까지는 집에 귀가해서 가족들과 식사하고 집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미얀마 사회적인 관습 중의 하나였다. 유학생활을 2년 동안 하면서 적응 안 되는 것이 '통금' 시간이다. 대사관 행사 및 한국인들과 약속이 있는 저녁 식사자리라면 언니들에게 보고를 한 후 정확히 10시까지 집에 돌아와야 혼나지 않는다. 내년이면 30살을 바라보는 나로서, 앞으로 3년 동안 더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마치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불교'나라지만 성범죄 없지는 않아

한국에서 '미투(Me too)' 운동이 일어났을 때 몇몇 분께서 '미얀마는 불교나라라서 그런 일 없지 않아?' '불교나라라서 성(性)과 관련된 문제는 없지?' 라는 환상을 갖고 질문을 했다. 나의 대답으로 아마 그 분들의 환상이 깨졌을 듯하다. 미얀마가 불교나라라는 것은 맞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사회적인 현상이 미얀마 문화와 관습에 따라 우리나라와 다르게 나타나는 편이다. 미얀마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 "세상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부끄러움과 무서움"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시한다. 여기서 부끄러움과 무서움이란 악행을 하는 것과 선행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말한다. 부끄러움과 무서움을 망각하는 사람은 진리에서 제일 멀리 있는 사람이며, 부끄러움과 무서움을 망각하지 않으면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에 다가가게 된다. 이 가치관은 미얀마 사람들의 개개인의 생각과 행동으로 나타나며 사회의 암묵적인 규범이 되었다.

본래 부처님의 말씀은 '악행을 하는 것과 선행을 하지 못 하는 것' 에 대한 부끄러움과 두려움이지만 이것이 현재 미얀마에서는 '나' 와 '타인' 의 체면을 상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으로 굳어졌다. 성(性)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해도 수면 위로 문제가 떠오르지 않는다. 설령, 문제가 터졌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공론화가 되지 않는 것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의 소문에 상처받는 것을 극도로 조심하기 때문이다. 대신 가해자를 사회적인 관계에서 암묵적으로 배제시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가해자의 죄질이 나쁜 행동에 대해서 몰래 이야기를 해주는 편이다.

탑과 승가에 관해서는 발 조심하기

미얀마 스님들은 새벽 4시가 되면 탁발을 하기 위해 길을 나선다. 특별히 절에 아침 공양 보시가 오는 날이면, 외부로 탁발을 가지 않고 절에서 음식을 발우에 받는다. 신도들은 스님에게 공양을 보시할 때, 반드시 신발을 벗고 드려야 한다. 또한 불상과 탑이 있는 곳에 앉을 때는 반드시 발가락을 보여서도 안 되고, 발을 뻗으면 안 된다. 스님과 어른들에게도 앉을 때도 자신의 발을 보여서는 안 된다. 삼보(三寶:불 · 법 · 승)와 관련된 것과 삼보와 같이 자신들이 존경심을 갖는 '어른' 에게 '발' 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무례하고 부끄러운 행동으로 생각한다. 또한 불교 경전, 불교 관련된 책에 부처님 사진이 삽입되어 있는데 그 위에 물건을 올려놓으면 어른들에게 혼날 수 있다.

승가와 관련해서 조심해야 할 행동이 하나 더 있다. '스님의 그림자를 밟으면 안 된다' 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여성은 비구스님 옆에 가까이 서서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미얀마에서는 여성신도와 비구스님이 가까이 하는 것을 극도로 조심하기 때문이다. 스님에게 할 말이 있을 때는 스님이 앉아 계실 때 그 주위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또한 스님과 몸이 접촉하는 것 자체를 극도로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가까이 친견하지 않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미얀마 비구스님이 미얀마가 아닌 다른 나라에 가도 여성과는 가까이 접촉하지 않는 것은 미얀마 승가가 반드시 지키는 계율이다. 혹여 미얀마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난 미얀마 비구 스님이 여성과 가까이 있거나 몸의 접촉이 있다면 그는 진정한 미얀마 스님이 아니니 현명하게 피하는 것을 권한다.

직설적인 표현은 자제…우회적 발언

미얀마 사람들과 대화 할 때, 긍정적인 표현을 제외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우회적으로 해야 한다. 한국 사람들은 돌려 말하는 것을 답답해하고 싫어하는 경향이 있지만, 미얀마에서 한국스타일로 이야기 했다가 인간관계 단절을 맛볼 수 있다. 미얀마사람들은 '싫어하는 것' 을 표현 할 때, 말로 하지 않는다. 말을 아예 하지 않거나, 피하는 편으로 자신의 의사를 알린다. 혹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미얀마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하거나, 피한다면 그 문제에 관련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 는 표현을 하는 것이니 더 이상 묻지 않아야 한다.

또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화' 문제이다. 한국 사람이 미얀마 사람에게 부탁을 한 후 답변을 기다릴 때 '연락이 오지 않는다' 혹은 '연락을 해도 받지 않는다' 는 고충을 많이 들었다. 이것은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미안하다' 라는 뜻이다. 이를 전화하지 않거나, 받지 않는 것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2주 가량 아무 연락이 없거나,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다면 그 부탁은 다른 미얀마 사람에게 하는 것이 현명하게 인간관계를 이어 나가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시각에서는 '못 한다, 이건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고 솔직하게 이야기 해주는 것을 바라지만, 미얀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야기 하면 상대방의 감정이 상한다고 생각해서 우리나라식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서로가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살아온 문화적인 환경과 생활을 이해한 할 때 오해가 풀리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도 각자 다른 가치관과 표현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서 정착하여 사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 미얀마가 단순히 '불교' 나라여서 사람들이 모두 선량할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의 욕심이다.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빨리 경제개발을 못 하는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미얀마를 관통해온 문화와 관습 그리고 가치관을 이해 할 때 한-미얀마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지 않을까? 미얀마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미얀마 문화를 통찰력 있게 이해한 후 다가가야 할 것이다.

〈양곤대 박사과정〉

백의 관세음보살 신묘장구대다라니
천수 감로수

백의 관세음보살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효험 천수 감로수를
꼭 필요한 분에게 무료로 보시합니다.



천수 감로수를 개발한 지혜스님은 허약체질로 태어나 평생을 만성피로에 허덕이고 소화기능도 약해 잘 체하고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했으며 잦은 위통으로 음식 먹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수년간 병원과 한의원을 다녔어도 고통의 위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일상생활에 매우 지장이 될 정도로 위염에 많은 고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천수 감로수를 꾸준히 복용하고부터 만성 위통과 위염이 사라지고 현재 나이가 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더 가벼워져 활기찬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에서 위가 안 좋으면 몸의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를 못하여 모든 장기가 제 기능을 발휘 하지 못합니다. 지혜스님의 기도와 정성으로 만든 천수 감로수는 위장병, 아토피,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장청소 등 모든 장기 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위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복용하고 효험을 본 천수 감로수를 조심스레 추천 드립니다. 탄산약수로 기도와 정성으로 천수 감로수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불자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 하려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전화 주십시오.

연화정사 신도 합장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상담전화 010-7455-6742 (지혜스님)



국내최초
한국스틸 고건축
저렴한 비용!!

사업부
스틸대웅전 | 스틸한옥
일주문 | 한옥카페 | 문중재실
전시장 | 한옥인테리어 | 농막



목재대비 유사도 90%이상
* 바늘 끝같은 정교함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470 상담문의 010-5023-5050

법신도 법을 설할 줄 모른다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㉜ 삼안국토(三眼國土)

"어떤 것이 눈 세 개인 나라(三眼國土)입니까?"

임제가 말했다.

"내가 그대들과 함께 깨끗하고 미묘한 국토에 들어가서 깨끗한 옷을 입고 법신불을 설하며, 또 차별 없는 국토에 들어가 차별 없는 옷을 입고 보신불을 설하며, 또 해탈국토에 들어가 광명의 옷을 입고 화신불을 설하니 이 눈 세 개인 나라는 모두 행동을 의지해 변화된 것일 뿐이다. 경론가들은 법신을 취해 근본을 삼고 보신과 화신을 법신의 작용이라 하나 산승의 견해로는 법신도 법을 설할 줄 모른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말하기를 '법성신은 뜻을 의지해 세운 것이요 법성토는 법성의 본체에 의지해 말한 것이다' 하니 법성신과 법성토는 만들어 세운 몸이고 만들어 세운 국토인 줄 분명히 알아야 하느니라. 빈주먹에 노란 잎을 쥐고 금이라고 어린아이를 속이는 것이니라. 남가새나 마름의 바싹 마른 뼈다귀에서 무슨 국물을 찾는단 말인가? 마음 밖에 법이 없고 마음 안에도 없으니 무엇을 찾는다는 말인가?"

눈이 세 개인 나라(三眼國土)는 원래 〈화엄경〉에 나오는 말이다. '입법계품'에 선재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 남행할 때 11번째 만난 선견비구가 머물던 곳이 삼안국토이다. 삼안은 법안(法眼), 지안(智眼), 혜안(慧眼)으로 선지식이 갖추는 세 개의 눈이다.

'눈 세 개인 나라(三眼國土)가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답한 임제의 말을 보면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불을 설하는 곳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선의 질문(禪問)에는 답이 없다. 말로 하는 것은 답이 되지 못한다. 언어의 개념이나 논리로 선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임제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조주(趙州)의 무(無)자 화두가 나타난 배경은 이렇다.

어떤 스님이 조주를 찾아와 질문을 하려 할 때 마침 마당에 개가 한 마리 지나가고 있었다. 찾아왔던 스님이 이것을 보고 다짜고짜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이에 조주 선사가 "없다"고 답을 했다. 그런데 개가 불성이 없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열반경〉에 "모든 중생은 모두 불성이 있다(一切衆生悉有佛性)"고 하였다. 개도 중생인데 어째서 불성이 없는가? 이러한 논리로 대응하면 개가 불성이 없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그러나 선문답(禪問答)은 말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말의 격식이 없어 격외담(格外談)이라 한다. 굳이 말하자면 말로써 충격을 주어서 선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는 방편을 쓰는 것이다.

임제는 교가의 견해를 가지고 선가의 참뜻을 알려하지 말 것을 주문한다. 부처님의 본체인 법신도 법을 설할 줄 모른다고 했다.

〈벽암록〉 제1칙에 양나라 무제가 달마를 만나 나눈 짧은 대화가 소개되어 있다.

무제가 물었다.

"어떤 것이 가장 성스러운 진리입니까?(如何是聖諦第一義)"

달마가 답했다.

"텅 비어 성스럽다 할 것도 없습니다.(廓然無聖)"

무제가 물었다.

"나를 대하고 있는 그대는 누구입니까?(對朕者誰)"

달마가 말했다.

"모릅니다.(不識)"

흔히 말하기를 도를 알기 전에는 몰라서 모르고 도를 알고 난 후에는 말을 할 수 없어 모른다 한다. 이때 달마가 한 '모른다'는 나중에 달마불식(達摩不識)이라는 공안(公案)이 되었다 한다.

선가(禪家)에서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견해는 교가(敎家)의 견해라 치부하고 도(道)나 선(禪)에 들려면 지식의 세계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이른바 사교입선(捨敎入禪)이라는 말이 이래서 나온 것이다. 지식 과욕시대는 자칫 진리에 대한 체험은 없이 언어의 유희만 범람하고 사견을 조장하는 폐단이 많아, 안으로 얻는 수행의 체험이나 공부의 내공(內工)이 빈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혜는 제법의 체계적인 관조

〈諸法〉 〈觀照〉



세상 속 경전읽기

㉜ 오온개공(五蘊皆空)

제법(諸法 · dharma)은 '우주에 있는 유 · 무형의 모든 현상과 사물'을 말한다. 우리는 제법을 나와 동일시하는 오랜 습관에 따라 자신의 경험을 '나'와 '나의 것'이라는 용어와 결부해왔다. 제법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 반야지(般若智)이다.

불교도에게 '지혜[반야(般若)]'는 '제법(諸法)'의 체계적인 관조(觀照)이다. 이는 붓다고사(Buddhaghosa)의 공식적이고 학술적인 용어 정의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지혜는 제법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특성이 있다. 그것은 제법의 본성을 뒤덮은 무명의 어둠을 부수는 기능이 있다. 지혜는 아견[我見, 내가 있다는 견해]이라는 미망(迷妄)을 벗어난 상태이다. '선정에 든 이는 실제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을 볼 줄 안다'고 경전에 쓰여 있다. 선정으로 인해 지혜(반야)가 드러난다." 〈Edward Conze의 Buddihsm Its Essence and Development p105에서 번역〉

아비달마 논서에서는 '나'와 '나의 것'이라는 표현을 전혀 쓰지 않고, 무아적[無我的, 비개아적(非個我的)]인 제법들만의 상호작용으로, 우리의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구축한 것이 큰 장점이다. 제법의 체계를 적용할 때 '나'는 오온[五蘊, 色受想行識]의 다섯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다. '자신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자신이 기대고 있는 모든 것은 이 오온 중의 어딘가에 속한다. '나[개아(個我)]'가 존재한다는 잘못된 믿음은, 오온 위에 '나(자신)'라는 가아(假我)를 지어냄으로써 일어난다. 우리의 실제 경험에 가아가 끼어드는 것이다.

치통(齒痛)의 예를 들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에게 치통이 있다"라고 말한다. 이는 무아를 모르는 세속의 문법으로 말한 것이다. 제법 속에는 '나'도 '치통'도 '있다'도 들어있지 않다. 아비달마에서는 '개아에 관련된' 표현들이 '개아에 관련되지 않은' 표현들로 대치된다. 우리들 문법으로 '나에게 치통이 있다'라는 표현은 제법의 체계에서 비개아적 문법으로는 "1) 여기 물질[色]로서 치아라는 형체가 있다. 2) 고통스러운 '느낌[受]'이 있다. 3) 치아를 보고, 만지고, 괴롭다고 느끼는 '지각[想]'이 있다. 4) '의지적 반응[行]'의 형태로, 고통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바람' 등이 있다. 5) 이 모든 것을 알아채는 '의식[識]'이 있다."고 오온으로 분석된다.

제법을 오온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더 자세히 나눌 수도 있다.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에서는 5위75법(五位七十五法), 유식학파(唯識學派)에서는 5위100법(五位百法) 등으로, 제법을 다섯 가지 큰 범주에 75가지나 100가지의 작은 범주로 나누었다. 유위법[有爲法 · 인연생멸에 따른 법] 4종과, 무위법[無爲法 · 인연생멸을 여읜 법] 1종을 합해 5위라고 하고, 유위법 4종은 심법[心法 · 마음], 심소유법[心所有法 · 마음의 부수(附隨)작용], 색법[色法 · 물질], 심불상응행법[心不相應行法 · 감각되지도 않고 마음과 함께 일어나지도 않는 것. 이를테면, 현상들 사이의 관계, 작용, 성질, 세력, 명칭 등]이다.

가아(假我)도 실제 경험의 일부라고 항변한다면, 가아는 식온(識蘊)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심소유법 아래 근본번뇌[根本煩惱 · 貪, 瞋, 痴, 慢, 疑, 惡見] 중의 악견[惡見 · 身見, 邊見, 見取見, 戒禁取見, 邪見] 중의 하나인 신견[身見 · 자아가 있다는 그릇된 믿음]에 속한다고 할 수도 있다.

〈반야심경〉의 '오온개공(五蘊皆空)'은 곧 제법개공(諸法皆空)으로서, 오온이 가화합한 '나'도 없는 무아(無我)일 뿐 아니라 '나'나 우주를 구성한 요소들인 제법도 모두 공(空)하다는 아공법공(我空法空)의 도리이고, 이를 실제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것이 반야지이다.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㊽ 닦음의 길 18

묵조, 조용히 관조할 뿐

〈默照〉

어떤 이는 스펙터클한 액션영화를 좋아하지만, 반대로 조용한 느낌의 영화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외향적인 사람에게는 지루하게 보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묘한 감동과 재미로 다가오는 것이다. 음악도 에너지 넘치는 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용한 느낌의 뉴에이지를 즐겨 듣는 이도 있다. 어떤 이는 시원시원하게 말하지만,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거나 침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불교의 수행체계도 마찬가지다. 간화선과 같이 직접적이고 거침없는 스타일의 수행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묵조선(默照禪)과 같이 묵언(默言)을 중시하며 좌선을 통해 나와 세계를 관조하는 고요한 수행도 있다. 위장이 튼튼한 사람이야 무슨 음식이든 빨리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천천히 씹으면서 먹는 것이 좋다. 불교의 수행 역시 개인의 성향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실천하면 되는 일이다. 나와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그저 난센스에 불과하다.

묵조선은 조동종(曹洞宗)의 10대 조사인 굉지 정각(宏智 正覺, 1091~1157)이 주창한 수행체계다. 당시 간화선 중심의 분위기에서 〈묵조명(默照銘)〉을 지어 조동종의 고요한 스타일의 수행법을 강조한 인물이다. 천동산(天童山)에 오래 머물면서 활동했기 때문에 흔히 천동화상이라 불렸다. 그는 〈묵조명〉에서 "몸과 마음을 고요히 하고 말을 잊으면(默默忘言) 존재의 참 모습이 눈앞에 밝게 드러난다(昭昭現前)"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의 요체는 모든 것을 쉬고 조용히 앉아있는 데 있다. 지관타좌(只管打坐)라는 말로 대표되는 묵조선은 그저 온갖 잡념을 잊은 채 오로지 일념으로 좌선하는 스타일이다.

어찌 보면 매우 고요하면서 단순한 수행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을 쉬기만 하면 중생에서 부처로 질적 전환을 할 수 있을까? 그에 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청정하면서도 밝은 부처의 성품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은 고요하면서 뚜렷이 밝은 신령스러운 바탕이지만, 평소에는 온갖 번뇌, 망상으로 가려져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번뇌 덩어리인 몸과 마음을 쉬기만 하면 본래의 바탕으로 돌아가서 존재의 참 모습이 환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수행자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침묵(默)한 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좌선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존재의 실상을 환히 밝히는(照) 지혜가 저절로 작동하게 된다. 견성(見性)이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조용히 수행할 때 찾아오는 선물이다. 묵조선에서는 특별히 화두를 타파해야 한다는 목표의식도 필요 없다. 오히려 뭔가를 구하려는 바로 그 마음을 내려놓고 조용히 관조할 뿐이다.

묵조선을 이 땅에 처음으로 소개한 인물은 구산선문(九山禪門) 가운데 수미산문(須彌山門)을 연 이엄 진철(利嚴 眞澈 · 870~936)이다. 조동종의 맥은 조선 중기까지 이어졌는데, 〈삼국유사〉를 편찬한 일연(一然 · 1206~1289)이나 매월당 김시습(金時習 · 1435~1493) 등이 그 전통을 지킨 인물들이다. 그 후 조동종의 자취는 사라졌지만, 오늘날 전통을 복원하려는 노력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굉지와 동시대를 살았던 대혜는 묵조선을 강한 어조를 비판하였다. '검은 산의 귀신 굴(黑山鬼窟)'로 빠지게 하는 수행이거나 아니면 '고목이나 불 꺼진 재(枯木死灰)'처럼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는 비아냥도 난무했다. 조용히 좌선만 하게 되면 무기(無記), 즉 수행할 때 생기는 멍한 상태에 빠져 결코 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영향 때문에 간화선 중심의 한국불교에서 묵조선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대개 잔잔하고 조용한 영화를 보면 조는 경우가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면서 감상하는 사람도 있다. 묵조선을 한다고 해서 모두 무기에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 자체를 틀렸다고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사람들의 다양한 근기에 맞는 대기설법(對機說法)을 강조했던 붓다의 정신과도 맞지 않는 일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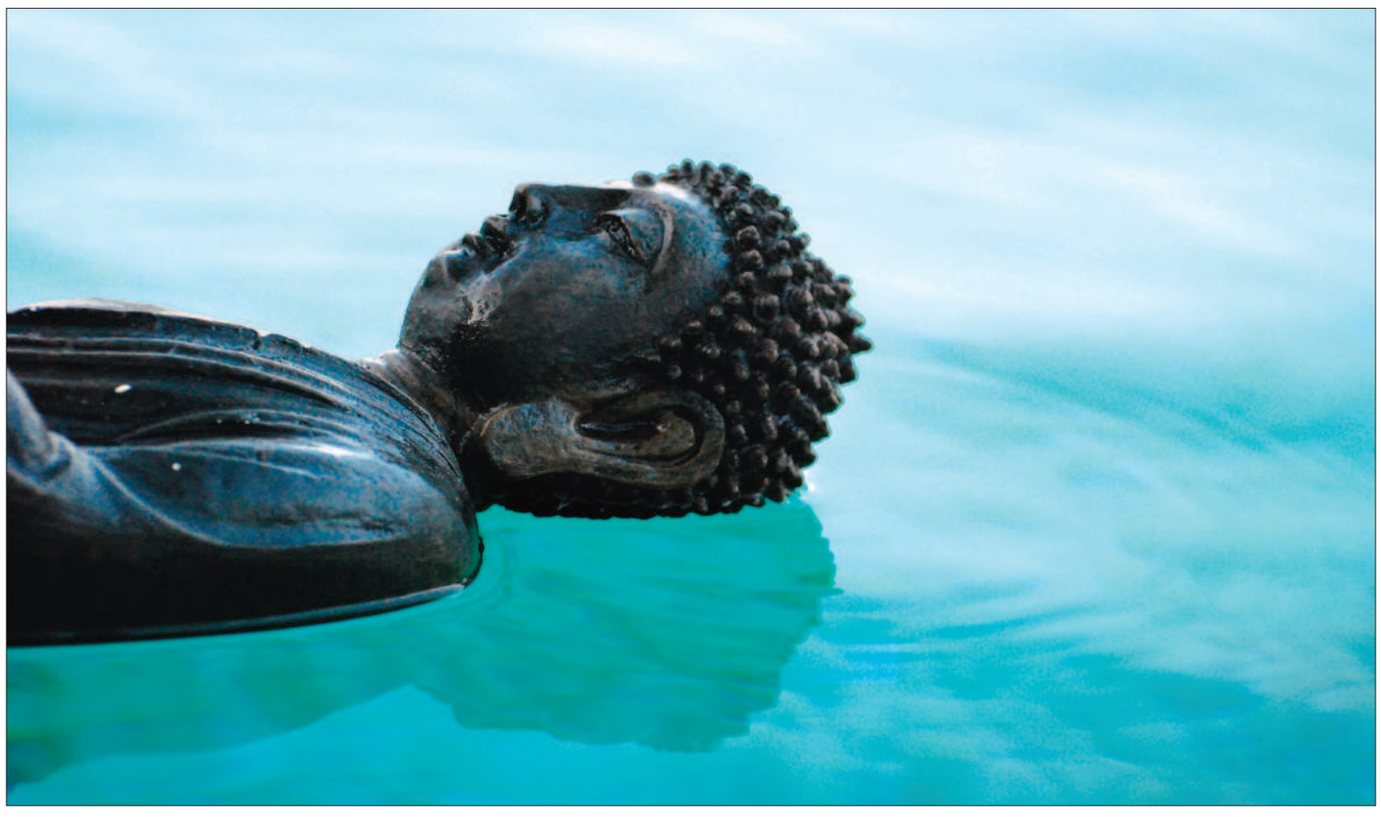
위빠사나 기본, 생활 속 '주시'

명상書 톺아보기

정준영 교수의

'위빠사나 이야기-있는 그대로'

〈5〉 마하시 위빠사나 기본수행법 3



서서하는 수행

서서하는 수행은 주로 걸으며 하는 수행과 함께 진행되기에 행선의 연장선상에서 설명하려 한다. 수행자가 앞으로 나아가다가 벽이나 장애물이 있어 멈추려 할 때는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멈추려 함' 이라고 이름을 붙이며 멈추려는 의도를 먼저 주시한다. 그런 후에 '멈춤' 하면서 동작과 주시를 일치시키면서 멈춘다. 멈춰 있는 상태에서도 수행자는 주시를 멈추지 않고 서서하는 수행을 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빠르게 주시

서서하는 수행은 수행자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스캔하여 감싸듯 주시하며 서 있는 것을 말한다. 몸 전체가 피부라는 포장지에 싸여 있는 듯,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를 반복해서 주시한다. 이 때 수행자는 자신의 몸이 마치 위아래가 묶인 자루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시 방법을 보디스캔이라고도 한다.

수행자는 필요에 따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부위별로 나누어 느껴지는 감각을 찾아 주시하며 내리고 올릴 수 있다. 이 때 몸의 특정한 부분에서 강한 느낌이 일어나면 수행자는 스캔 작업을 멈추고 그 부위만을 집중적으로 주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행선과 함께 진행되는 보디스캔의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몸을 훑어 내리고 올리는 정도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다시 돌아서 걸어가야 하기에 내렸다 올리기는 1회 정도가 적당하다.

의도도 주시의 대상

행선을 지속하기 위해 뒤로 돌아서려 할 때에는 '돌아서려 함, 돌아서려 함' 하면서 돌아서려는 '의도' 를 주시하고 '돌아감, 돌아감, 돌아감' 하면서 몸과 발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며 돈다. 도는 동안에도 발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완전히 돌아섰을 때는 '돌아섬' 하면서 서 있는 몸의 상태를 다시 한 번 스캔하여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는 '나아가려 함' 하면서 나아가려는 의도를 주시한 후 다시 '들어서' 혹은 '듦, 듦, 듦' 하며 주시하며 걷는다. 보이지 않는 의도를 찾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의도가 보이지 않으면 동작을 통한 느낌과 명칭에만 집중해도 된다.

행선이나 주선이 끝나고 앉아서 하는 수행을 하고 싶으면 '앉고 싶다' 라는 의도를 주시하고 앉을 때 역시 무겁게 내려앉는 몸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한다. 움직임이 그치고 몸이 고요해지면 다시 배의 오르내림을 '일어남' , '사라짐' 으로 주시한다.

걸으며 하는 수행은 가능한 앉아서 하는 수행과 균형을 맞추어 진행한다. 마하시 위빠사나의 경우 한 시간 앉아서 하는 수행을 했다면, 걸으며 하는 수행 역시 한 시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앉아서 하는 수행만을 주로 하면 심신이 침체되고 걸으면서 하는 수행만을 주로 하면 심신이 들떠 깊은 주시와 집중을 얻기 어렵다. 앉아서 하는 수행과 걸으며 하는 수행의 조화가 잘 이루어 질 때 깊은 주시와 집중 속에서 효율은 극대화 될 것이다.

누워서 하는 수행

수행은 눕거나 잠자리에 들 때도 지속한다. 수행자가 몸을 눕힐 때는 먼저 몸을 눕히고자 하는 의도를 주시하고, 천천히 누우면서 모든 동작과 느낌, 팔다리를 가지런히 놓는 등의 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주시한다. 몸을 완전히 눕혀 움직임이 고요해지면 다시 배의 '일어남' , '사라짐' 을 주시한다. 주시를 하다보면 좌선 때와 같이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이때 수행자는 두드러진 현상에 이름을 붙이면서 계속 주시한다.

와선의 핵심, 누워서도 주시

잠자는 시간에 누웠다 해도 바로 잠을 자지 말고 배의 움직임을 주시한다. 내가 잠에 들어도 대상을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주시한다.

주시가 유지된다면 쉽게 잠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혹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수행하면 피곤할 것이라고 염려하겠지만 머지않아 잠을 잔 것보다 피로가 더 잘 풀리고 몸이 가벼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누워서 수행을 하다가 졸음이 심하면 끝내 잠에 빠지게 된다.

> **행주좌와 몸 · 마음 관찰**
> **수면시간도 주시 연장해**
> **외부에서의 자극에 반응**
> **관조하는 수행력 키워야**

수행자는 항시 와선을 하며 잠에 드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면 시간은 수행자가 주시를 멈추는 유일한 시간이다. 수행처 안에서 진지하게 수행하려는 수행자는 하루 4시간 이상 자지 않는다. 4시간의 수면은 수행자에게 충분한 시간이다. 더러 4시간의 수면이 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는 이들은 5~6시간을 잘 수 있다. 6시간 수면은 일상생활을 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다. 그리고 수행자가 잠에서 깨어날 때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주시가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초기경전서 보이는 붓다의 와선

붓다 역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와선을 했다. 경전 설명에 따르면 붓다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일어날 시간에 마음을 두고 주시와 분명한 앎을 유지하며 잠자리에 들었다고 한다.

'수행자는 동작을 관찰하며 오른쪽으로 눕는다. 그리고 일어날 예상 시간에 마음을 둔다. 세존께서는 가사를 네 겹으로 접어놓은 후, 한 발 위에 다른 발을 올려놓고, 주시를 지니고, 분명한 앎을 지니고, 일어날 생각을 마음에 두고서, 오른편으로 사자와 같이 누우셨다.'

이처럼 붓다는 항시 오른쪽으로 누웠다고 묘사되고 있다. 이를 사자가 누운 형태라고 하는데, 이렇게 누우면 자는 동안 몸의 무게에 의해서 심장이 방해받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여 숙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자세는 악몽과 몽정을 막아준다고 한다. 사찰의 와불을 살펴보면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처럼 경전은 오른쪽으로 모로 눕는 것을 설명하지만 위빠사나 수행에서는 등 전체를 바닥에 대고 바로 누울 것을 권장한다.

와선은 수행자의 몸이 몹시 지쳐있거나, 앉아서 하는 수행이나 걸으며 하는 수행에 진전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다. 수행자는 누워서 배의 오르내림을 주시하며 지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킨다. 하지만 초보수행자가 누워서 하는 수행에 치중해서는 안된다. 누워서 하는 수행보다는 앉아서 하는 수행과 걸으며 하는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항상 깨어 있음

수행자는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잠에 드는 순간까지 항상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주시하고 알아차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직 잠자는 시간에만 어쩔 수 없이 그 노력이 멈출 뿐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일찍 일어나며, 또한 잠에서 깨어날 때도 '잠이 깬다' 라고 주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이것을 주시하지 못했다면 곧 주시하지 못했음을 알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동작들부터라도 주시해야 한다.

먼저 잠자리에 일어나고자 할 때는 '일어나려고 한다' 라고 그 의도를 주시한다. 실제로 일어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팔다리의 움직임, 머리를 들면 '듦' , 일어나 앉으면 '앉음' 등 모든 움직임을 세밀하게 주시한다. 특히 이를 닦거나 세수나 목욕을 할 때는 움직임이 많고 빨라지므로 그 세세한 동작들을 주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그밖에도 옷을 입고, 잠자리를 정돈하고, 문을 여닫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볼 때에도 모든 움직임과 느낌을 가능한 세밀하게 주시한다. 눈을 뜨고 있는 동안 매순간 주시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천천히 움직이며 빈도수 높인다

위빠사나 수행은 행주좌와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의 동작으로 확장된다. 만약 걸을 때,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일어날 때, 먹을 때, 볼 때, 들을 때 등에 주시가 정확하지 않다면 좀 더 천천히 움직여 단계적으로 주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초보 수행자는 움직일 때 마치 병자가 행동하듯이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 평소보다 좀 더 천천히 움직임으로써 동작에서 오는 현상을 놓치지 않고 자세히 주시할 수 있다. 빠르게 움직이면 그만큼 많은 대상을 놓치게 된다.

물론 의도적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은 있는 그대로가 아닌 조작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걷지 못하는 자가 달릴 수는 없는 일이다.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하면 그냥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훈련과정이 필요하다.

수행처가 아닌 현실세계서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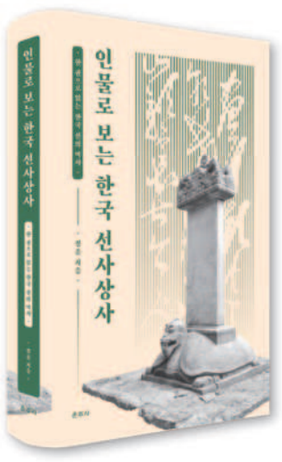
수행자는 간혹 "수행했다는 사람이 왜 저래?" "차라리 수행 안한 사람이 낫다" 등의 비난을 듣기도 한다. 이러한 비난을 듣는 이유 중 하나는 수행이 수행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수행처는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감각적 욕망이나 집착할 만한 대상을 통제하고 있다. 수행처는 말 그대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마련해 놓은 장소다. 혹자는 수행처를 고행처로 비유하지만 수행처만큼 안전한 곳도 드물다. 수행자는 수행처에서 외부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수행을 한다.

하지만 수행처 밖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대상들은 오감을 자극하는 것들로 가득하다. 세상은 감각적 욕망을 최대한 자극하도록 계발되어 있다. 결국 많은 연습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한순간 수행의 대상을 놓치게 되었을 때 수행자는 비난의 소리를 듣는다. 그런 점에서 수행처는 마치 실내 골프연습장과 같다. 바람도 잔디도 주변사람도 신경 쓸 일이 없다. 단지 집중하여 공을 잘 치면 된다.

하지만 실제 골프장은 어떠한가? 바람 잔디 날씨 그린의 경사도, 주변사람을 얼마나 의식하느냐 등에 따라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끊임없이 잠복해 있고 수시로 발생한다. 위빠사나 수행 역시 수행처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수행처에서 주시하고 집중하는 훈련을 했다면 이들이 실제 적용되는 곳은 수행처 밖의 현실이다.

한 권으로 읽는 한국 선의 역사!

인물로 보는 한국 선사상사



1,600여년 한국 선의 역사를 톺아보다!
선의 전래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주요 선사들의 행적과 사상을 통해 한국선을 입체적으로 조망하였다.

한국불교의 정체성과 미래를 성찰하다!
옛 선사들의 사상과 발자취를 통해 역사적으로 한국선이 지향하고 추구해온 바가 무엇인지를 포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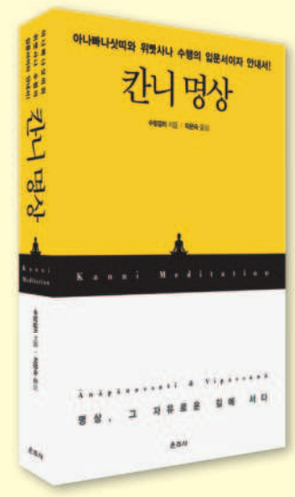
풍부한 사진으로 현장감을 높여주다!
저자가 오랜 시간 직접 찍은 200여 컷에 이르는 자료 사진을 수록하여 이해를 돕는다.

정운 지음/신국판 양장/전면컬러/544쪽/값 27,000원

K a n n ī M e d i t a t i o n

미얀마 스님들에게 구전으로 전해온 수행법 최초 소개!

칸니 명상



상좌부 불교의 정통 가르침과 주석서에 근거한, 아나빠나삿띠와 위빳사나의 정수를 담은 수행법!

단시일 내에 깨달음에 이르는 지혜를 성취할 수 있는 특별한 수행법!

수행 방법을 아주 세밀하게,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수행 입문자뿐 아니라 보다 깊게 명상을 이해하려는 이들을 위한 종합 안내서이다!

수망갈라 지음, 차은숙 옮김/신국판/600쪽/값 30,000원

K a n n ī M e d i t a t i o n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06호 | 15 | 전면광고

큰 신심은 곧 불성이요,
불성은 곧 여래니라.



부처님 말씀 읽기 -《열반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허리병 고치는 법 발을분 배울분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입종 동참안내

불교문화정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효보당 108사주 비법 완전전수

한손으로 가장 쉽고 빠르게 똑소리나게 풀어냅니다.
짧은시간에 완전 이수되며 섬세하게 누구나 풀수 있구요.
▶ 현재의 궁금점과 대안책
(타고난 인생, 인체의 병, 영가, 일년신수, 왜! 원인과 해결)
▶ 과거/현재·미래·사주와 미래의 대안책
스님, 철학인, 법사 등 대상
왕초보 22강 진행(속성반 7강 진행)
출장 및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010-2901-8923

운명학 단기완성

데이터 기반 명리학과
특별한 비법 단기 강의,
스님께 확신이 됩니다
3개월 단기완성
수업료 : 5백만원
교육시간 : 주2회 (2시간씩)
문의 010-2480-5677
(아는소리 명리학당 총무)
한국불교태고종 지성선원(창원시 성산구)

★검 색★

①네이버
운명자가진단 손금보기
②유튜브
손도사 동영상
인간계발과 MBTI연구원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먹으로쓴 반야심경8폭병풍 소장하실 불자님 연락주십시요

지리산감나무골 운송도암
010-9208- 3835

점안식 49재 천도재

불공 사찰행사 전문
• 범음범패 실전위주교육
바라나비무,법고,화청,살풀이,풍수,
명리,육효,주역,작명(학인모집)
• 남 · 여 결혼 성사 접수 중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031-953-3328
010-8893-8361

팔공산 천년고찰

운전도 하고 주지스님
수발하실 보살님 구함
(50대~60세)
010-8833-4416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078-9595

수강생 모집(그림)

•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종로오피스텔 4층 401호)
• 매주 수·목요일 주 1일 [월 4일]
•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10-3747-8692

명리·육효강좌

(연결카페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가반 ○ 초보에서 실천완성
명리·육효학 ○ 초보반 : 명리·육효 기초가 전혀없는 왕초보
○ 실전반 : 명리·육효 기초 완성자
백암역리원 02)597-1101
오시는 곳 :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생각대로 되는

기도법을 전수, 스님에 한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054-753-8228, 010-8852-0075

2009년 보이차 숙차(노동지 병차) "9978"[357g] 식약청 정식 통관제품



전통적인 맹해 차창의 7572 배방방식으로 오랜동안 보관하셔도 좋고,
바로 드셔도 그 맛과 기운이 아주 좋습니다!
한정수량 특별판매가
▶ 노동지 병차 [숙차(357g)] 1개 ····· 55,000원
▶ 노동지 7자 병차 [숙차(357g) x 7개] ····· 308,000원
■ 식품유형 : 단일침출차 (보이숙차) ■ 중량 : 357g ■ 원산지 : 중국 운남성 ■ 생산일자 : 2009년 1월 6일 ■ 제조원 : 안녕해만차업 유한책임공사
문의:02-732-1520 마하몰 (www.mahamall.co.kr) 계좌번호:농협 053-01-269062 ㈜현대불교신문사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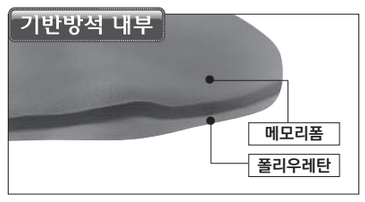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8월 26일 수요일 | 불기 2564년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06호 | 16 | 전면광고

온갖 것은 믿음으로 으뜸을 삼으니,
이것이 모든 덕의 근본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법망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
◎ 대지 : 120평
◎ 건평 : 50평
◎ 시내중심, 토굴 및 암자
◎ 매가 : 15억

◎ 위치 : 부산시
◎ 주상복합상가
◎ 건평 : 90평
◎ 공원옆, 주차가
◎ 매가 : 7억5천만원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
  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
  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
  역세권 대도로접3층
- 약 50평, 도시가스, 옥상사용,
  주변주차시설양호
- 보증금 500만, 월 45만
- 시설비 1300

010-7337-595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1억(가격절충가능)

010-5421-1536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 법당: 55평 ● 요사: 75평
- 대지: 500평 ● 임야: 4천평

※1300년 고목, 지하150m 석수
1일 200톤이상 생산가능

- 가액 : 11억(대출 2억5천 포함)

010-4547-499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역
  (2,4호선)
- 먹자골목, 교통최요지
- 2층 평수 30평, 시설 완비,
  즉시 강좌, 법회 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 125만원
- 시설비 : 답사후 절충

010-9150-2284

포 교 원 안 내

- 위치: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 수락산역 등산로입구
  (먹자골목)
- 약 30평 / 방3 / 법당 별도
- 총3층 건물 3층(옥상사용)
- 보증금 5천만원
- 월 40만원 / 시설비 5백만원

※ 불교서적 1천권 무료드림

010-5656-276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 북구 호계동
  유황사우나앞 도로변 3층
- 평수 : 50평, 방 3개
  (도시가스)
- 보증금 1천만원, 월60만원
- 시설비 없음

010-9110-3301

좋 은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도심
- 대지 200평, 법당 50평, 요사채 100평,
  별채 50평
- 가액 : 25억 (대출가능)
- 별채빼고 양도가능
- 신도다수 ●건강문제로 양도코저 함

02-992-0032

멋진토굴(급)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내 인근
- 대지 : 약 717평방(약 217평)
- (멋진 2층건물 1층 방5개 기도처)
  (2층 방3개, 거실, 주방, 밖 휴게공간)
  마당, 잔디, 조경좋음 주차공간 확보
- 가액 : 3억에서 5천 빼드림(조정가능)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회원구
  내서읍 (내서IC 3분거리)
- 대지 100평. 법당 25평
- 요사채. 스님친견실. 산신각
  대형주차장
- 가액 : 3억1천만원(절충가능)

010-5550-9725
010-4001-8476

지리산 작은암자

- 위치 : 경남 하동 적량면
  작은암자
- 인법당, 별채 두동
  황토방 하나
- 가액 : 2억 5천

010-6770-8163

사찰(암자)안내

- 위치 : 세종시 전의면
  (청정도량)
- 대지 : 550평, 삼성각4평 목재
- 건평 : 대웅전 24평 목재
- 요사채 : 약 30평, 황토방 10평
- 가액 : 6억 5천
- 주차장시설 완비

010-6768-716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 대지 : 123평, 건평 : 60평
- 법당외, 삼성각, 용왕,
  호신불당, 마당6층 옥탑,
  차고, 자연수(사철)
- 상수도, 뒤는산, 전면 좌우
  주택지
- 가액 : 3억 5천

010-2720-1580

◈◈◈
부 동 산
사찰양도 전문
명진도사
◈◈◈

010-4492-3479

사찰(급)안내

- 위치 : 전주 중심 풍수대명당, 전주 한옥마을 10분거리, 사찰에서 전주가 한눈에 들어옴
- 등기면적 : 4백여평, 실제 사용평수 1천여평 국유지 절 뒤 1만여평 무상 사용중
- 석불(산신, 용왕, 아미타불, 지장보살, 약사여래불)1억5천 석불로 3년전 모심, 극락전 1억 3년전 신축, 약수터 최상, 대나무숲, 법당, 요사채 1억5천 3년전 편백나무 인테리어 시공(40평), 현재 도량 마당 1억 공사중
- 가액 : 5억(대출 3억5천 포함)

010-9647-0723

토 굴 안 내

- 위치 : 충북 옥천군
- 황토구들토굴 방2개
- 본채앞 조립식 약4평
  1년 8만원
- 건물 7백만원

010-9288-004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송구 동산동 동산병
  원옆, 동산네거리 대도로접 3층
- 40평, 방2, 응접실, 다용도실,
  3층건물 3층
- 보증금3백만, 월30만, 시설비
  1천5백만
- 즉시 법회가능, 꼭 하실분만
  연락요

011-9572-4652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 대지 : 350평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답사후 결정

010-7584-8338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불교조계종대학림 02)511-1080

불교조계종(총무원) Tel 02)511-2026~7 | Fax 02)511-2028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합장주·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0mm) 판매가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M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M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M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M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M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M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행 스님

뾰죽한 입으로 뾰죽하게 말하지 말고 둥근 입으로 둥글게 말을 하라

항상 여러분과 같이 공생(共生)·공용(共用)·공체(共體)·공식화(共食化)하고 있고 한자리를 하고 있지만 그 한자리를 하고 있는 까닭에, 여러분은 여러분이고 나는 나로서 서로 헤어졌다가 만나고 만나고 헤어지고, 오늘도 한 장소에서 또 이렇게 만난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분잡하게 다니고 있는지 잘 아십니까? 지금은 세계적으로나 만방에 다 도제 양성(道弟養成)이 시급한 시대라고 봅니다. 타력 신앙으로써 기복으로만 맹종하고 항상 그렇게 나아가기만 하는 사람이라면 광대무변한 인간의 도리 또는 법신(法身)의 도리, 부처 될 도리로서 해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더할 수 없는 고등 동물로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볼 수 있어야만이 이 세계를 볼 수 있고, 세계를 조절할 수 있고, 또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조화를 이루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체제에서도 살아나갈 수 있게끔 리드해 가면서 세계를 조절해 나간다면 지금 공산주의니 중도니 왈가왈부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평화롭게 정상적인 체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와서 여러 가지로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공업도 발전하고 또 의학도 발전했지만, 여러 가지 문화 문명을 다 꽃피웠다고 볼 수 있겠지마는, 또 그런 반면에 뭐든 오염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이나 여러 생물이 오염으로 인해 그냥 스러져 가야만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친다면, 인간다운 도리를 못 하는 우리를 어디 인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비록 한 철을 지내다가 가지만 그 시기에 얼마만큼 인간답게 살아나가는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점이지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하듯이, 이거는 아주 고고한 말이 아니라 무식하지만 순박한 얘기로서 한마디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건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작년 씨를 심어서 올해 추수를 해 들이듯이 여러분이 다 수박이라면 작년 씨로써 수박이 된 거지 작년 씨가 없이 어떻게 수박이 됐겠습니까? 여러분은 작년 씨로 인해서 수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한테나 물어보십시오. 작년 씨를 바깥에서 찾을 수 있겠나. 바로 씨와 살과 껍질이 다 한데 합쳤습니다. 혼합이 돼서 수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씨가 있지 딴 데 씨가 있는 게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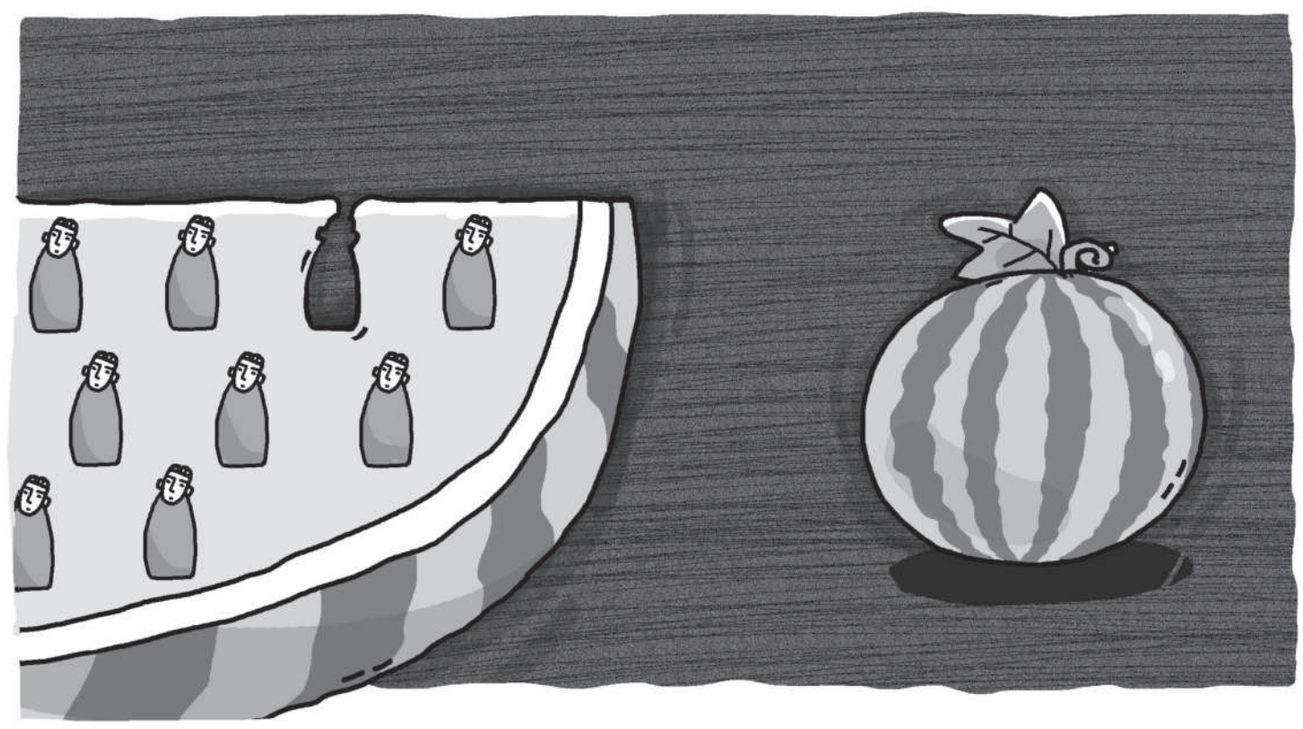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래서 인간이나 저런 식물이나 또는 흙이나 바람이나 불이나 또는 공기의 생명도 다 이 씨로 인해서 나온 것이죠. 근본 원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러면 우리가 원소를 발견하고자 할 때는, 수박은 자기 안에 들어 있는 씨로 인해서 생겨났고, 그 수박을 일체 중생에게 다 먹이고도 그 씨가 되남아서 그 씨를 또 심고 또 먹이고 또 심고 또 먹이고 하니,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는다는 걸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이 생겨난 것만큼 먹고 살 수 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먹고 살 수 있고 많으면 많은 대로 먹고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씨를 무조건 의심을 하기 이전에, 의정을 만들어 준다 이러기 이전에 무조건 자기 수박 속에 씨가 있다는 거를 미리 믿고 들어가야 합니다. 스스로 의정이 나는 거하고 만들어서 의정을 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 차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모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더라도 그 수박에 의해서, 나고 드는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 내고 들이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다 놓고 가는 게 첫째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침착하게 무심(無心)으로써 수박씨를 싹 틔우는 겁니다. 그래서 무심도(無心道)로써 그 수박이 싹이나 가지고 길러져서 거기서 수박이 열려. 열려 가지고 그 수박이 무르익어서, 여러분한테 그저 내주어도 줄지 않고, 또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는 그러한 능력이 자라나게 되죠. 아마도 거기에서 다시 태어난다면 '청정(淸淨) 자재천궁(自在天宮)'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한 도리를 지금 이렇게 알고 또 거기다 놓고 갈 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점수나 돈오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또 내 씨가 진짜 있다고 믿고 거기 놓고 돌아갈 때, 스스로서 둘이 아닌 도리가 나오고 거기서 유(有)와 무(無)의 세계가, 이 세상이, 우주가 그냥 벌어지기 때문에 그때서야 의정이, 대 의정이 나는 겁니다. 그때 의정이 적든 크든 다 나는 거지, 내가 우정 의정을 내서 의심하는 것은 그거는 빈 맷돌에 물건 넣지 않고 그냥 돌리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그러니 그 차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참으로 이 도리를 알아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우주 법계에 두루 할 때에, 저런 화성에도 그렇고 딴 혹성에도 다 생명은 있지만, 생명이 남의 눈에 보이게끔 할 수도 있고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자재 요건이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 이겁니다. 또 그뿐이 아니죠. 지금 이 세계가 서로 왈가왈부하고 싸움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조절하고 조절치 않고, 떼어 놨다 붙였다 붙였다 떼어 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것을 리드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죠. 언젠가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이 세계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렸다고 말입니다. 이 세계는 여러분의 주먹 가운데에 딱 들어 있다 이겁니다. (중략)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야, 오염 물질이나 모든 것이 이렇게 확고부동하게 되질 않고 사람들이 모두 잘못만 저지르고 싸움이나 일으키고 이러니 이걸 어떡하느냐."라고. 정치해 나가는 것도 뭐 어떻고 어떻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랬죠. 내 생각에 속으로, 잠자코 있으면서 하는 소립니다. '야, 모두가 한생각에 중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도리거늘, 일체제불과 일체 중생이 다 한마음에 뭉쳐서 한생각을 낸다면 다 해결 날 수 있을 것인데, 왜 타의의 딴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 원망해 봤자 그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한 가정에서 아버지 노릇을 해 보시죠? 조금 잘 돌아가면 아버지가 수월하고 또 그 자식들도 부인도 일가친척들도 다 "아휴, 저이는 근면하고 아주 착실하게 잘 산다." 하고, 그게 망해 가지고 잘 안될 때, 그럼 속상해서 술이라도 한잔 마시고 그러면은 "저건 저러니까 저렇게 됐지." 이러죠. 부모는 안타까워하겠지만 자식들이나 일가친척들이나 부부지간에도 그거는 금이 가고 말아요. 당신은 뭘 잘했다고 술만 먹고 그러냐 이러죠. 이 속을 (가슴을 짚어 보이시고) 알아주지 않죠.

그러니까 그럴 게 아니라 더 따뜻하게 다시 한번 마음을 일으켜 세워 줄 수 있는 그런 산하대지의 어머니가 된다면,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는 바로 태양의 아버지가 된다면…. 또는 다 키워서 거름도 잘 먹일 수 있고 태양인 아버지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돼야만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한테도 그런 영향을 주고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 하는 일은 표시도 나지 않으면서도 야, 밥해야지, 먹어야지, 빨래해야지, 치워야지 또 딴 사람이 오면 뭐 어쩌고 어쩌고 하다 보면, 이 엉덩이가 무겁고 다리가 무겁도록 그렇게 하루 종일 하다 보면 남편이 들어와요. 그러면 또 받아 줘야 하는 이치가 있죠. 그리고 심부름해 줘야 하죠. 그럴 때에 그 말 한마디가 약이에요.

아주 "여보! 당신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 18면으로 계속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民衆醫術 민중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부처님의 마음을 빗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

망상이 망상이 아니라 자기의 불심을 키워주는 보리예요, 보리!

☞ 17면에서 계속

수고가 많으셨소, 더운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 들어와서는 “여보! 나만이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은 집에서 표시도 나지 않는 그 수고를 얼마나 많이 했소? 몸이 피곤하지?” 이렇게만 한마디 하면 그 아팠던 게 ‘그냥 언제 그랬더냐? 내가 뭐, 언제 엉덩이가 아팠나?’ 하하하. 이렇게 없어지는 겁니다. 피곤했던 것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자식들한테도 악하게 말을 하지 말고 부드럽게 말을 해서, 모든 건 주인공에 맡겨 놓고 그저 부드럽게 말해 주고, 그저 널리 내다볼 수 있는 평화로운 그 평등한 마음…. 우리 스님이나 스님 아닌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은 도둑대로 꼬리표 붙여서 생전 도둑 하라고 붙여 놓은 건 아니거든요. 또 나쁜 사람도, 술만 먹는 사람도 평생을 술만 먹으라고 그렇게 붙여 놓은 건 아니거든요. 저 사람이 술을 먹게 된 동기, 뿌리를 캐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보죠. 그렇게 해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어머니들이 가지시고 뾰죽뾰죽한 입으로 뾰죽뾰죽하게 말을 하지 말고, 둥근 입으로 둥글게 말을 해서 그 자리가 얼마나 편안하고 소중한지 알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 어머니의 도리요, 아버지의 도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불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살림살이 빼놓고, 우리들 빼놓고, 자식들 기르는 것 빼고, 사회를 빼놓고 무슨 불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만 가지 천 가지 번뇌 망상이 다, 육십이견(六十二見)이 다 공(空)한 까닭에 색(色)이 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실상이고요. “망상을 끊어야 한다, 끊어야 한다.” 하는데 망상, 그 만 가지 망상이 다 오는 대로 그게 뭘 뜻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불심을 키워 주는 바로 보리예요, 보리! 불심을 키워 줄 수 있는 보리! 그러니까 그 망상이 망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망상이 없으면, 이 생각 저 생각이 없으면 목석이게요? 목석이 무슨 부처를 이룹니까? 무슨 인간입니까? 그러니 그 망상도 소중하죠. 아주 묘하죠.

그러니 망상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소중하게 주인공에 놔라 이겁니다. 한데 뭉쳐 녹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대자비와 대승경지이며 그것을 이루어서 이 산하대지를 그냥 훌떡 집어삼킬 수 있다 이겁니다. 부처가 보이더라도 집어삼키고 넘어가고, 마구니가 보이더라도 집어삼키고 넘어가라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저 부처도 아니다” 하니까, 그저 부처를 아무런 방편도 없이 막 때려 부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뚱이가 맞아서 죽더라 이거예요. 그거를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내 마음과 같이 생각하고 내 생명과 같이 생각한다면 아, 그거를 홀딱 여기에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갖다 넣고는 그 물질만 없앴으면 아무 일이 없을 텐데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위패를 해 놓고 영가를 청하고 그러죠? 건덕지가 없으면 영가가 어디 붙을 자리가 없어서 못 하니까 위패를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도 이 모습이 없으면 나 자신의 자성신(自性神)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거죠. 있다 할지라도 보질 못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이렇게 바쁜 세상에 제사를 지내더라도 맏며느리나 맏아들은 일 년이면 열 번을 지내고, 열 몇 번을 지내는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하질 않고 일 년에 많든지 적든지 세 번씩만 종합해서, 모든 조상들을 한데 합쳐서 세 번씩만 지내 드리면서 무슨 때면은 또 무슨 때대로 지내 드리고, 그거는 뭐, 백중 때나 또는 정월 때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거고요. 제사 많은 집들은 백중이나 정월은 빼놓고 세 번으로 그냥 만들어 놓고 찹쌀떡으로 세 둥치만 해 놓고 과일 세 가지, 나물 세 가지면 오히려 만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좀 더 느끼는 바가 있는 분들은 나물 세 가지 해 놓을 것도 없고 과일 세 가지 해 놓을 것도 없어요. 떡 세 켜면, 물 또는 향, 초면은 그것으로 만족해요. 아주 깨달은 분들은 그것도 저것도 없어도 돼요. 그건 왜냐? 내 마음속에 촛불이 있고 향이 있고 떡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 세상을 다 먹이고도 되남는 떡이 있으니 그 뭐, 떡을 새삼스럽게 갖다가 놓고 보일 건 뭐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평등하고 온 누리를 다 싸안을 수 있으리만큼 크다면, 그 조상들의 영령들도 다 문을 열어 놨으니까 거기에 들어서, 둘이 아닌데 어찌 모르겠습니까? 온 세상 게 내 자리고, 온 세상 게 내 거지 뭐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런데 따로 뭘 차립니까. 그만큼 익었으면 그렇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너무 살기에 바쁜 세상에서 열 몇 번씩 이렇게 한다면 그 자식들한테도 고통을 주는 거고 그러니 많은 집들은 일 년에 세 번으로 아주 매기단을 해서 그렇게 할 때는 찹쌀로만이 떡 세 켜, 조그마하면 조그만 대로 좋고 크면 큰 대로, 잘살면 큰 걸로 하고 또 돈이 없고 못살면 그저 한 조각이라도 하되, 한 조각을 셋으로 나누어서 놓으면 또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과일 세 가지 나물 세 가지를 한데 합쳐서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해 놓으셨다가 식구가 잡숫고, 또 떡은 냉장고에 넣었다가 그거 한 봉지 한 봉지 꺼내서 녹여서 후라이판에다가 해 가지고, 허허허, 남편이나 자식들이 좀 헛헛할 때는 고것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갖다가 주면 그것이 바로, 조상들 2세가 바로 그 조상이거든요. 그래서 대신 먹어 주는 거는 2세가 먹어 주고, 냄새를 맡고 정성 들이고 하는 거는 다 2세가 들이는 까닭에 2세가 대신 먹는 거거든요. 그 정성의 마음은 바로 조상들이, 부처들이 다 한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편을 제시하는 거지요. 그러니 마음의 인등을 켜세요. 날마다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선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나라는 조건을 세우지 않고, 주인공에다가만 맡겨 놓고 한다면 삼계(三界)에 나타나지 않게 하는 참선입니다. 또는 내가 주인공에다 맡겨 놓고 아주 진정코…, 아까 수박씨 얘기 했죠. 수박씨는 내 안에 수박씨가 있다 하고 믿고 거기다가 다 맡겨 놓고,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걸 다 맡겨 놓고 내 탓으로 돌리면서 온갖 생활을 다 하는 것이 바로 참좌선이다 이거죠. “앞뒤 없는 피리처럼, 대피리처럼 안이나 바깥이나 다 그냥 그 어디에고 머무르지 않는다. 찰나찰나 돌아간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갈 때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처니까, 앞뒤에서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머무르지 말라. 걸리지 말라.” 이 소립니다. 머무르지 않는 것이 참좌선이다 이겁니다. 번뇌 망상을 피하지 말고 녹여라. 용광로에 넣듯이 거기 놓는다면 바로 그것이 열반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다.

번뇌 망상을 피하지 말고 녹여라.
용광로에 넣듯이 근본 자리에 놓는다면
바로 그것이 열반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다 부처니만큼 법을 행하는 여러분이 되기 때문에 문수가 될 수 있고, 또는 움죽거릴 수 있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보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보현, 문수, 부처가 따로 없이 여러분이 그대로 부처요, 그대로 문수요, 그대로 바로 보현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그뿐인가요? 아플 때는 약사가 돼 주고, 또 가난할 때는 관세음이 돼 주고, 또는 명이 짧을 때는 칠성이 돼 주고, 좋은 데로 가지 못해서 애쓸 때는 지장이 돼 주고, 이렇게 만 가지 법을 다 가지고 있고 만 가지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부처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시면서…, 또 이런 게 있죠. 어떤 사람은요, 조금만 안 좋으면 벌써 병원으로 가요. 그래 가지고 온통 속을 다 뒤져 보고 그러고는 거기서 얘기하는 대로 다 쏠리거든요. 자기 중심은 인제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기는 그냥 껍데기만 살아요.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데요. 알맹이가 있어서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하고 안에서 자기 알맹이가 생각하는 거하고 맞들어가서 100%를 가지고 살아야 사람의 구실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기 뿌리는 어디 가고, 남의 얘기만 듣고 갈대처럼 흔들리다가 뿌리가 솟아서 그냥 죽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하고 30%는 병원에서 고칠 수 있고 약을 쓸 수 있지만 70%는 내가 완벽하게 거기에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맡겨 놓고 ‘내가 충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나가야 몸도 건강하고 속에 있는 그 부하들도 공장들도 잘되는 거죠. 그래야 능률을 내고 그러죠.

지금 우리의 능률을 모두 꺼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말입니다. 모두 그냥 싸움들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마음들이 모두 단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나 저렇게 하는 사람이나 똑같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놓질 못했기 때문에 모두가 서로 싸우고 크고 있는 거죠. 크나 작으나 말입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남만 나무라기 이전에 자기가 그것을 다 해결하고 충당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들 이 몸속에, 오장육부 안에 공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공장을 제대로 이끌어 나가지 못한다면 재정이 모자라게 되고, 재정이 모자라는 게 벌써 이 몸이 쇠약해진다는 얘깁니다. 공장이 부진하면 몸이 벌써 쇠약해지죠. 그런 거와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부족하게 되고 그 공장이 능률을 내지 못하고 이러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한마음으로 이끌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마음으로 이끌어 주기 위해서는 첫째는, 모든 걸 거기에 놓는다. 둘째는, 위가 아프다고 그러면 위 공장을 리드해 나가야죠. 공장 직원들을 말입니다. 공장 직원들을 한마음으로 거기다 맡겨 놓으면 거기 위 공장에서는 “야! 사장님이 말이야, 우리도 글쎄, 같은 사장이라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 그대로 갈 수는 없지, 아무렴. 사장님과 더불어 우리가 둘이 아닌데.” 하고선 그때에 능률을 많이 내는 겁니다.

‘이건 네 거고 내 거고’ 이렇게 한다면 말도 안 되죠. 촌충이 한 마리라도 나 아닌 게 없어요. 내 배 속을 들여다보세요. 모습을 진드기로도 가지고 있고, 빈대 같은 것도 가지고 있고, 죄 가지고 있는 게 자기지 뭐 딴 사람입니까? 그런데 바깥에서 본다면 그게 더럽고 징그럽고 야단법석이죠. 내 오장육부에다 공장 직원으로다가 쓰면서도요. 그것이 바로 직원이 아니라 자기거든요. 인과로 인해서 뭉쳐진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자기란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몸뚱이를 이끌고 가려니까, 자기가 그 모습으로 하고 있어야만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습 모습이 화(化)해서 돌아가는 이 일체 만법이 다 부처님 모습 아닌 게 없고, 부처님 마음 아닌 게 없고, 부처님 도량 아닌 게 없고, 부처님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질문 없습니까? 질문이 없다 하더라도 괜찮고 질문을 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함이 없이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이 말을 해 놓고도 그 말한 것이 이렇게, (물컵을 드시고) 물질처럼 그냥 이렇게 뭐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그걸 속이느라고 백 번 천 번을 속여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린 진실하고 성실하고 다감하고, 진짜 사랑을 알면서 도반으로서 같이 열심히 공부해 나가기를 진정코 바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와 세계와 전 우주와 더불어 한마음으로 조화를 이루게 되어서 우리나라가 재정이 부족해서 애를 쓰고 대책을 세우듯이, 그 모든 것을 허공에서도, 다른 데서도, 자력이나 광력을 이끌어서 전력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 안에서 재료가 모자란다고 그냥 죽을 겁니까? 한마음이 무심으로써 무심도(無心道)의 중용은 어디서든지 끌어서 어디서든지 충당하게끔 돼 있습니다. 남들은 겁이 나서 뭐,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되지. 저렇게 해야 저렇게 되지.” 하지만 그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물건 다 사듯이, 내가 있으니깐 돈도 있는 거고 그렇듯이, 우리가 마음공부를 해서 한 주먹에 쥔다면 그때 가서는 참 자유자재할 수 있는 여건을, 그 열쇠를 여러분이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인가를 받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인가를 말입니다. 오늘은 이걸로써 그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행해 보십시다.

※위 법문은 1990년 8월 19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용수 스님의 아침편지

조용히 마음의 주인이 되어

부처님께서 깨친 苦, '두카(고통)'란 항상 무언가를 갈망하여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늘 무언가를 구하는 마음의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고통 속으로 향하고 있는 습관적인 마음의 작동을 느리게 하고 해체하는 것이 '명상' 입니다. 명상을 하면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본성의 평화와 자유가 드러납니다. 순수하고 조건 없는 본성의 기쁨은 비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재미있고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명상하세요. 피아노, 골프, 태권도, 사찰요리 하듯이 마음공부 하세요. 마음공부가 깊어지면 마음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삶이 무한히 아름답고 흥미롭고 경이로워집니다. 고통은 이미 많이 겪었고 계속 될 것입니다. 아집과 이기심과 번뇌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업을 쌓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평화와 받아들임과 깨달음을 연습해서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따로 시간을 내고 특별한 공간을 찾아서 마음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서 조금씩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입니다. 숨은 수행자가 되십시오. 조용히 마음의 주인이 되어 내면의 빛을 찾고 그 빛으로 자신과 세상을 밝히십시오.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은 마음의 의지와 결심 그리고 실천에 달려 있어요.





진광 스님의 길 위의 풍경들

⑯ 수미산– 마나사로바 호수

'샴발라'는 모두 가슴에 있다

거대 바위산 조성된 구게왕국
번창하다 돌연 패망 '미스테리'
星湖 마나사로바 호수서 작별을

카일라스 코라길 순례를 마치고 돌아와 다시 신비의 구게왕국으로 향했다. 창탕고원으로 가는 길은 험하고 아찔하기만 하다. 해발 5000m의 길이 끝도 없다. 우리의 목적지인 자다마을은 자타토림과 구게왕국 유적지로 유명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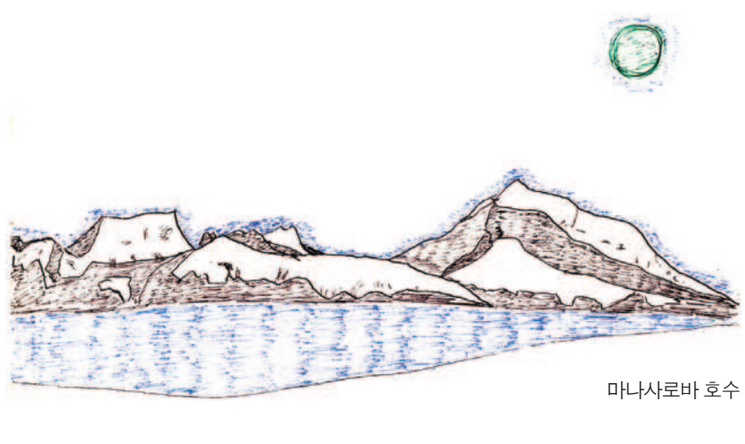
가는 길에 구름도 쉬어간다는 5510m의 아이라고개 정상에 올라 자다토림의 장관을 조망한다. 말 그대로 흙산이 풍화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흙의 숲인데, 마치 화성에 온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신비한 풍경이다. 미국 그랜드캐넌에 버금가는 웅장한 자연은 신과 자연의 합작품이자, 흙이 빚은 조각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자다마을은 앞으로는 수트레이강이 흐르고 사방으로 흙산의 토림계곡이 병풍처럼 둘러친 사막의 오아시스같은 도시다. 특히 저녁 무렵 석양빛에 토림이 물들어가는 모습은 자못 몽환적이고 신비하면서 아름답기 그지없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18km 떨어진 자부랑 마을의 구게왕국 유적지로 향했다. 가는 길의 양편에는 토림이 산맥을 이룬 채 장엄하게 자리한다. 이 협곡은 '다와쫑' 이라고 하는데 '달의 계곡' 이라는 의미다. 실제, 달밤에 보는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4월 보름의 달 밝은 밤에는 다와쫑 계곡에 길이 하나 나타나는데, 이 길을 따라가면 이상향인 '샴발라' 로 통한다고 한다. 아니, 샴발라는 각자의 가슴에 있다.

유적지에 다다르니 거대한 바위산 형태의 구게왕국 유적이 장엄하고 신비한 모습을 드러낸다. 이 거대한 바위산이 곧 하나의 왕국으로 궁궐이자 사원이며, 백성들의 거주지이자 생활터전이 되었다. 아침 햇살이 떠오를 적에 바위산 머리부터 황금빛으로 점차 물들어가는 모습은 단연 압권이 아닐 수 없다. 신비의 왕국이 아침 햇살에 다시 깨어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구게왕국의 불교는 제2대 왕인 코레가 왕위를 버리고 불경 번역과 사원건축의 불사를 진행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한다. 인도의 유명한 학승인 아티샤가 왕의 초청으로 구게왕국에 와서 최초의 사원인 토링사를 창건하고 불전 번역을 한 것도 이 즈음이다. 이때 티베트 불교에 '샴발라' 라는 이상향의 전설도 생긴다. 허물어지고 퇴락한 구게왕국의 유적지에는 1000여 개의 토굴과 445칸의 건축물, 그리고 58개의 요새와 28기의 불탑과 네 갈래의 비밀통로를 갖추고 있다.



마나사로바 호수

옛날 이 왕국은 실크로드와 차마고도가 교차하는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로 사금과 암염의 교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번영을 구가했다. 그런 서부 티베트의 맹주인 구게왕국이 어느 날 갑자기 연기처럼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것은 하나의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다. 보통 천재지변설과 이슬람 침공설 등이 있는데, 1630년 라다크 왕국의 침공으로 왕국이 함락되고 전멸을 당해 멸망했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특히 밀교적인 불교회화 작품은 단연 압권이다.

구게왕국의 마지막 왕이 오랜 공성에 지쳐 백성을 구하고자 바위산 꼭대기의 왕궁에서 투신해 최후를 맞았다고 한다. 마치 백제 멸망 시 부여 낙화암에서 꽃처럼 투신한 민초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이처럼 망국의 왕과 민초는 서럽고 한스러운 정한(情恨)을 느끼게 한다. 어쩌면 그들 유민들은 자신들이 영원한 이상향으로 믿던 '샴발라' 를 찾아 그렇게 숨어버렸는지도 모르겠다.

구게왕국 유적을 돌아보고는 조금 일찍 내려와 자부랑 마을의 차관에 들렀다. 그 곳에서 티베트 현지인들과 함께 그들의 주식인 뚝바(비빔면) 한 그릇과 따뜻한 텐차(紺茶)를 함께 마셨다. 예토와 정토, 현세와 샴발라가 모두 이 한 그릇의 밥과 차에 있는 듯 하다. 그러니 밥이 곧 법(法)이고, 하늘(食爲天) 이다.

구게왕국을 돌아보고 자다마을로 돌아와 최초 사원인 토링사에 들러 순례 회향식을 가졌다. 모두들 뿌듯하고 행복한 얼굴과 마음들이다. 지도법사 영진 스님과 대중스님들의 신심과 원력 그리고 자비덕화에 감사할 따름이다. 돌아오는 길에 한바탕 소나기가 내리더니 무지개가 나타난다. 우리 순례의 원만회향을 축하하는 하늘의 선물인 듯하다. 모두들 내려 무지개를 배경으로 꽃보다 더 아름다운 스님들이 웃음꽃을 피운다. 그대로 화장찰해다!

다르첸에서 하룻밤을 보내고는 귀호(鬼湖)인 락샤스탈 호수와 성호(聖湖)인 마나사로바 호수를 보러 나섰다. 먼저 락샤스탈 호수에 갔는데 음산한 구름 아래 바다처럼 파도가 세차다. 이곳은 염호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은 호수와 같다. 이 호수는 마나사로바 호수와 물길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물길이 만들어진 것은 어느 물고기 한 마리의 노력 때문이라는 전설이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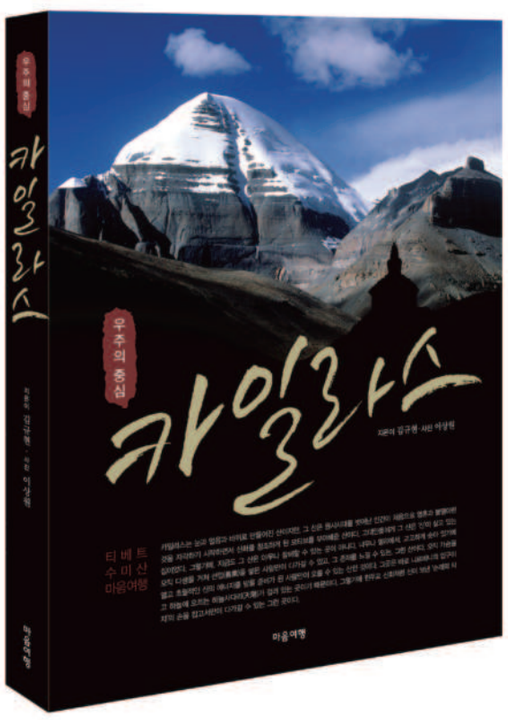
마나사로바 호수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치우사원에 올랐다. 티베트의 성자인 파드마 삼바바가 은거 수행한 동굴로 그의 발자국이 아직 남아있다고 한다. 멀리 아름다운 순백의 설산인 나미모나니산(7694m)이 자리하고, 그 품안에 성스러운 마나사로바 호수가 그림처럼 신비하게 자리한다. 마나사로바 호수는 해발 4586m에 자리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담수호로, 티베트에서는 나무쵸, 암드록쵸와 더불어 3대 성호(聖湖)로 손꼽힌다.

마야부인이 이곳에서 목욕재계하고 태몽을 꾼 후에 부처님을 낳았다는 설화가 전해지며 일명 '우주의 자궁' 으로 신성시 된다. 근자에는 인도의 국부인 마하트마 간디의 유해가 그의 유언에 따라 이곳에 뿌려졌다고 한다. 마나사로바 호숫가로 다가가 성수로 머리를 씻고 한 모금 마셔보았다. 무언가가 숙세의 죄업을 정화한 채 전혀 다른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느낌이다.

이제는 뒤돌아선 채 떠나야 할 순간이다. 우리는 성산 카일라스와 성호 마나사로바 호수에게 안녕(Goodbye)을 고하지만, 그들은 도리어 '안녕(Hello)' 이라고 말하는 듯 하다. 그리고 우리를 처음 본 듯이 빙그레 미소지으며 두 팔 벌려 맞이해준다. 짜시달레, 카일라스! 내 생애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순간의 꽃이여, 섬광같은 깨달음이여, 가없는 자비와 행복이여라!

〈조계종 교육부장〉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성스러움에의 열망과
영감의 근원을 찾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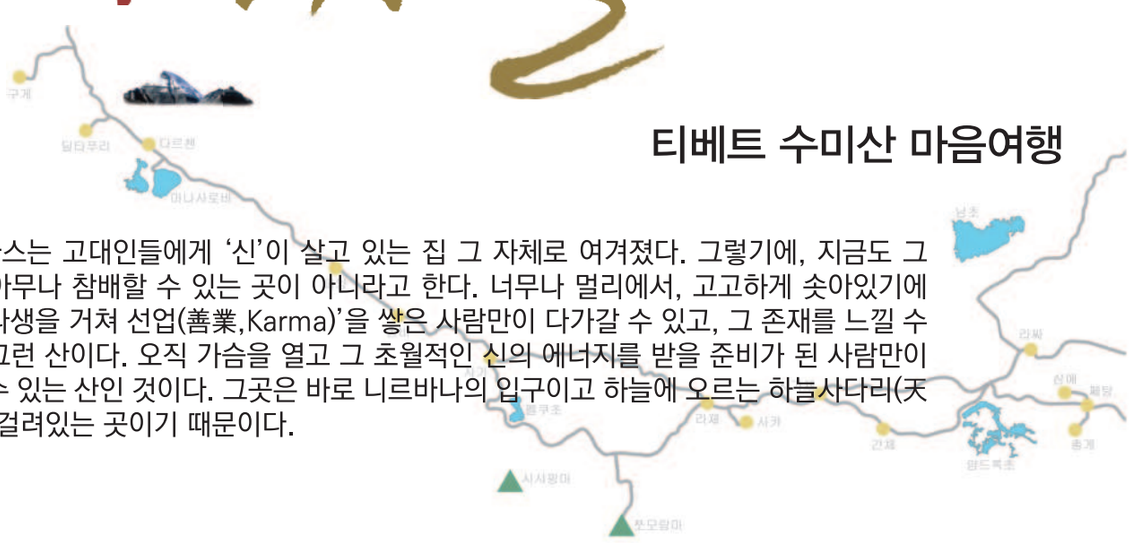


수미산 신앙의 진원지로 알려진 이 산을 향해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뵌뽀교 등 4대 종교의 교도들은 이 산의 신성에 대한 숭배와 찬양으로 이곳으로 모여들어 온 몸을 던져 머리 숙여 기도하고 참배를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생의 죄업을 정화하고 다음 생을 준비하는 통과의례로 삼는 전통을 세워 내려왔다.

지은이 김규현 · 사진 이상원
펴낸곳 마음여행 실크로드
크라운판 / 304쪽 컬러 / 값 25,000원

우주의 중심 카일라스

티베트 수미산 마음여행



카일라스는 고대인들에게 '신'이 살고 있는 집 그 자체로 여겨졌다. 그렇기에, 지금도 그 산은 아무나 참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한다. 너무나 멀리에서, 고고하게 솟아있기에 오직 다생을 거쳐 선업(善業,Karma)'을 쌓은 사람만이 다가갈 수 있고, 그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산이다. 오직 가슴을 열고 그 초월적인 신의 에너지를 받을 준비가 된 사람만이 오를 수 있는 산인 것이다. 그곳은 바로 니르바나의 입구이고 하늘에 오르는 하늘사다리(天階)가 걸려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 전화 02-720-9600 홈페이지 www.maumtour.com,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S&S빌딩 901호

불기 2564년

마음을 밝히는 칠석
은혜를 갚는 백중

땅에서 싹이 났는데 그 싹이 뿌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뿌리와 더불어 마음을 밝히라는 뜻으로
촛불을 켜는 날이 칠석이고 백중입니다.

–대행선사법어–

재단이사장 혜 수
주 지 혜 솔
신도회장 박종수

사부대중 합장

국내지원

● 광명선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TEL(043)877-5000 FAX(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황사평6길 176-1 (영평동)
TEL(064)727-3100 FAX(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동삼동)
TEL(051)403-7077 FAX(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04번길 23-1 (치평동)
TEL(062)373-8801 FAX(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 26-12 (천곡동)
TEL(052)295-2335 FAX(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 (중동)
TEL(053)767-3100 FAX(053)765-1600
● 중부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35
TEL(055)345-9900 FAX(055)346-2179
● 진주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로 528-40
TEL(055)746-8163 FAX(055)746-7825
●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위안양골길 157-61
TEL(041)852-9100 FAX(041)852-9105
● 포항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59 (우현동)
TEL(054)232-3163 FAX(054)241-3503
● 청주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교서로 109
TEL(043)259-5599 FAX(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하평5길 29 (포남동)
TEL(033)651-3003 FAX(033)652-0281
● 통영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 45-230
TEL(055)643-0643 FAX(055)643-0642
● 목포지원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266번길 31-1(상동)
TEL(061)284-1771 FAX(061)284-1770
● 문경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봉서1길 10
TEL(054)555-8871 FAX(054)556-1989

국외지원

● 미국 뉴욕 플러싱지원(NewYork)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직통)070-7883-5239 TEL:(1-718)460-2019
● 미국 워싱톤지원(Washington D.C.)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1-703)560-5166 FAX:(1-703)560-5166
● 미국 로스엔젤레스지원(Los Angeles)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1-323)766-1316
E-mail : hanmaumla@naver.com
● 미국 시카고지원(Chicago)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1-847)674-0811
● 캐나다 토론토지원(Toronto)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1-416)750-7943 FAX:(1-416)981-7815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Buenos Aires)
Miró 1575, CABA, C1406CVE, República Argentina
TEL:(54-11)4921-9286 FAX:(54-11)4921-9286
● 아르헨티나 뚜꾸만지원(Tucumán)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Tucumán,
T4107CHN, República Argentina
TEL:(54-381)425-1400
● 독일지원(GERMANY)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49-2131)969551 FAX:(49-2131)969552
● 태국지원(THAILAND)
86-1 soi 4 Ekkama,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인터넷전화:(070)8258-2391 TEL:(66-2)391-0091
● 브라질 상파울로지원(Brasil)
R. Newton Prado, 540-Bom Retiro-Sao Paulo-CEP:
01127-000 - Brasil TEL:(55-11)3337-5291

2020년 (칠석)8.25 (백중)9.2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www.hanmaum.org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석수동) **T) 031-470-3100 F) 031-470-3116**